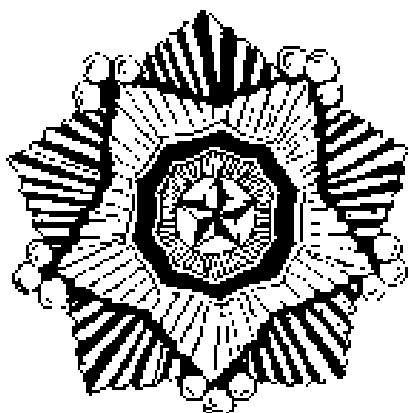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11

주체 90 (200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11호

(루계 제 649 호)

◆◆◆◆◆◆◆◆◆◆ 차 례 ◆◆◆◆◆◆◆◆◆◆

다시 나의 감탄	4
대지의 노래	5
명언해설	11
내 가슴에 새겨 진 20 여일.....	12
전설의 땅우에 달이 내렸네	12
세기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태양칭송의 메아리.....	13
만경대로 가는 길.....	17
봄의 향기.....	17
스승에 대한 생각.....	18
시조 4 수	19
고향의 향기	20
함께 가는 길.....	23
《개아들》 훈장	31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	32

[illegible]

다시 나의 감탄

김석주

레사로운 날이나
레사롭지 않은 날
그이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 진
또 몇년 세월
내 오늘 다시 쓰노라, 나의 감탄을

나의 감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그이의 사색의 첫 시작부터
그이의 머나먼 전선길 첫 걸음부터

그 누가 알수 있으랴
순간순간 그이 무엇을 사색하시는지
쉽없이 가시는 그 걸음 어디에 가닿을지...
알수도 짐작할수도 없는
그런 시각에 그런 지점에 그이 가계시거니

원썹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그이 판문점에 문득 서계시는 순간
최전연고지에 서계시는 순간
장군님, 저기가 어디기에...
내 놀라움과 함께 무릎을 쳤노라
과연 백두산장군이시다!

내 솔직한 말 그대로
정리한 멋쟁이 벌을 보면서도
우리 장군님 하시는 일 다 멋쟁이라는 생각
희한한 타조목장을 보면서도
우리 장군님 희한하다는 생각...

사실 그이는 가장 평민적이었다
인간이 완성의 최고경지에 오르면
그처럼 소탈한것인가
그이의 수수한 옷이 유행복이 되고
그이의 보통 안경마저 유행이 되어 가거니

김정일!

세상이 닮을만 한 인간이시다!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건

미소에 반하고
기지에 반하고
식견에 반하고
그 매력, 그 향기에 반해서
어쩔줄 모르며 사모하게 되는분

정견, 신앙, 제도가 어떻건
한번 만나뵈오면
자기도 장군님편이라고
자기 나라엔 장군님편이 많다고
대번에 한편이 되어 따르게 되는분

정말 결출하시다!
영웅남아이시다!
무엇이나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하시는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이미 그이는 결심하시었다
나는 믿는다
그이 이끄시는 우리의 사회주의
언제나 승승장구하리라하는것을

내 마음 달려 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노라
이 땅우에 천지개벽을 안아 오는 그 하나하나
강성부흥으로 달음치는 그 모든것
장군님 사회주의맛이 납니다!
정말 멋 있습니다!

감탄이여, 끝 없는 나의 감탄이여
그것은 그이의 사색의 모든 순간순간에 울린다
그것은 선군령도의 모든 걸음걸음에 터친다

그것은 그이의
한마디 말
하나의 손짓
하나의 몸짓에서도...

대지의 노래

송병준

이른 아침, 은빛 서리를 하얗게 들썩 수삼나무들이 줄 지어 늘어 선 길로 한대의 승용차가 나는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차안에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게 생긴 중년의 일군이 타고 있었다. 황해남도의 책임일군인 장문걸이었다.

《더 뺏으라구!...》

그는 운전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연방 독촉을 했다.

《시속 120km입니다.》

나이 지긋한 운전사는 앞의 시창을 긴장하게 주시하며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길가의 가로수들이 뻗뻗 지나치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차바퀴밑에서는 누런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 났다. 그러나 장문걸은 차가 벌벌 기여 가는 것만 같았다. 마음은 더없이 초조했다. 당장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였다. 그는 지금 도안의 산골군에서 니탄밭을 새로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첫 새벽에 달려 갔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연백벌의 토지정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기 위해 평양을 떠나셨다는 기별을 받고 급히 되돌아 선 길이었다. 가슴속에서는 건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심장이 세차게 방아질을 했다. 한시바삐 장군님을 뵈고 싶었다.

장문걸의 눈앞에는 불현듯 장군님을 서원땅에 모시였던 열흘전 눈 내리던 그날이 떠올랐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 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눈을 다 맞으시며 토지정리전투장을 돌아 보시였다.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 진 하나같이 꼭 같은 구역포전들... 편대를 지어 흠뻑을 밀고 나가며 세찬 동음을 울리는 불도젤들, 그 뒤로는 농장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논두렁을 짓고 물길을 짜고 포전길을 만드느라 법석 끓고 있었다. 함박눈은 마치 꽃보라인양 그들의 머리우에 흠날렸다.

장군님께서 그들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만족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황해남도에서 확실히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렸소. 토지정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일을 제겼구만.》

그러시고는 길옆의 화강석표식비에 시선을 멈추시고 저기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달수관리위원장과 사진을 찍은 자리가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옆에 있던 군당책임비서가 그이의 앞에 나서며

그렇다고 말씀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숙연한 표정을 짓고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논두렁길로 향하시였다.

《장군님, 논두렁이 미끄럽습니다.》

장문걸이 조바심이 나서 걱정스럽게 말씀 드렸다.

《괜찮소, 토지정리전투장에 왔다가 논두렁도 밟아 보지 않고 갈수야 없지.》

그이께서는 미끄러운 논두렁길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다가 밭자국자리가 난 논두렁을 찬찬히 살펴 보시며 《논두렁을 세멘트미장하듯 매질을 했구만. 보긴 좋은데 이게 물에서 견딜수 있을가?》 하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논두렁다짐을 퐁퐁 잘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새로 정리한 논에는 논두렁이 든든해야 하오. 만약 물을 논에 댔다가 논두렁이 터지는 날에는 큰 일이 아니요? 이 넓은 벌판에서 없어 진 논두렁을 어디 가서 찾겠소. 허허허...》

그이께서는 유쾌한듯 껄껄 웃으시였다. 일군들도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모두 즐겁게 따라 웃었다.

《논두렁다짐을 잘해야 하오. 토지정리는 보기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부침땅을 더 찾아 알곡생산을 늘이자고 하는것이요.》

그사이에도 눈은 소리없이 내리였다. 토지정리전투장을 돌아 보시는 그이의 모자와 솜옷어깨우에 눈이 하얗게 쌓이였다.

장문걸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어 한걸음 나서며 조용히 말씀 드리였다.

《장군님,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젠 저 정각에 가셨으면 합니다.》

《괜찮소. 농민들과 군인들이 눈을 맞으며 일하는데 내가 눈을 피하면 되겠소.》 라고 하시며 눈 내리는 들과 마을을 둘러 보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한곳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길옆의 약간 둔덕진 곳에 날아 갈듯이 추녀가 들린 건물이 덩실하게 솟아 있었던것이다. 그 주변에는 수삼나무가 촘촘히 심어 져 있었다.

《저건 뭐요?》

장문걸은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송구스러운 어조로 말씀 드렸다.

《저... 장군님을 모시려고... 우리 농민들이...》
장문걸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떠듬거렸다.

《나를 위해 저 집을 지었던 말이요? 동무들도 참... 농민들이 눈을 맞으면 나도 눈을 맞는게 옳지, 제왕처럼 저 루각에 올라 가면 난 뭐가 되오?》

장군님의 음성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장문걸은 얼굴이 꺼렇게 질리었다. 잘하느라고 한 일이 도리어 장군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던 장문걸이었다.

《동무가 저 집을 지으라고 했소?》

《저... 그건...》

《당장 저 건물을 헐어 버리시오.》

장군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장문걸의 고막을 찡하고 울렸다. 장문걸은 몸을 흠칫 떨었다.

(전망대를 헐어 버리다니?...)

줄지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 졌다. 그는 비로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차 있는 곳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께서 떠나시려는것이였다. 장문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장군님께로 급히 다가서다가 그만 그 자리에 얼어 붙은듯 서버렸다. 눈물이 북받쳤다. 어린애처럼 장군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어떻게 오신 걸음이 길래 기쁨을 드릴 대신 이렇게 노여워 하시는 장군님을 그냥 바래운단 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에 타시려다 말고 웬일인지 한손으로 차문을 잡으신채 장문걸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장문걸은 급히 그이께로 다가갔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누그러진 어조로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그렇게 떠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 온 장문걸은 전망대를 세운 군들의 책임일군들을 찾아 그것을 즉시 헐어 버리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저녁 장문걸은 전화로 먼저 벽성군당에 서원벌에 세운 전망대를 헐어 버렸는가고 물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우물쭈물하더니 농장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때문에 아직 헐지 못했다고 했다. 사정은 다른 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되오. 장군님께서 일단 말씀이 계신 이상 오늘 밤중으로 무조건 헐도록 하시오.》

장문걸은 수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가 직접 서원리로 떠났다. 목적지가 가까와 오자 장문걸은 왜 그런지 까닭 모를 불안감이 심신을 짊 채웠다. 그것은 서원땅의 옛 작업반장이였던 박로인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제인가 장문걸이 서원리에 들렀을 때였다. 머리가 허연 로인과 종이말이를 든 처녀반장이 그를 찾아 왔다.

《한가지 말씀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장문걸은 몸집이 든든하고 정력이 있어 보이는 로인을 쳐다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로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기는 안달수영웅관리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리소제지작업반장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반장일을 농업대학을 졸업한 딸에게 넘겨 주었다는것이였다. 작업반장이 할 일을 딸에게 고스란히 넘겨 주었지만 한가지만은 가슴에 맺혀 그냥 있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원리에 오시며 피약별이 내려쬐이는 논머리에 앉아 안달수관리위원장과 말씀하시던 모습이였다. 그날 반장도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석을 깔아 드리지는 못할망정 해빛 한점 가리울만 한 집 한채 말머리에 세워 놓지 못한 자기들을 얼마나 후회했던지 모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로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사일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시며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군 하시었는데 오늘은 장군님께서 또 그런 걸음을 걸고 계시는것이였다.

이제는 이 세상에 한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의 어버이이신데 또 이렇게 눈비를 맞으시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전망대를 세워 놓고 우리 장군님 찾아 오시면 여기에 모시여 뜨거운 해별도 가리고 사나운 비바람과 눈보라도 막아 드리는데 것이 어떤가 해서 마을사람들과 의논하고 찾아왔다는것이였다.

이야기를 하는 늙은이의 움푹 들어 간 눈에서는 진정에서 샘 솟는 눈물이 번쩍었다. 진중한 얼굴로 로인의 말을 듣고 있던 장문걸은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그의 마음에 저으기 감동되였다.

그는 처녀반장이 가지고 온 전망대도면을 펼쳐 보았다. 장문걸이 관심을 돌리자 처녀반장은 개인날 아침노을처럼 밝은 미소를 함뱍 피우며 신이 나서 도면을 설명했다. 처녀반장의 설명을 듣고 난 장문걸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로인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의 주름살 갈피마다에는 자기의 소원을 성사시켜 달라는 무언의 애원이 숨배여 있었다.

《로인님,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군요. 좋습니다. 우리 전망대를 멋있게 세웁시다.》

장문걸은 로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저 길가 언덕이 안성맞춤한 곳이지요.》

예순살이 훨씬 넘은 로인은 굵은 피줄이 돈은 억센 손아귀로 장문걸의 두손을 덥석 잡고 기쁨에 겨워 흔들었다. 곁에 있던 처녀반장의 두뺨에

도 홍조가 피어 났다. 이렇게 되어 서원벌에는 물론 도안의 여러 곳에 장군님을 모실 전망대가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장군님을 그처럼 크게 노엽힐 줄이야...

그래서 당장 전망대를 헐라고 했는데 인민들은 또... 서원의 그 늙은이는 얼마나 서운해 할까...

밤은 고요하였다. 다만 저 멀리 황포바다기슭에서 토지정리를 하는 불도젤의 동음소리가 간단 없이 들려 올뿐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밤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 주는 듯 했다.

장문결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전망대가 있는 언덕길로 걸음을 옮겼다. 막상 전망대를 헐자고 하니 그의 마음 역시 편안치 않았다. 이 집을 지으며 그리고 기쁨에 넘쳐 있던 농장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얼마나 많은 정성과 땀을 바친 그들이었는가. 장문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들판을 바라보았다. 쪼갬달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들판은 그것없이도 환했다. 온 들판에 눈이 덮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길을 들어 큰 길가를 바라보았다. 수삼나무가로서들이 묵화처럼 런던히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장문결에게 무슨 질책이라도 하는 듯 했다. 장문결은 피로운 한숨을 내뿜으며 발길을 떼었다. 언덕 위에서 삽질소리와 함께 무슨 말인가 조용조용 수선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문득 누군가의 노발대발한 목소리가 터졌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철을 가르치려 들지 말게. 똑똑히 알아 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들이야말로 주전머리 없는 사람들이야!》

박로인의 목소리였다. 장문결은 불시에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을 느꼈다.

《부위원장은 귀찮도 몰라. 말로는 충성심 충성심하면서... 이 집을 허물면 우린 어쩌는가 말일세...》

로인은 또다시 막무가내로 고향을 질렀다. 장문결은 사연을 알아 차렸다. 로인이 전망대를 헐지 못하게 하는 모양이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모두들 손뼉이 풀려서인지 그냥 앉아 담배질만 하고 있었다. 장문결은 그들쪽으로 다가갔다.

《모두들 나오셨군요.》

그제서야 로인이 장문결의 앞으로 어정어정 다가왔다.

《마침 잘 왔수다.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 이 집을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로인은 장문결의 얼굴을 쳐다보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문결은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로인에게 권하고 자기도 불을 붙여 물었다. 그러

나 로인은 상대방에게서 기어이 확답을 받을 심산으로인지 담배불을 붙이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장문결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두 그렇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란 말씀이지요?》

로인은 기가 꺾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설마 장문결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장문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른은 장군님께 우리 농민들의 소원을 말씀 드리지 않았소?》

로인은 예갈지 않게 《어른》이라 부르며 장문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장문결은 딱했다. 로인을 어떻게 리해시켜야 할지 궁리가 나지 않았다.

《로인님,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전망대를 세우느라 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한포기의 곡식이라도 더 심는 게 자신께서 더 좋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이 눈비를 맞을 때 자신께서도 함께 맞아야 좋다고...》

로인님, 어찌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무조건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그럼 우린...》

로인은 억이 막힌 듯 더 말을 못했다. 장문결은 더 그를 마주할 수가 없어 검푸른 하늘가에 시선을 보냈다.

그날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돌아 온 장문결은 난감하여 집에도 들어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 애꿎은 담배만 태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원래 퇴근전 이런 밤시간을 소중히 여기곤 했다. 이 시간에 사색을 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펴들고 도안의 당조직들과 개별적인 일군들이 제기한 문제를 다시 상기하고 래일의 사업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이 깊은 밤에 무슨 전화일가 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순간 그는 와들 놀라 벌떡 일어 섰다.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 오시는 전화였던 것이다.

《장문결동무요? 왜 아직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소?》

그이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피곤이 어려 있는 듯 했다.

《장군님, 이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장문결은 목이 메어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내 걱정은 마오. 그런데 문결동무, 토지정리돌격대원들의 설명절준비는 어떻게 됐소. 뭐 애로되는게 없소?》

《예?》

장문결은 무엇인가 세차게 뇌리를 치는것을 느끼며 몸을 흠칫했다.

(설명절이라니.)

순간 장문결은 토지정리와 정각문제때문에 신경을 쓰느라 이제 보름만 있으면 설날이 된다는것을 생각도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장군님... 사실 설명절문제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었습니다. 이제 알아 보고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주오. 예로부터 설날이면 친척친우들이 모여 앉아 옷사람들에게 세배술도 올리고 인사도 받으며 명절을 즐기곤 했는데... 토지정리전투에 참가한 동무들모두를 집에 보내어 설을 맞게 하시다. 명절음식감이란 잘 준비시켜 보내야겠소. 그동안 집을 떠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쇠야지.》

장문결은 목이 꺾 메여 오름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겨우 《알았습니다.》 하는 대답만 드렸다.

장군님께서 돌격대원들이 들고 갈 술과 고기는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다음 애로되는것들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었다.

장문결은 돌격대원들을 잠시 가늠해 보다가 속내의 같은 생활필수품이 좀 모자랄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씀 드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헉헉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런걸 제때에 제기해야지. 똥단지 같은 전망대나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문결동무, 그 정각인가 전망대인가 하는건 없애 버렸소?》

장문결은 가슴이 섬찔했다. 아직 정각들을 없앴다는 보고가 들어 오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장문결은 할수 없이 서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고백했다.

어쩐지 다 아뢰이고 나니 가슴이 좀 후련해졌다.

장군님께서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장문결은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성의가 정 그렇다면... 하고 양보하실것만 같은 예감까지 들었다. 그 한초 한초... 그러나 수화기에서 울려 나온 장군님의 말씀은 매우 섭섭한 어조였다.

《그러니 아직도 없애지 못했던 말이구만. 동무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것 같소.》

장문결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방안엔 숨 막힐듯 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수화기에서는 장군님의 질책의 음성이

울려 나왔다.

《장문결이, 동문 자격이 없소. 동무문제 다시 보겠소. 당장 전망대들 폭파하시오. 흔적도 없이! 알았소?》

장문결의 거뭇게 질린 얼굴에서 굵은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그리하여 서원벌의 전망대는 물론 도안의 여러 곳에 세워 놓았던 전망대는 그날 밤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승용차는 어느덧 연안벌에 들어 섰다. 이른 아침인데도 농장원들이 벌써 들판에 나와 거름을 운반하고 있었다. 포전마다에 듬뿍듬뿍 쌓여 있는 거름무지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뻐지지 못했다.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하나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며 뛰어 다녔지만 왜 이렇게 그의 뜻을 따르지 못할가. 능력부족인가? 분명 그런것 같았다.

그는 흥분에 단 가슴을 녹잡히느라고 차유리를 조금 낮추었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였다.

하늘은 재빛으로 흐려 있고 들에는 흰눈이 하얗게 덮여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최근년간에 처음인것 같았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데...

차가 방금 읍거리를 지나 정촌고개를 넘어 섰을 때였다. 저 앞쪽에서 까만 승용차들이 줄줄이 달려 오는것이 보였다. 장문결은 가슴이 후드득 뛰었다.

《차를 세우오.》

장문결은 운전사에게 급히 소리쳤다. 그리고 차가 길옆에 멎기 바쁘게 그는 차문을 열고 얼른 밖으로 뛰어 나왔다. 앞에서 달려 오던 차들이 장문결이 있는데서 멎걸음 떨어 저 소리없이 멎어섰다.

이윽고 앞선 차에서 문이 열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천천히 내리시었다. 순간 온 누리에 눈 부신 광채가 빛나고 세상만물이 살아 움직이는것 같았다. 장문결은 누를길 없는 감격이 가슴속에서 복받쳐 올라 《장군님!》 하며 그이께로 달려 갔다.

《허허... 장문결동무구만. 내 어쩐지 동무를 들판에서 만날것만 같았소. 그새 잘 있었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장군님께서 장문결을 들에서 만난것이 무척 반가우신듯 들판이 들썩하게 웃으시면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그의 손을 잡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봉천군에서 새 니탄발을 찾았다고 해서 갔다 오던 길입니다.》

장문결은 기쁨에 넘쳐 말씀 드렸다.

《그렇소? 니탄매장량이 얼마나 되오?》

장군님께서도 호기심이 동하신듯 했다.
 《수천톤 잘될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만.》
 《농장원들이 자급비료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환성을 올립니다.》
 주눅이 들어 있던 장문걸은 절로 신명이 났다.
 《그렇테지. 뭐니뭐니해도 토지정리한 눈에는 자급비료가 제일이니까. 문걸동무, 토지정리한 연백벌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소.》
 그이께서는 사뭇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앞내벌을 둘러 보시었다.
 《장군님, 저 구름봉으로 올라 가십시오. 거기서는 연안벌이 한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또 문걸동무가 자랑하는 전망대가 있지 않소?》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장문걸을 돌아 보시었다. 장문걸은 샅시에 얼굴이 붉어 졌다.
 《저, 이젠... 모두...》
 장군님께서 《벌써 그랬어야지.》 하며 껄껄 웃으시었다.
 《토지정리돌격대원들은 설명절을 쇠러 갔소?》
 《장군님말씀대로 준비를 시켜 집으로 보냈습니다.》
 《잘했소. 그럼 논밭들을 돌아 봅시다.》
 장군님께서 장문걸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앞에서 안내하라고 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토지정리한 논두렁을 거쳐 일군들과 함께 길옆의 나지막한 구름봉에 오르시었다. 드넓은 대지위에 감돌던 젓빛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러자 눈앞에는 토지정리를 끝낸 일망무제한 벌이 펼쳐 졌다.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규격지게 짜놓은 논두렁과 물길, 포전길이 대규모의 포전들을 구획 지으며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다.
 《멋 있구만. 사회주의조선의 땅답소.》
 장군님께서 손채양을 하시고 드넓은 전야를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자 그 웃음소리에 하늘이 조화를 부린듯 채빛구름장이 갈라지며 찬란한 해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새무리들이 깃을 치며 이쪽으로 날아 온다. 금빛 찬란한 아침노을은 들만에 깔린 백설을 물들이며 아름답게 타올랐다. 그것은 참으로 황홀한 순간이었다.
 장군님께서 온몸에 해발을 함뱍 받으시며 들판을 부감하시었다.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 진 들판의 곳곳에서 흰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올랐다.
 장군님께서 눈앞에 펼쳐 진 정경을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시었다. 장문걸은 그동안의 일을 조리 있게 말씀 드렸다.
 《좋아, 토지정리를 시원하게 잘했소.》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또다시 장문

걸을 치하하시고는 관개구조물공사를 비롯하여 토지정리를 만년대계가 되도록 질적으로 하여 후대들에게 넘겨 주자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만족하신 눈길로 둘러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 동무들의 요구대로 화학비료도 충분히 보장해 주고 마력수가 높은 트랙터랑 모내는기계를 비롯해서 박막들도 다 풀어 줍시다. 그러니 동무네는 귀중한 땅을 비우지 말고 알곡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2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하오. 먹는게 흔해야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소.》
 장문걸은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 눈부리가 뜨거워 지고 마음이 고무풍선처럼 똥똥 뻗었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장군님께 감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 밝으신 안색으로 천천히 사방을 둘러 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어느 한 야산밑 양지바른 곳에 새로 건설된 마을에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추너를 높이 세운 농촌살림집창문들이 아침해빛에 눈 부신 빛을 뿌리었다. 그야말로 아담한 문화농촌마을이었다. 그이의 안색에 부드러운 미소가 함뱍 피어 올랐다.
 《참 살림집을 아담하게 지었군.》
 그이께서는 혼자말처럼 조용히 뇌이시었다.
 《지방에 흔한 천연스레트로 지붕을 이으니 얼마나 좋소.》
 장군님께서 사뭇 경탄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런데 저 마을의 물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소?》
 장군님께서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집집마다 쫄장을 박았습니다.》
 곁에 있던 장문걸이 얼른 말씀 올렸다.
 《쫄장을 박았으면 잘했구만. 물맛이 어먼지?》
 장문걸은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장문걸이 새로 지은 살림집을 찾아 가서 집집마다 쫄장을 설치한것을 보았지만 물맛까지는 보지 못했던것이다.
 《생활에선 물이 기본이요. 물맛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둘레에 파수나무를 심지 못했구만.》
 《봄에 가서 심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군당책임비서가 말씀 드렸다.
 《어떤 나무를 심겠소?》
 장군님께서 여전히 마을쪽에 시선을 박으신채 재차 물으시었다. 역시 군당책임비서가 감나무를 심겠다고 말씀 드렸다.
 《감나무도 좋지. 그런데 말이요. 내 어렸을 때 만경대에 가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손목을 잡고

뒤뜰안에 데리고 가 앵두를 따주시군 했소. 앞마당에서는 살구나 추리를 따주구…》

장군님께서서는 추억이 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감회 깊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우리 아이들이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과일을 따먹을수 있게 살구, 앵두, 추리, 배, 감나무들을 집주변에 많이 심게 합니다.》

장문걸은 절로 가슴이 후더워 올랐다. 어쩌면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 이처럼 다심하실가. 그런데 나는… 생각할수록 회오와 자책이 깊었다.

《정말 발길이 떨어 지지 않는 마을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 가지만 내 언제든지 한번 꼭 저 마을에 가보겠소. 논밭에 2모작 밀보리가 푸르르고 감자꽃이 필 때…》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이 허락치 않는것을 사뭇 아쉬워 하시며 천천히 구름봉을 내리시었다.

어느덧 차에 이르신 장군님께서 손목시계를 열פת 보시더니 유쾌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난 사실 장문걸동무를 처벌하자고 왔는데…와보니 일은 많이 했거든. 어쨌든 내 차에 타오. 내 동무한테 꼭 할 말이 있소.》

장문걸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장군님의 차에 타다니… 그는 어안이 빙빙하여 서 있다가 장군님께서 손짓을 하시는 바람에 황급히 차에 올랐다.

그이의 곁에 앉은 장문걸은 모든것이 꿈 같기만 했다. 심장은 세차게 고퍼치고 온몸은 이름할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실가 하는 의문만은 금할수 없었다.

장문걸은 조심히 그이의 모습을 우려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량 없는 애정이 어린 눈길로 흘러 가는 전야를 바라보고 계시었다. 저 멀리 거름을 가득 실은 트랙터가 통탄거리며 포전길로 달리고 뒤이어 달구지의 행렬이 따라 섰다. 등에 거름짐을 지고 들판을 뛰여 다니는 농장원들, 펄펄 날리는 붉은 기발들… 토지정리를 끝낸 포전들에서는 벌써 농사차비로 끓는다. 그 모든 정경을 바라보시던 그이의 안광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여 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시여 곁에 앉은 장문걸을 대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별에 검실검실하게 탄 그의 얼굴을 보시며 토지정리때문에 얼마나 뛰여 다녔으면 저렇게 되었으랴 하는 생각에 불쑥련민의 정이 솟구치시었다.

《최근에 황해남도에서 일을 많이 했소. 그 동안 문걸동무가 수고했소.》

아, 그럼 이 치하의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장문걸은 목이 껍 메여 왔다. 장군님의 치하를 받기에는 너무도 한 일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군님, 저는 정말 면목이…》

장문걸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목이 메여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요, 내 다 아오.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도소재지를 꾸린것이랑, 도처에 양어장을 건설하고 농촌살림집을 짓고 유원지를 꾸리고 소목장, 메기공장… 도로도 전국적으로 제일 잘 닦았지. 참 황해남도가 때뵈이를 했소. 황해남도사람들이 자기네가 말하던것처럼 옛날의 그 <물농포>가 아니란 말이요. 난 이제는 황해남도에 대해 마음을 놓소.》

장군님의 어조는 사뭇 감개무량했다. 장문걸은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동안에 있었던 가지가지 시련과 고달픔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 모든 피로움과 역경을 뚫고 나가지 않았던가. 그이의 격려를 받은 장문걸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감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영광이 장군님에 의해서 마련된것임을 장문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얼마나 어려운 시련의 길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 오셨던가.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일군들과 인민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나라앞에 드리운 어려운 난국을 이겨 내고 강성부흥의 돌파구가 열린것이다. 그러시고도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것이였다. 장문걸은 그이의 고결한 은정을 또다시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장군님, 사실은 우리보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군인들과 토지정리돌격대원들이 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토지정리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장문걸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시고 활달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문걸동무, 그들이 흘린 땀이 빛이 나도록 하여야 하오. 일을 더 잘하시오. 내 앞으로 동무네가 해놓는 일을 다 봐주겠소.》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문걸은 기쁨에 넘쳐 큰소리로 말씀 드렸다.

《히히히… 사람두 참!》

승용차는 어느덧 도소재지입구에 들어 섰다.

그이께서는 차머리를 서해지구방향으로 돌리도록 하시었다. 인민군구분대를 방문하실 예정이였다.

《문걸동무, 동무의 아버지도 농사군이였는지?》

장군님께서서는 얼마후에 뜻밖에도 아버지이야기를 꺼내시었다.

《그렇습니다.》

장문걸은 고개를 들고 정중히 대답을 드렸다.

《얼마나 좋소. 농민의 아들이 오늘은 한개 도루를 책임진 일군이 됐으니… 하긴 나의 증조할아버지도 농민이었으니 그러고 보면 우리 다 같은 농민의 자손들이구만. 허허허…》

장군님께서서는 더없이 즐거우신듯 또다시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그러니 우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요. 땅을 다루는 사람들속에서 태어났으니 마땅히 땅에 발 붙여야 하는거요. 그런데 동문 나를 그 땅에서 발을 떼게 하려 했거든.》

《?!…》

순간 장문걸은 속이 뜨끔했다. 장군님께서 전망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었다. 장문걸은 얼굴이 확 달아 올라 몸둘바를 몰라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내려 가지 않는 모양이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셨소. 그런데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내가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아무리 뛰어난 천품을 타고 났다고 해도 인민을 내려다 보면 그는 곧 파멸이요. 문결동무, 내가 제일 경계하는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동무에게 모질게 말한것이요. 어제날도 그랬지만 나는 앞으로도 철두철미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인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내 조국을 부강하게 건설하자는거요. 문결동무, 우리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맙시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근본을…》

《!…》

장군님의 마디마디 말씀이 장문걸의 가슴을 광

광 두드렸다. 장문걸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천천히 문질렀다. 어찌된 일인지 자꾸 눈물이 솟구쳤다. 터져 오르는 오열을 안간힘을 쓰며 참았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없이 인자한 표정을 지으시고 저 멀리 련련히 흘러 가는 산발에 시선을 보내고 계시었다.

아, 한없이 겸허하신 우리의 아버지… 인민들과는 단 한치의 간격도 허용치 않으시려는 그 단호한 의지…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더더욱 우리 장군님을 그토록 믿고 따르는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장문걸의 귀전에는 전망대를 폭파하던 날 서원리의 그 로인이 눈물을 흘리며 했었던 말이 광광 울려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선 이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똑같이 눈비를 맞으시겠다구 글썽… 아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이 또 어디에 있겠소. 여보게들, 우리 일을 더 잘하자구. 일 잘하는것만이 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게 아니겠나.》

그 전망대를 폭파하는 날 울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날부터 토지정리전투장은 물론 도안의 모든 일터에서 더 큰 혁신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가지가지 가슴 뜨거운 일들도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이 순간 장문걸에게는 전망대를 폭파하던 그 소리가 단순한 폭음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땅에 또다시 수 놓아 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노래이며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와 발악적인 책동을 짓부시는 일심단결의 위력한 포성, 승리의 위대한 포성이었다.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아침해빛에 차창을 번쩍이며 고르롭게 닦아 놓은 도로우로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명언해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 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작가의 현실체험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마를줄 모르는 형상의 원천으로 되며 창작적재능을 꽃 피울수 있는 풍부한 생활적바탕으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예술이 형상하여야 할 인간과 그의 생활은 머리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실속에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속에 있다. 작가가 현실속에 들어 가 생활을 체

험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체득할수 없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려 낼수도 없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안온한 창작실에서는 배울수도 없고 익힐수도 없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주며 작가로 하여금 커다란 창작적충동을 받고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내 가슴에 새겨 진 20 여일

오필천

내 가슴에 새겨 진 20여일은
그리움속에 날이 밝고
그리움속에 날이 저물던
그 하루가 모인 그리움의 산

내 가슴에 새겨 진 20여일은
북두칠성 바라보며
북쪽나라 먼 하늘가
장군님께로 마음 달려 가던
그 하루가 모인 그리움의 바다

로씨야땅에 성스런 자욱을 새기시고
모스크바 크레믈리궁전에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장군님 뵈오며 감격에 목 메이던
그날은 언제

물결치는 불가강 네바강을 건느실 때
한몸 그대로 교각이 되어
장군님 안녕을 빌고 빌던

그날은 또 언제

못 잊을 그날
력사의 그 하루
그 하루 그 날들이 모여
내 가슴에 새겨 진 20여일

아, 내 가슴에 새겨 진 20여일은
고난의 찬눈속에 울던 우리 인민을
락원의 언덕에 세워 주시고
오늘은 통일된 조국
강성대국에서 살게 해주시려
혁명의 수만리길 걸으시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갈 그 마음으로 불 타는
충성의 2천일 2만일

세계정치의 대원로
탁월한 수령이신 장군님을
천만년 노래할 그 신념 가슴에 품는
맹세의 2천일 2만일!

전설의 땅우에 달이 내렸네

최광조

별이 돋은 밤하늘을
누벼 가던 둥근달
광포라 새로 솟은
땅우에 내렸네
일망무제 벼바다에
홍청이며 떠실렸네

쭉쭉 아지치는 벼포기를 어루쓸며
흐르는 달빛은 구슬인가 진주인가
잎새마다 대롱대롱 옥그네를 뒤편서
다치면 와그르르 금나락이 쏟아 질듯

내 마음 휘젓는건 벼바다나 달빛이나
흐릿한 광포물에 내리던 달은

이 마음에 쪼개지며 흩어 지더니
물을 딛고 솟아 오른 벼바다에 실린 달은
추억의 금선을 줄줄이 텅겨 주누나

고난의 그 나날에 물바다와 싸울 때
흠집지고 달리는 내 앞길을 밝힌 달
철령의 진달래를 달빛에 실어 실어
내 마음에 붉게붉게 피워 주던 달

아 물우에 솟아오른 새땅이 좋아
고난을 딛고 솟은 승리가 좋아
춤을 추는 벼바다에 이리딩굴 저리딩굴
온 나라 기쁨 안고 둥근달 둥둥-
밤 깊도록 못 떠나 내 마음에 둥둥-

세기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태양칭송의 메아리

김일수

태양의 열풍으로 뜨거운 격찬의 열정

21세기 태양송가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열망으로 불 타는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런방방문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시적충격과 흥분, 열정의 분화구로 되었다.

그것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를 격조높이 노래해 온 선군시문학에 세계력사의 한 복판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천하제일명장의 위인상에 대한 새로운 형상세계를 펼쳐 주고 온 누리를 향해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의 노래를 터칠수 있는 풍부한 정서적체험세계에 이 끌어 준 사변이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 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찬가를 엮는 시인이라는 사명감은 우리 시인들이 틀어 켜 선군의 붓대에 더욱 박차를 주었다.

그가 이 땅의 시인이거든 태양의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우리 민족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머나먼 5만여리의 장정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어찌 무한한 걱정과 충동의 붓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신 력사의 순간이 열도 높은 시적충격속에 정서적화폭으로 새겨 졌고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레닌묘를 찾으심으로써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의리심을 보여 주신 신념의 발자욱소리가 강렬한 주정으로 메아리쳤다.

어찌 그뿐이라. 가시는 길 수만리, 오시는 길 수만리를 따르며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숨결, 잠 못드는 조국의 밤을 그대로 엮어나 그 또한 얼마나 뜨거운 그리움의 시가 되였는가...

이 모든 시가들에 일관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적공지, 민족적대환회의 분출이며 21세기의 태양송배열로 더 강렬해 지는 인민의 그리움의 감정이다. 이러한 사상감정이 그대로 시상이 되고 시줄마다에 굽이쳐 흘러 21세기 태양칭송의 서정이 창조되었다.

조선이 났고 세계가 들썩거리게 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런방에 대한 공식방문, 이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 생전에 확신에 넘쳐 예언하신 대로 김정일장군님은 과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구나 하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심장을 쿵쿵- 울려 주고 있다.

21세기 태양칭송의 서정은 이렇듯 격동된 심장에 가득찬 환희와 긍지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서정시 《태양의 길》(박호범), 《자주의 궤도였다》(최영화), 《한순간》(주광일), 《선언》(박현철), 《위대한 자욱》(신문경)은 바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장군, 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환희의 분출이다. 동시에 이 시들은 새 세기 세계의 한 복판에 거연히 나서신 백두령장의 태양의 모습으로 더욱 세계에 빛발치는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광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확인으로 된다.

시 《태양의 길》에서는 《위대한 인간이신/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대외활동의 로정을 《해빛으로 가득 찬/해빛으로 찬란한/태양의 길》이라고 확신에 넘쳐 노래한다.

태양의 길이라는 시적주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인류의 한결 같은 경모의 감정에 기초한 시적일반화이며 21세기 시대감정의 정화이다.

력사에 불멸할 자욱자욱으로 선군의 기치높이 세계에 자주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매혹과 숭배의 감정, 그이시야말로 21세기의 위대한 향도자이시라는 절실한 체험이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격찬의 열정을 낳게 한것이다.

그렇다. 21세기 태양찬가는 세계가 한결같이 태양으로 우러르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체험과 칭송의 열정의 유기적통일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품모와 국제적권위를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의 위대성을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되던 력사적순간에 대한 뜨거운 격정에 담아 노래한 시 《한순간》.

태양의 빛발은 한순간만 보아도 눈 부시고 강렬한 법이다.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강한 세기의 빛발, 태양위인의 광채가 지구를 뒤흔든 그 한순간, 《우리 장군님/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신 력사의 그 순간》을 체험하는 흥분이 어찌 걱정으로 터쳐 지지 않으랴.

순간 **김정일** 충격으로
지구가 진감하였고
새 세기의 밝은 빛
그이 손길 따라 비쳐 왔거니

《순간 **김정일** 충격으로/지구가 진감하였》다는 격조 높은 주정은 21세기의 태양 우리 장군님께서 일으키신 태양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 오른 시인의 흥분과 양양된 체험, 시적충격으로 느끼 모든것이 집약된 표현인것이다.

전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의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 하는것을 뽀성마냥 세계에 알린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사변적의미를 그 이상 어떻게 압축되고 박력 있는 서정으로 터칠수 있을것인가.

시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오만과 횡포를 자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휘잡아 쓸어 버리시며 한순간에 《영원한 자주세계 태양의 세계를/ 지구우에 펼》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무한한 칭송과 격찬의 열정을 격동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시 《선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찾으신 력사적사실을 노래에 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용히 붉은 광장 밟》으셨어도 그 울림이 《쿵, 쿵 하늘땅을 울리였》다는 음향적대조와 《인류의 마음들이/ **김정일** 동지 우러러 정렬했다》는 의미 깊은 서정적형상으로 시작되는 시는 숭고한 도덕의리와 사회주의 필승의 신념을 지니신 장군님의 위인상은 부각하는 태양칭송의 서정을 힘 있게 터치고 있다.

앞세우신 화환은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는가
드러운 땀기는 길지 않았어도
지구를 다 휘감은
숭고한 도덕의리여

오, 그이께선 한마디 말씀 없으셨어도
세계가 들었다
정의의 위업의 승리의 선언을

사회주의승리의 기발높이 세기의 분수령을 넘

어선 걸출한 수령으로서 우리 장군님 높이 드신 붉은기의 빛발을 상징하듯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는》 화환이라든가 《지구를 다 휘감은/ 숭고한 도덕의리》와 같은 형상적이며 간결하게 집약된 표현은 쉽사리 찾아 낼수 있는것이 아니다.

세기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절감하는 시인의 숭배와 흠모의 열정으로 하여 끝없이 깊어 지는 정서적체험과 사색의 힘에 의하여 이렇듯 표상적이며 생동한 언어표현이 얻어지게 된것이다.

결구에서 보여 주는바와 같이 무게 있는 주정 토로로 시대의 진리를 힘 있게 확증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시는 커다란 시적감명과 여운을 남긴다.

시 《한순간》, 《선언》에서 태양칭송의 서정이 구체적인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면 시 《자주의 궤도였다》, 《위대한 자욱》에서는 절세의 위인의 대외활동업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안고 형상하는데로 흐르고 있다.

시 《자주의 궤도였다》, 《위대한 자욱》을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체험이 선군의 기치우에 빛나는 백두령장의 위대함을 부각하는 견지에서 보다 심화되고 있는것이다.

이 땅의 눈비 다 맞으며 가시던
그이의 전선길 오늘은 대륙에 이어 졌는가
그 자욱 소중히 안아
세기의 절정우에 새기고 싶은 이 마음

이 땅의 찬눈, 찬비를 다 맞으시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지켜 헤치시던 최전연길을 이어 오늘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력사적인 대장정을 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더듬는 정서적체험이 시 《위대한 자욱》의 한구절에도 이렇게 력력히 비껴있다.

이러한 체험의 바탕에는 선군령도업적이 가지는 전 세계사적의의에 대한 폭 넓은 사색이 깃들 어있으며 그것은 《그이 아니면 누구도 지킬수 없는/세계의 자주위업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운명선상에서의 심각한 체험과 결부되어 더욱 절절한 시형상으로 심화되고 있는것이다.

인류가 《장군의 자욱자욱》을 《하늘도 못 미칠 높이에》 우러러 받든다는 걱정외 토로가 그토록 뜨겁게 안겨 오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군정치로 더욱 빛나는 21세기 태양칭송의 사상감정은 시 《자주의 궤도였다》에도 풍만한 서정으로 무르익고 있다.

머나먼 5만여리의 장정을 《우리 장군님 백두산 바람 일구신》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은 《세계를 다녀 오신 력사의 궤도/ 새 세기 밝은 길로 인류를 이끄는/ 자주의 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형상적의의는 세계의 한 복판에 제국주의광풍을 짓누르는 백두산바람, 선군자주의 폭풍을 일구어 나가시는 21세기 태양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는데 있다.

21세기 태양칭송의 서정으로 충만된 이 시들에 흐르고 있는 사상감정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정치원로이시라는 드팀 없는 확신이며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을 받들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의 감정이다.

21세기 찬가가 다름아닌 **김정일**장군찬가로 되는 근거가 여기서 밝혀 지며 태양의 열풍에 이끌려 온났을 말긴 심장의 노래가 것처럼 열렬한 칭송과 격찬의 노래로 되고 민족적공지로 가득 찬 환희의 노래로 되는 까닭이 이로써 실증된다.

그리움의 정서, 태양송배의 세계

가까이 계셔도 그리움에 못 견디던 인민의 마음 《우리 아버지 먼곳에 가계시》니 더욱 그리워 뜨겁게 달아 오른 그리움의 시가 여기에 있다.

우리 아버지 먼 곳에 가계시면
하늘도 따라 가는가
때없이 바라본 먼 하늘가
자애론 장군님미소 가득 찬
먼 하늘가

-시 《먼 하늘가》에서-

쌓이고 쌓인 그리움의 걱정이 마침내 《우리 장군님 오신 날》 환의의 활화산이 되어 터져 올라 21세기의 태양이 빛나는 하늘가에 축하의 꽃보라로 뿌려진 환희의 노래가 여기에 있다.

장군님 오신 이날은
그리움의 하늘에서
해가 솟은 날
그리움의 땅위에서
해맞이하는 날

-시 《우리 장군님 오신 날》에서-

몇구절만 읽어 봐도 목 메이는 그리움의 진정

이 사무치게 느껴 지는 시 《먼 하늘가》(오영재), 《해빛에 실어 별빛에 실어》(장원준), 《기다림 속에 그리움속에》(김석주), 《우리 장군님 오신 날》(류동호)은 바로 8월의 폭양과 더불어 이 땅에 뜨겁게 굽이치던 그리움의 대하에서 퍼올린 한줄기 흐름이며 그 그리움의 폭발이 세기의 하늘가에 터쳐 올린 축포의 눈 부신 빛발들이다.

이 시들에 흐르고 있는 기본감정정서는 그리움이며 그리움의 정서속에서 주어 지는 형상적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한 없는 그리움 속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라는것이다.

온 세계에 펼쳐 지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매혹과 숭배로 하여 더 강렬해 지는 그리움, 이러한 그리움의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형상하고 있는 여기에 이 시들이 가지는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의 비결이 있다.

한편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외국방문기간 더욱 높은 경지에서 남김없이 발휘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그리움으로 거세차게 끓어 번진 조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생동한 예술적반영으로 된다.

그리움의 정서적바탕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과 격찬의 열정을 부각하는것은 21세기 태양찬가가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시 《먼 하늘가》에서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들게 되는 사연을 밝히는 시적형상은 위대성에 대한 체험과 밀착되어 있으며 그로 하여 그리움의 정서는 칭송과 격찬의 사상감정을 고조시키는 형상적전제로 되고 있다.

위대함이, 참으로 그 위대함이
우리의 행복되고 자랑되고 영광이 되어
눈시울 적시며 바라본 먼 하늘가
인류가 아낌없이 칭송하는
그이가 다름아닌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그것으로 진정할 길 없는
이 가슴의 울렁거림...

위인중의 위인을 모신 행복감으로 더 절절해 지고 장군님의 식솔된 공지와 자랑으로 설레이며 더 커만 가는 그리움, 이 형상세계는 《주체의 붉은 노을 물들여진 새 세기의 하늘》을 펼쳐 가시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커다란 정서적힘을 날고 있다.

이것은 그리움의 정서가 21세기 태양송배와 칭송의 열정을 더 세차게 터쳐 올리는 원천이며 형

상의 정서적깊이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천만식솔 하루를 백년같이 그리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그리움,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념원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 《해빛에 실어 별빛에 실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시의 감화력, 건인력은 바로 그리움의 서정속에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들을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에 대한 깊은 정서적 체험이 잘 안반침되어 있는것과 관련된다.

시 《먼 하늘가》, 《해빛에 실어 별빛에 실어》가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리는 그리움을 토로한 시라면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 《우리 장군님 오신 날》, 《그리웠습니다 장군님》은 장군님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속에서 그리움의 격정을 터친 시들이다.

시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는 간절한 그리움의 숨결, 체취가 그대로 느껴 지는 생동한 생활 화풍과 주정토로에 의해 물들여 진 다감하고 절절한 서정으로 물결치고 있다.

떠나신 날이 기다린 날이었습시다
떠나신 순간이 기다림의 시작이었습시다
간절한 기다림
행복의 기다림
...

은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심적인 세찬 소용돌이가 느껴 지는 《행복의 기다림》의 토로는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 간절한 기다림의 세계를 얼마나 절절히 감득하게 하고 있는가.

이 시에 노래된 그리움은 자나깨나 먼 곳에 계시는 어버이생각으로 뜨겁게 흐르는 그리움이며 거창한 전변과 혁신을 불러 창조로 불 타는 그리움이다. 여기에 이 시에 흐르는 그리움의 시대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그리움의 서정은 《먼 길에 언제 돌아 오시나/ 억만개 침묵을 마음속에 세여보》며 《어버이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 대한 그리고 《멋쟁이 된 취야별》에 무르익은 버이삭이며 《행복의 물노래 펄》친 금진강, 대홍단의 감자밭, 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의 대상들에 대한 간결하고 집약적인 시적묘사와 주정토로에 의해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늘 마음속에》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장군님을 그리워 하는 그리움의 감정선을 일관시킨것도 이 시의 형상적특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그리움의 정으로 굳건히 맺어 진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를 노래하는 감동적인 화풍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기다리는 인민들을 한시바삐 만나시려》 《만리길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서정적형상,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 세기의 위인을 맞이한 환희와 격찬의 열정, 바로 그때문에 시는 태양칭송의 노래로 되는것이다.

시 《그리웠습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 오신날》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인민의 감격과 기쁨, 칭송의 격정을 뜨겁게 읽을수 있다.

시 《우리 장군님 오신 날》은 《그리움의 하늘에서/ 해가 솟은 날/ 그리움의 땅우에서/ 해맞이하는 날》이라고 그리움의 격정을 터치면서 이날은 《우리의 뜨거운 심장에/ 21세기 태양을 더높이 모신 날》이라는 사색 깊은 정서적주장을 주고 있다.

21세기 태양을 더높이 모신 날이라는 주장속에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을 받들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게 울리고 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하시여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그이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음을 실증하여 준다는데 그리움의 서정을 노래한 시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와 그 형상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새 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환희가 우리를 진감한 8월, 이 계절에 우리 시단도 태양칭송의 노래로 류달리 뜨거웠다.

우에서 언급한 시들외에도 축하시 《축하를 드립니다》(김만영), 시초 《세계는 웨친다》(신병강)를 비롯한 시의 대하가 굵어진 8월!

하지만 장엄하게 흐르는 **김정일**시대의 영원무궁함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들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21세기 태양송가시대의 일단을 반영한 것으로 된다.

그 일단으로써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이야말로 21세기 태양찬가의 거대한 생명력의 원천이라는것을 절감할수 있었다.

하거니 그대가 시인이자라면 숭고한 사명을 심장에 새겨 안으며 선군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으라!

21세기의 태양이 빛나는 하늘아래 우리의 시가 있고 시인의 참된 삶이 있다.

김정일시대를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장이 불 타고 있다.

만경대로 가는 길

리금주

강산을 몰어 뜯으며
사납게 울부짖던 눈보라도
기승을 거두고 노그라진 밤
철창가에 내려 앉은
달빛마저 차거워라
마포형무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가네

고문으로 어혈진 몸
감방벽에 기대신채
김형권선생님 달빛을 어루쓸며
생각도 깊으셔라
천리 먼 만경대로
달빛 타고 이 밤 달리시는가

그러면 들려 오는
베들소리, 물레질소리
굳세고 강직한
만경대의 숨결을 부어 주는
어머니의 사랑인듯
선생님의 귀전에
가깝게 들려 와라

이 밤 달빛어린 뜨락에서
찬눈을 맞으시며
아버님은 아마도 잠 못들고 계시리
돌아 오지 않는 이 아들 기다려
긴긴 몇해째 사립문 열어 놓고...

그 사립문 열고 나간
만경대의 맏아들은

남산의 푸른 소나무로 자랐고
만경대의 장손은
백두산장수벌로 높이 뜨지 않았던가
아 그러면 산악처럼 굳세지는 마음
선생님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자리 잡는 신념이여
나는 만경대의 아들이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나는 만경대의 아들이다

철창문이 열리며
포악한 일제교형리들
악착한 고문을 이어대려
또다시 선생님께로 다가서는데
별안간 추상같이 웨치는 불호령소리
-내 발로 가마

스스로 택한 길
제발로 가야만 하는 혁명의 길이기에
선생님은 찢긴 몸 끌며
한걸음 한걸음
철창문을 나서신다
고문장, 피 흐르는 못관 향해...

광복으로 가는 길엔
이 못관길 부디 거쳐야 했기에
자욱자욱 붉은 피 뿌리면서도
에돌래야 에돌수 없는 길이었어서
선생님은 웃으며 못관우에 오르신다
그것은 만경대로 가는 길이였기에

가사

봄의 향기

리성혁

봄이여 조국의 아름다운 봄이여
그대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2월의 백두고향 만병초향기
소백수로 흘러 들며 시작된다네

봄이여 조국의 아름다운 봄이여
그대는 어디서 무르녹느냐

4월의 만경대 진달래향기
대동강을 흘러 가며 무르녹는다네

봄이여 조국의 아름다운 봄이여
그대는 무엇을 노래하느냐
영원한 이 강산의 목란꽃향기
한나산의 눈석을 노래한다네

스승에 대한 생각

최영화

《생각 많은 한생이 한 일없이 묻혔도다》

이 글은 나의 스승이었던 정문향선생이 일흔네살의 한생을 마치면서 세상에 남긴 마지막사색의 한줄시이다.

《생각 많은 한생》-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저명한 시인인 정문향선생의 한생이었다.

나는 선생을 추억할 때면 가끔 이 한줄시를 위 위 보곤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한생을 단마디로 표현할수 있었는지... 역시 《사색의 시인》은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의 《사색의 빛》을 뿌리며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보고 철학적으로 사색할줄 아는 작가만이 그속에서 뜻 깊고 의의 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있다.》

정문향선생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을 한생토록 자기의 시창작에 무게 있게 구현한 시인이었다. 선생이야말로 현실생활을 보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하는 시인이었으며 깊은 사색속에서 얻어 낸 시종자를 사색적인 심도가 있게 노래한 명시인이었다.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시대에 대한 생각》을 비롯하여 시적사색이 짙은 시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생의 마지막운명의 시각에 쓴 이 한줄시를 놓고서도 선생의 한생의 시세계가 얼마나 사색적이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내가 이 한줄시를 알게 된것은 주체85(1996)년 6월이었다. 바로 그해, 그달이 정문향선생이 우리결을 떠난지 3돌이 되는 해이고 달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승의 묘소를 찾아 보고 싶은 심정도 간절하고 앓는 안해의 약재도 구할겸 그해 6월에 개성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역에서 곧바로 선생의 집부터 찾았는데 선생 부인은 그간의 아팠던 심정을 눈굽을 적시며 이야기하고 나서 정문향선생의 유언시라고도 말할수 있는 이 한줄시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담은 자기의 짧은 시 한수를

보여 주었다. 나 역시 비감을 금치 못하며 스승의 한줄시와 부인의 시를 읽었다.

나는 이 한줄시를 읽으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조국과 인민, 시대에 대한 생각 많은 훌륭한 시를 많이 쓴 선생의 한생과 그 한생을 시창작에 바쳐 많은 공을 세우고도 한일이 없다고 한 선생의 그 겸허한 참모습을 뜨거운 마음으로 회억하였다.

사색과 겸허-이 둘은 선생이 지닌 생의 기본특징이었다.

언제 보아도 사색이 어린 얼굴표정, 칭찬을 오히려 쑥스럽게 여기는 그 인품, 선생의 이런 남다른 인간적특징이 림종의 순간에조차 그대로 발현되었으니 나는 그 고결함에 머리를 숙일뿐이었다.

나는 부인에게 선생이 이 글을 비문으로 새겨 줄것을 당부하였는데 묘비에 새겨져 있는가고 물었다. 했더니 부인은 비석에는 새겨 놓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순간 나는 아쉬웠다. 허나 한생 사색이 깊은 명시들을 많이 쓰고 그것으로 우리 당의 시문학 발전에 특색 있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 주체시문학사에 공적의 높은 탑을 세워 놓은 선생의 한생을 비록 유언시이고 당부이긴 하지만 한 일이 없다는 글발을 묘비에 새겨 놓지 못한것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인에게 스승의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한 제자의 죄스러웠던 심정을 말하였다.

나는 다음날 스승이 고이 잠들고 있는 묘소를 찾아 선생의 맏아들과 작가 허광순도 함께 성균관 뒤길을 걸어 그리 높지 않은 산마루에 올랐다. 남쪽이 환히 트인 이 산마루에 크게 봉분을 한 정문향선생의 묘가 있었다. 잔디 푸른 묘에는 거의 내키만한 높은 화강석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묘비에는 《시인 정문향 묘》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고》자 대신 《시인》이라는 두 글자가 이름우에 새겨진 묘비를 애도의 심정으로 쓸어 보면서 《시인》이라는 이 두

글자에서 류다른 충격을 받았다.

《시인》, 이 두 글자가 정문향선생의 한생을 얼마나 상징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는가. 선생은 오늘도 《시인》으로 세상에, 우리 가슴에 살아 있는것이다.

선생은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광을 지닌 스승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상》 제관인인 선생의 장례식을 잘 치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장군님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선생의 장례식은 개성에서 크게 진행된 장례행사로 되었다. 이는 또한 생각 많은 선생의 한생에 대한 우리 당의 높은 평가이기도 하였다.

나는 그때 장례식에 참가할 차비를 다하고 떠나려고 했으나 갑자기 긴급한 사업이 제기되어 떠나지 못하고 모임장소로 가는 길에 체신소에 들려 지급으로 조의전보를 명전에 보내는것으로 스승과 비통한 영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문향선생은 나의 스승이였고 인간스승이었다.

나는 전후 주체 43(1954)년경에 선생과 첫 인사를 나눈후 근 40년간 선생이 평양으로 오거나 내가 선생이 있는 곳인 원산, 개성으로 가면 서로의 집에서 자기도 하는 인간관계속에서 그리고

4.15문학창작단과 중요창작전투지들에서의 창작관계속에서 선생으로부터 시창작, 인간수업과 관련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실지 체험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앞두고 중요작품창작관계로 몇명의 소설가, 시인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합숙방에서 몇달동안 지낸 일이 있었다. 이때 나는 정문향선생과 한방에 있으면서 작품창작문제 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하루는 선생이 쓰고 있는 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끝에 선생은 나에게 그전에는 시창작에서 도식적인것, 기록적인것이 문제이더니 지금은 직선적인것이 문제이라고 하면서 시적사색이 없는 시, 시인의 시적탐구가 없는 시가 무슨 시인가, 최동무는 동맹창작지도일군인데 왜 이런데 대해서 불을 걸지 않는가고 말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일군으로서, 시인으로서 많은 가책을 느꼈다.

내가 선생에게서 중요하게 배운것은 당적시인의 사색과 그 깊이였고 창작적량심의 순결함이였고 시적탐구가 없이는 붓을 들지 않는 시인의 자세였고 인간도덕에 대한 엄격성이였다.

참으로 시인 정문향선생은 사색인이였고 도덕인이였다.

나는 선생의 묘소를 찾았을 때, 우리의 주체시문학발전을 위하여 한생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공로를 세운 정문향선생의 묘비앞에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선생의 한줄유언시를 비에 새겨 놓지 못한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즉흥적인 나의 마음의 한줄시를 감히 묘비에 부쳤다.

《생각 많은 한생의 시두뇌가 여기에 잠들다》라고...

시조 4수

고호길

발갈이

땀 들어 거름낸 땅 설기처럼 부풀었다
발통이 폭폭 빠져 놀란 황소 빨리 가니
멋이로다 채찍은 던지고 휘파람만 부노라

아지칠 때

검푸른 눈과 발에 휘영청 달 밝은데
동리개들 달려 나와 벌을 향해 짖어 대네
아서라 와삭와삭함은 아지치는 소릴라

이삭은 여물어

총알처럼 땅땅 여문 벼이삭을 세여 보니
농장에서 으뜸이래 《군민포전》 수확고
그런데 이 기쁜 날 우리 군대 어이 단 한명도
없고나

농사차비

곡식 걷은 땅우에 함박눈 내리는데
프락포르 통탕대며 하그냥 바쁘단다
부리노니 거름더미, 가을은 이렇게 눈속에서
오누나

고향의 향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이 세상에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비전향장기수인 나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과 엄격히 격리된 어둡고 침침한 독감방에서 30~40년동안 살면서 고향산천과 고향사람들의 다정한 얼굴을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나는 몇십년만에 고향을 방문했다.

백두산에서 흘러 내린 마천령산줄기를 이은 은수산, 금봉산 그리고 그 산줄기에서 흘러 내리는 남대천, 북대천의 푸른 물, 무성한 나무와 봄이면 붉게 피어 나는 진달래꽃, 풀 한포기, 한줌의 흙과 돌 하나까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고향은 진정 사랑이었고 희망이었다.

내가 작은 독감방에 있을 때에는 살아서 고향을 밟아 보고 그 산천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솔직히 말해 죽어서 뉘이라도 고향하늘을 날아 보고 싶었다.

그러기에 살아서 고향을 방문하게 된 오늘의 내 마음은 현실이 아닌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였다.

렬차에서 내리자 고향의 간부동지들이 나를 뜨겁게 포옹하고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환영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감옥에서 항상 잊은 적 없는 바로 그 얼굴들이여서 구면처럼 마음 편안했다. 그리고 환영의 꽃다발향기는 고향의 흙과 물, 공기와 해빛이 만들어 낸 틀림 없는 고향의 향기였으며 내가 마음속에 안고 산 고향사람들의 마음의 향기였다.

수십년동안 감옥에서 그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 했던 얼굴들이며 산천이었던가.

나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을 내려다보고 산과 들, 환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며 감격과 행복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경애하는 장군

님의 현지말씀판에 경건한 마음으로 꽃다발을 드리고 살아서 고향을 방문하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심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내 남은 여생에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할것을 다시한번 결의 다졌다.

고향의 물맛

고향에서 첫 식사를 할 때 단천광산련합기업소 책임비서동지가 샘물터에서 떠온 물이라고 하면서 식사전에 마셔 보라고 밥상우에 올려 놓았다.

고향의 샘물이라는 반가움에 경건한 마음으로 물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셔 보았다.

아! 고향우물에서 어머니가 길어다 주시던 그 물맛! 바로 고향의 그 물맛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책임비서동지, 고향의 물맛은 변하지 않았습시다. 정말 고맙습시다.》라고 마음속 인사를 그에게 하였다.

몇십년만에 고향에 돌아온 이 전사가 고향의 물맛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식탁주위의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다같은 고향사람이란 그 자랑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주었다.

얼마나 순진하고 정은 고향사람들의 얼굴인가.

모교

미제가 침략전쟁을 도발한 주체39(1950)년 6월 25일 열여덟살 애젊은 나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며 교문을 나선 그때로부터 이렇게 오늘 모교를 방문하게 되기까지는 반세기가 넘었다.

학교정문앞에 차가 몇자 어린 남녀학생이 내 목에 붉은 넥타이를 매여 주고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광복후 중학교를 다닐 때 나도 소년단원이었는데 환영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은 내 어린 시절의 낯익은 친구들처럼 느껴 졌다.

옛날 선생님들과 똑같은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들에게 《제 나이 70이지만 오늘은 어린 학생으로 모교를 찾아 왔으니 학생으로 대해주십시오. 만약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학생을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하며 허리 굽혀 인사 드리였다.

선생님들은 이 나이든 학생에게 미소지으며 친절하고도 정중하게 맞아 주고 반겨 주었다.

운동장에서 학교건물을 바라보니 지붕우의 기와까지 옛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운동장에는 어린 학생시절 달리고 뛰어 다

닌 내 발자국자리가 지금도 새겨 져 있는것만 같았다.

나는 교장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내가 50여년 전 그날에 공부하던 교실에 들어 가 책상을 마주하고 의자에도 앉아 보았다.

이 늙은 학생에게 책상은 작고 의자는 낮았다.

2층에서 창문으로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50여년 전 그 시절을 생각했다.

《교장선생님, 이 교실아래가 그전에는 교장선생님방이었는데...》라고 물었다.

《지금도 그 방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2층에서 내려 와 그 방에 들어 갔다.

나는 그 방에 들어 서며 《그때 우리들이 장난이 심해 교실에서 떠들면 교장선생님이 교실에 올라와 꾸짖곤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교장선생님은 말없이 웃어 보였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내 어린 친구들은 장난기가 있는 모양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학생들이 장난 치고 놀기 좋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아이들인가요. 어른이지.》라고 말했다.

내 어린 친구들은 나의 방문을 환영하여 예술소조공연을 하였다. 모두가 가수요, 연주가요, 무용가였다.

《금란의 달》가극대본을 쓴 작가 리태화담임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나를 연극반에서 활동하게 하고 지도해 주었다.

조선옷 입은 녀선생님을 보니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지로 조선옷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었던 소학교 1학년때의 담임 김복순선생님의 모습도 떠올랐다.

나는 선생님들과 상봉모임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모교를 방문하며 나는 분명 어린 학생의 기분이어서 즐겁기만 했는데 사진속 내 얼굴의 주름살과 백발이야 어찌할수 있으랴.

흘러 간 몇십년 세월과 함께 내 모습이 변했다 해도 오늘의 내 모교의 선생님들과 어린 친구들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젊음과 함께 남아 있다.

파도소리

방문기간 고향의 바다가에도 나가보았다.

늦게야 돌아온 고향의 이 아들을 반기는듯 날씨도 아침부터 맑게 개이고 하늘도 푸르디 푸르러 내 마음도 저 하늘을 날으는 기분이였다.

차에서 내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백사장가를 가로 질러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우에 올라 몇십년만이야 이 바다와 이어진 못 잊을 추억을 더듬었다.

어린 학창시절 이 바다가에 나오면 저 왜가리바위까지 헤엄쳐서 갔다오는것이 가장 자랑스러웠다. 우리 친구들과중에는 헤엄 잘치고 담력이 큰 염호철이란 학생이 어린 나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왜가리바위까지 왕복할것을 결심하고 서슴없

이 바다물에 뛰여 들었다. 다른 동무들은 백사장에 엎드려 왜가리바위를 향해 헤엄쳐 가는 그를 바라보며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위구심을 안고 가슴 조이고 있었다.

모두가 숨 죽이고 그를 바라보다가 파도가 세차게 밀려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거렸다.

그렇게 몇번 거듭한 다음 그는 드디어 왜가리바위에 도착했고 손을 한번 장한듯 흔들여 보인 다음 다시 되돌아 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달려 가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속에서 그는 끝내 우리들이 있는 기슭으로 돌아 왔고 백사장에서 서로 얼싸안고 그의 용기와 수영솜씨에 찬탄의 환호를 올렸다. 그리고 섭조개죽을 끓여 먹고 헤엄치며 놀다가 옥녀봉에 저녁노을이 붉게 탈 때 떠들며 집으로 돌아 왔다.

왜가리바위까지 왕복 수영한 염동무의 이야기는 그날로 학교에 소문났다. 얼마후 나도 왜가리바위까지 왕복 수영할 결심을 했다.

나는 왜가리바위까지 헤엄쳐 가는 길에 밀려오는 파도로 바다물을 여러차례 마시였다.

기나긴 옥중생활동안 왜가리바위까지 왕복수영 때 마시였던 바다물의 짠맛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내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 있다.

나는 바위우에서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바다, 그우에 점점이 떠 있는 배, 바위에 부딪쳐 출렁이는 물결, 백사장우로 련속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내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고향의 바다여! 감옥생활동안 너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그러자 바다는 내 웨침에 대답하듯 파도를 휘몰아 바위를 들이쳤다. 나는 바위우에서 내려와 신발이 물에 젖는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밀려 오는 바다물에 손을 담가 보았다.

몇번이고 손을 담가 보면서 바다물을 입에 넣어 보았다. 짭짤한 물맛은 어린시절 왜가리바위까지 헤엄쳐 가면서 들이켰던 고향바다의 물맛 바로 그대로였다. 그 감개에 목메이며 나는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아뢰였다.

《고향의 물맛을 다시금 나에게 보게 해주신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겨울바다

나는 바위에 올라와 바다물에 젖은 구두와 양말을 벗어 그우에 넣어 말리였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느라니 조국통일의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다 이 막내동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떠난간 둘째 누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소학교 다닐 때 누님은 이 막내의 손을 이끌고 겨울바다가 백사장을 거닐기를 좋아 했다.

겨울동해의 푸른 파도는 백사장을 당장 삼킬듯이 높이 솟아 올랐지만 누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백사장을 걷기만 했다.

나는 겁에 질렸지만 누님이 이끄는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걸어 갔다. 여름철에는 그렇게 시원하던 바다가 겨울에는 살을 베일 정도로 찼다.

누님은 왜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나운 겨울바다가를 자주 거닐었는지 그것을 그날엔 다 몰랐지만 이 막내의 앞길에 험한 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키워 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감옥생활중에 놈들의 폭압이 강해 질 때면 누님의 얼굴과 함께 겨울의 고향바다 파도의 노호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적에게 저항할 강한 의지를 가다듬곤 했다.

지금 누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동생을 데리고 겨울바다가를 거닐곤 했는지 물어 보고 싶다.

그러나 누님의 다정한 목소리대신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만이 되풀이될뿐이다.

고향의 파도소리는 어린시절 내 꿈을 키워 준 음악이었다.

감옥생활기간 적의 탄압이 악랄해질 때마다 내 심장의 맥박은 겨울 검푸른 파도처럼 격하게 뛰었다.

그리고 봄날의 고티한 파도소리는 동지에 대한 사랑의 노래처럼 들리었다.

해는 뜨고 진다

어둡고 컴컴한 독감방에 수십년간 혼자 앉아 있다보니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옥중생활기간 해가 뜨고 지는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 지구는 돌지 않는것처럼 느껴 졌다.

고향을 방문한 새벽에 날이 밝아 오자 동해바다수평선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고 불 타는 태양의 잔광을 나는 감격속에 보았다.

저녁때 고티한 은주산에 지는 태양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해는 뜨고 지고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에 그 무슨 위대한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고티한 거리에서 바쁘게 걸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물결을 보면서 세월은 흘러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지구는 돌고 세월은 여전히 흘러 가고 있구나.》

고향의 음식맛

고향 바다가에서 식사할 때 바다의 시원함도 좋았지만 고티한 음식맛은 나에게 지나간 날의 옛 추억을 되살려 주었다.

숯불에 구운 마른 명태를 먹어 보라고 권하기에 한조각을 입에 넣어 보았다.

짭짤한 그 맛은 50여년전 어린시절 생각을 불러주었다.

우리 고티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명태를 민물에 씻어서 말리우는 경우가 많지만 바다물에 씻어 말리우기도 했다. 바다물에 씻어 말리운 명태를 숯불에 구우면 짭자브레한 맛이 난다.

이것을 밥과 함께 먹을 때의 그 고티한 맛은 고티의 맛이었고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었다.

저녁식사때 미역국을 권하기에 혹시나 하며 맛을 보았는데 아! 이게 계장국이 아닌가.

추운 겨울에 털계장을 털어 참미역과 함께 끓인 국은 내 고티의 겨울음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초여름이여서 털계대신 꽃계장과 함께 끓인 미역국이다. 하지만 그 맛은 충분히 고티를 느끼게 했다.

나는 한 좌담회에서 《고향이 공화국북반부인 저는 고티에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에 의해 공식적인 환영을 받을수 있는 감격과 행복을 느꼈지만 고티가 남조선인 대부분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자신과 같은 기회가 주어 지지 않아 고티의 음식맛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을 떠나는 날 고티사람들은 내가 맛본 고티음식의 맛을 남조선출신의 비전향장기수들도 느낄수 있게 새우젓과 미역을 전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주었다. 새우젓맛은 고티가 남쪽인 비전향장기수들도 고티의 맛을 느끼게 해주어 그들은 여간 기뻐 하지 않았다.

밭과 논에서 일하는 고티의 농장원들, 단천제련소 로앞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로동자들, 건설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건설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나에게 손 흔들며 환영해 준 녀인들과 아이들, 그들은 감옥에서도 항상 보고 싶던 그 인정 많고 정이 넘치는 근면한 고티사람들이어서 나에게 는 낯설지 않고 따뜻한 인정미와 친근감을 주었다.

나는 감옥에서 전향을 강요당할 때마다 고티사람들의 얼굴을 잊을수 없었고 그래서 절대로 배신할수 없었다.

나는 나를 키워 준 고티의 푸른 하늘과 비옥한 땅 그리고 맑은 물과 동해의 푸른 물결을 영원히 사랑한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이름없이 사라질번했던 저를 구원하여 데려와 고티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끝 없는 사랑을 나는 고티방문의 나날에 더욱 뜨겁게 느끼며 그이의 영원한 전사로 조국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을 위해 한몸 다 바칠 신념의 맹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멀리 장군님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우러르고 또 우러러 보았다.

함께 가는 길

공천영

비료공장에 갔던 장항농장의 07호차는 20일만에 빈 차로 돌아 오고 있었다. 운전칸에 앉아 오는 관리위원장 리택훈의 기분은 저으기 흐린 날씨였다. 지금도 공장 외래자합숙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다시 귀가에 살아 났다.

…《그 농장에 요즘 미생물비료연구사가 나가 있다는데 왜 그 신셀 안지요?》

…《새 물비료를 써봤는데 화학비료 못지 않습니다.》

…《그 비료는 우리 지방 토질에 맞는 미생물비료입니다. 허수이 여기지 마십시오.》

택훈이 소홀히 여겼던 그 비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저기압이 실린 택훈의 마음속에 그 미생물비료가 자리를 넓히기 시작했다.

택훈은 농장에 왔던 김옥심연구사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녀성치고는 큰 키였다. 룩십나이 같지 않게 얇은 눈까풀아래의 맑고 까만 눈동자는 아직 정기를 발산했다. 그 눈정기로 하여 넓은 이마에 깊이 그려진 세쌍의 주름살이며 살쾅이 없어 돌을사해 보이는 관치뼈며 눈귀에서 퍼져 나간 잔주름살들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데 지장을 주지 못했다. 처녀때의 습관을 아직 버리지 않은듯 남몰래 동그란 손거울을 버릇처럼 들여다보곤 하는 녀인은 언제보다 차림새가 깨끗하고 단정했다.

택훈이가 출장을 떠나는 날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연구사에게 이제는 돌아와 나이대접을 받자고 전화가 왔었다. 그러니 그사이에 연구사어머니는 집으로 돌아 갔을것이였다.

게도 구력도 다 놓친 기분을 싣고 차가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었던듯 허연 농립모를 눌러 쓴 5작업반장 정태가 나타났다. 얼굴이 갱끗한 그는 키를 솟구고 빈 적재함을 기웃이 들여다 보더니 쓴입을 다시며 물러 났다.

《비료가 안되겠습니까?》

《배정량외는 하늘의 별따기요.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소.》

《화학비료를 못 받았으면 거 만포쪽에서 린회석이나 교회석이라도 싣고 올걸 그랬습니다. 지금 연구사선생님은 그런것을 찾는데…》

정태는 택훈에게서 러과담배 한대를 받아 불을 붙이며 자못 아쉬움을 표실했다.

《옥심연구사어머니가 가지 않았단 말이요?》

《예, 2작업반 <사실>분조장네집에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2작업반의 영실분조장은 《사실》이란 별명이 이름을 대신할 때가 많았다.

《왜 합숙에서 그 집으로 옮겼소?》

《글쎄… 사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좌우간 연구사가 있다니 되었소. 난 연구사어머니부터 만나야겠소.》

택훈은 리당위원회사무실에 얼른 들렀다가 나와서는 2작업반으로 곧추 향했다. 리소재지마을을 벗어나 장항골 골개를 거슬러 한참 걸던 택훈은 결골짜기의 실개울을 건너서 시작되는 영실네분조의 첫 포전에서 두드러진 작황에 경탄하며 걸음을 멈췄다.

강냉이대들이 벌써 도끼자루처럼 굵었다. 검푸른 이파리들이 수리개처럼 날개를 벌리고 하늘을 치받들며 켜올랐다. 강냉이숲의 푸른 빛이 어우러져 벌써 밭이랑의 누런 빛은 한점도 보이지 않았다.

(허, 영실인지 사실인지 좀 한단 말이야. 어데서 화학비료를 자체로 《사업》하여 친 모양인가.)

택훈은 발가운데까지 들어 가보았다. 길옆이나 다름없이 강냉이대들이 한모양으로 충실했다.

이때 등뒤에서 영실분조장의 맑은 목소리가 느닷없이 귀를 간지럽혔다.

《관리위원장동지, 언제 왔습니까?》

《오, 분조장동무. 그사이 수고를 했소. 난 지금 오는 길이요.》

《질안을 싣고 왔습니까?》

《못 싣고 왔소. 한데 동문 이 밭에 어데서 비료를 가져다 쳤소?》

《호 참, 이 밭은 연구사어머니가 만든 비료를 친 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오?》

《노소비료 못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당장 전면적에 그 비료를 치려 합니다.》

영실은 5살짜리 어린이가 달린 아주머니지만 나부죽한 얼굴에 처녀같이 애티가 흐르고 작고 오달진 체구엔 탁구알처럼 통통 튀어 오르는 탄력과 발랄함이 비껴 있었다.

《연구사 어머니가 동무네 집에 있소?》

《예, 이틀째 5작업반 샘밭으로 올라 가는데. 점심때가 되면 내려 옵니다.》

택훈은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점심시간까

지는 30분이 남아 있었다.

《동무네 집에 가자구. 내 기다렸다 만나겠소. 한테 동무가 어떻게 연구사를 집에 모셔 올 생각을 했소?》

《호호… 그럴만한 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허, 극적인 내용이라?》

허우대가 큰 택훈은 본조의 첫 포전을 지나 산기슭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영실네집으로 팔을 크게 저으며 앞서 걸었다. 영실은 택훈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위원장동지가 비료 실려 간 사이에 사실 전 연구사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됐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흥두께 같은 소리요.》

택훈은 대못이란 말이 가슴에 찢리여 높아 지는 어성으로 물었다.

《사실… 이 말은 안하러 했었는데… 탄사람도 나처럼 연구사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나 해서… 관리위원장동지한테만 이야기하겠어요.》

《어서 말하라구.》

택훈은 영실의 말을 듣느라고 걸음발을 늦추었다.

《사실… 이젠 그 일이 있는지 보름이 지났어요. 우린 연구사어머니가 만든 새 물비료를 거름과 섞어 강냉이밭에 쳤어요. 한테 사실 난 암만 봐도 그 비료는 비료 같지 않구 뇨소와 질안비료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 말입니다. 난 달밤에 뇨소를 한버치 이고 나갔어요. 이자 위원장동지가 돌아 본 그 밭이에요. 사실…》

《그래 그 뇨소는 어디서 났소?》

《지난해 주다 남겼던 것이었어요. 사실 지난해에 관리위원장동진 뇨소와 질안을 많이 날라다 주었지요. 그걸 좀 건사했었어요.》

영실이 말마따나 택훈은 몇해째 화학비료를 잘 구해 들었다. 군적으로 알곡계획을 넘쳐 한 농장에 속하는 비결은 화학비료 《사업》을 잘한데 있었다. 물론 땅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지만 평 잡는게 매라고 알곡을 많이 냈다. 한테 올해엔 사정이 다르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켰소?》

《비료를 두이랑째 주면서 발머리를 돌다가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나길래 허리를 펴니 글썽 연구사어머니가 오질 않았어요. 4작업반에서 비료에 대한 해설강의를 하고 오는 길이라요. 그날 달은 왜 그리도 밝은지. 호 참, 사실 난 곡식 잘 되라고 한 노릇인데… 연구사어머니앞에 얼굴을 들수 없었어요.》

《허. 거참… 음…》

택훈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택훈이 자신도 처음엔 새 물비료를 살구 쳐다보듯 했었다. 화학비료만큼 즉효가 나지 않았고 효과가 나더라도 밭에 거름을 한 조건에서 그것이 눈에 띄었다. 게다가 먼밭에는 운반하기도 불편했다. 뭐니뭐

니해도 화학비료농사가 험하고 능률적이였다.

《그러니 연구사어머니한테 된욕을 먹었겠소.》

《욕은 먹지 않았어요. 한테 사실… 그날 밤 전 울었어요.》

영실은 택훈에게 사실 그대로를 나직이 말하고 있었다.

택훈은 돌바자를 낮게 두른 영실네집 프락에 제집처럼 앞서 들어 섰다. 넓은 방 두칸과 부엌, 창고가 길게 잇달린 아담한 독채집이였다. 넓은 프락엔 바자를 따라 가며 파란 넉줄이 감기기 시작한 줄당콩대가 같은 간격으로 둘러 서고 빨간 지붕으로는 거름독이 오른 검푸른 호박순들이 뻗기 시작했다.

《연구사는 옷방을 쓰겠지?》

택훈은 아래방으로 들어와 옷방새문을 조심히 열었다. 마치 연구사가 있거나 한것처럼…

방은 새롭게 잘 꾸려져 있었다. 영실의 정성이 한눈에 안겨 졌다. 바람벽엔 파르스름한 참대 무늬의 도배지를 새로 발랐는가 하면 방바닥엔 꽃문양의 돗자리를 산뜻하게 깔았다. 옷목엔 하얀 침대보를 씌운 낮은 침대를 들어 얹히었고 밝은 빛이 들어 오는 창턱밑엔 책상을 놓았다. 책상우의 하얀 사기꽃병에서 풍기는 생화의 향기가 코를 향긋하게 적시였다.

택훈은 책상앞의 의자에 방정하게 앉으며 꽃병 앞에 놓여 있는 책과 《응용미생물전서》라는 부피 두터운 책을 쳐들어 보았다.

《본조장동무, 하던 얘기를 계속 하라구. 연구사어머니가 욕은 안 했는데 울기는 왜 울었다는거요.》

영실은 방바닥에 살며시 주저 앉으며 나부죽한 얼굴을 다소곳하고 조용조용 말을 이었다.

《그날은 사실 우리 순희 아버지가 어디 가고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밤 연구사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끌었어요. 연구사는 밤깊도록 무릎을 맞대고 앉아 많은 말을 해주었어요. 달밤에 아이를 재워 놓고 나가 녀성이 혼자 비료를 주는 게 보통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가,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음이 굵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지향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위훈의 단상에 올라 설수 있다고 했어요.》

《허 참, 욕을 해도 시원치 않았는데 칭찬을 해? 그제 사실은 사실이요. 이 <사실>본조장.》

《사실 그 비료를 믿지 못한것만은 섭섭하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건 모르고 한 노릇이라고, 새 비료에 대해 미리 깊이 인식시켜 주지 못한 자기때문이라고… 호 참. 글썽…》

택훈은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영실의 말에 응수했지만 마음엔 금시 연등어리가 매달리는듯 했다. 영실은 그 비료의 효능을 몰라서 그랬지만 택훈은 그 비료의 실용가치에 대해 들을대로 듣

고서도 중요시하지 않은것이다. 땅을 걸굴 생각이나 새 과학을 도입할 생각보다 손쉽게 수확을 높일 안일한 생각을 앞세운것이였다.

택훈이 아무 반응없이 책상우의 한곳을 내려다 보며 덤덤히 앉아 있으니 옥심이 또 말을 잇는다.

《관리위원장동지, 사실... 연구사어머닌 그날 밤 우리 집에서 함께 자면서 그 비료를 연구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외동딸에게 줄 사랑까지도 그 비료에 다 바치던 이야기를 죄다 들려 주었어요.

그 미생물비료에 짓든 과학자의 량심, 고충, 만만사연을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고 봐요. 과학을 중시한다는것은 곧 과학자를 중시한다는게 아니겠어요.》

《응, 그래 그 비료에 무슨 사연이 있소. 우선 나부터 알자구.》

《예, 이야기하겠어요.》

영실은 옥심이가 들려 준 생활담, 인생담을 그대로 택훈이앞에 펼쳐기 시작했다.

×

처음 옥심연구사가 스스로 말아 연구한것은 톱밥을 미생물처리하여 돼지먹이로 리용한것이였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주민식량공급이 최대로 팽팽해 졌을 때 옥심은 대용식량연구에 관한 긴급과제를 받아 수행하였다. 그때 옥심은 쌀의 귀증함을 더없이 폐부로 절감했다. 쌀부족으로 솟아 오른 험난한 생활의 고개턱에서 옥심은 미생물을 농업생산에 응용하여 나라의 어려운 쌀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새로운 결심을 굳히였다. 그 결심은 당조직의 지지를 받았다. 책임일군들의 관심속에 령동기를 비롯하여 종군보관과 비료개발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들이 짧은 기간에 갖추어졌다.

도농촌경리위원회 미생물비료공장의 간관을 건크지 않은 1차건물의 첫방은 새로운 비료개발을 위한 실험실로 꾸려 졌다. 그 실험실은 옥심의 살림방이나 다름없었다. 옥심은 그 방의 작은 침대에서 자며 밤낮으로 탐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농업에 리로운 미생물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과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활까지도 거의나 생각밖에 놓이곤 했었다.

가장 어렵던 그해, 해토무렵의 어느 날 저녁이였다.

가벼운 손기척과 함께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딸 선애가 한손에 작은 천가방을 들고 사뿐 들어섰다.

옥심은 검은테안경을 낀 한 젊은 연구사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미생물비료의 균종들을 놓고 론전을 벌리고 있었다. 그 연구사를 보내고 났을 때는 밤이 되였다.

《저녁은 먹고 왔니?》

《어머니하고 함께 먹으려고 가지구 왔어요.》

어머니처럼 불살이 없는 가름하고 하얀 얼굴에 일부러 짓는 밝은 표정이 실렸다.

선애는 천가방아구리를 넓히며 어머니앞에 다가앉았다. 3단밥통과 음식기들을 꺼내놓았다. 흰쌀밥과 닭알찬, 남새찬들이 실험탁우에 펼쳐 졌다.

옥심은 선뜻 수저를 들수 없었다. 선애의 축이간 얼굴을 곧추 바라보았다.

《어머니, 들자요.》

《해산할 때 먹을걸 이렇게 다 없애면 어찌니.》

《그 동무가 또 구해 오겠다고 했어요.》

얼마 있으면 첫 애기를 낳아야 하는 딸의 몸은 며칠전에 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부해진것 같았다. 가쁜 숨소리까지 쉼쉼 들리는 딸의 정상이 가없었다.

잡꼭마져 떨어져 대용식량으로 한끼한끼 톱아가면서도 연구사업에 밤을 패는 이 어머니를 위해 선애는 자기의 비상미를 자주 소비하는것이였다.

옥심은 밥그릇을 절반도 축내지 못하고 술을 놓았다. 딸의 눈물겨운 진정에 목이 메여 술질을 더 할수 없었다.

《어머니, 왜 안들어요?》

《난 아까 누가 빵을 가지고 왔기에 초벌저녁을 먹었다. 너나 많이 먹어라. 그리구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 응?》

선애는 눈물이 글썽하여 어머니를 쳐다본다.

《왜 그러니. 무슨 고민이 있니?》

《어머니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쩔단말이나. 이렇게 신수편편한데.》

《어머니, 이제 년로보장을 받아도 되지 않아요.》

《받아도 되지.》

《한데 이제 새 연구사업에 착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미생물비료가 몇년이 걸릴지 알겠나요.》

《죽는 날까지라도 해야지. 승산이 머리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하겠나. 과학자에겐 년로보장이란 게 없어야 해.》

선애는 주름이 가늘게 잡힌 눈귀에 구슬같은 물방울을 돌리며 가야금선통처럼 떨리는 음조로 어머니의 심금을 파면서 이야기한다.

옥심은 한참 큰 숨을 몰아 쉬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소곳하고 앉아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는 딸의 물기어린 눈을 또 한번 들여다 보았다. 그 무거운 눈물방울이 옥심의 마음을 적신다.

아니, 나약해서는 험한 령을 못 넘는다. 신념과 의지와 량심을 발동하여 약해 지려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하는것이다.

《선애야, 나때문에 집살림이 더 어려워 지지. 나때문에 너희들이 더 바쁘구. 그렇지만 난 이

미생물비료를 꼭 얻어야 한다. 이것이 되면 너희들이 먹을 보구 우리 인민이 먹을 보지.)》

옥심은 방의 한쪽면을 반나마 가리운 장안에서 사발보다 밑굽이 깊은 유리그릇 두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나는 미생물비료의 폴립물속에 잠겨 있는 강냉이종자가 하얀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있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맹물그릇의 뿌리내림상태를 보여 주는 대조구였다. 두 그릇의 차이는 현저했다.

옥심은 장안에서 누르끼레한 분말이 반나마 차 있는 작은 유리기구를 또 꺼내놓았다.

선애는 그것을 받아 들고 동그랗게 뜬 반짝이는 눈매로 그것을 유심히 살피고 또 살폈다.

《이게 종균인가요?》

《종균인데 아직 미완성균이야.》

《이런 균은 어디서 얻나요?》

《강냉이를 심던 밭에 콩을 심으며 밭이 좋아진다는걸 너두 알지? 콩뿌리에 좁쌀알처럼 돈 흰 흙이 질소저장고란다.》

이런 질소고정균은 갈뿌리, 두릅뿌리 같은데도 많아. 이런데서 균을 얻어 이미 얻어낸 원균에 보태주면서 이 지대 토질에 맞는 미생물비료를 만들자는거란다.

이 비료를 성공하면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어.

그뿐이 아니야. 버섯균, 장균, 술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미생물들이 이 장안에 있어. 그것들도 활성이 강한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탐구를 한다. 수십수백억의 생명체를 거느리고 있지니 집에도 못 들어 가지 않나.》

선애는 소곳하고 숙였던 가름한 얼굴을 들고 어머니를 마주 본다. 작고 나긋나긋한 손이 실험탁위에 놓인 옥심의 조글조글한 손을 꼭 잡는다.

《어머니, 난 다 몰랐어요. 그 불 타는 진정을... 다 몰랐어요. 한데 어머니, 몸을 잘 돌보면서 일하세요. 잠두 푹 자구... 식사랑 잘해야 해요. 아직 흰쌀이 몇되박 있어요.》

《너 그 쌀은 이제 다치지 말아. 쌀과 미역을 더 구해야 해. 하여튼 아프면 나한테 알리구 산원으로 가야 한다. 응?》

옥심은 그날 밤 딸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실험실로 돌아 왔다. 탐구의 분과 초를 이어 가느라 딸의 신상에 또 관심을 못 돌렸다. 그러다 며칠후 새 물비료의 한 균종에 대한 과학실험을 받으러 갔다 오니 딸은 벌써 애기어머니가 되었다. 예정일을 당긴것이다. 산원에서 퇴원한지 이들이 되었다고 한다. 찬물을 만진탓인지 산후 후과가 좋지 못했다. 창백하고 부석부석한 얼굴, 종이 까풀처럼 허영게 보풀이 진 얇은 입술... 작을사한 눈은 얼굴이 부은탓에 두터워진 눈까풀에 싸여 더 작아보였다.

《아애비는 어데 갔니?》

《좁전에 어데 갔어요.》

선애는 덮었던 이불을 제쳐 놓으며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목소리마저 힘이 없고 가늘었다.

어른의 옷웃자락에 싸인 갓난 생명은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다. 벌기우리하게 혈조가 어린 갈속한 얼굴은 신통히도 선애의 애기적모상이었다. 꿈꿈 여미였던 옷자락을 헤치고 아래도리까지 들여다보고 나서 다시 감싸주고 덮어 주고 했다.

옥심은 그 어떤 찌릿한것이 목밑에까지 차오르며 속이 묵직해 졌다. 허리가 가늘어진 대신 가슴노리가 두둑해진 딸의 몸매를 애무의 눈길로 어루쓸며 작고 하얀 손을 꼭 쥐여 주었다. 이불속에 있던 손 같지 않게 부드러운 살결은 옥심의 손아귀에 차거운 감을 주었다. 아픈데가 어디니?... 식욕은 있니?... 젖은 많니?... 아이는 보채지 않니?... 이것저것 물어 보며 경험자답게 혼시를 하고 나서 부엌으로 내려 갔다.

솔뚜껑을 열어 보니 가마밑굽에 한바가지쯤 되는 물이 괜히 끓고 있었다. 단지들을 들여다 보니 빈 단지들이었다. 찬장우의 늪버치에 얼마간의 잡곡쌀이 있을뿐이었다. 흰쌀도 미역도 다 떨어진게 분명했다.

옥심은 당황해 났다. 시간이 있으면 구해 놓겠는데 지금은 또 역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산모의 국밥만이라도 끓여 놓고 가면 마음이 다소 편안해 지련만...

가마속의 물은 맹렬히 끓는다. 솔뚜껑을 올려 밀며 씨익씨익 증기를 뿜는다. 이 어머니의 가슴속도 함께 끓는다. 부석부석 부은 얼굴이 새문가에 나타난다.

《어머니, 그러다 차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세요.》

《이 사람이 인차 오겠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뚜막앞에서 한참 끓는 마음을 달래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으니 선애가 또 갈길을 재촉해 준다.

옥심은 연구소에서 쟁겨 준 꾸레미를 풀었다. 쌀을 일어 안치고 얼마 안되는 미역을 썰어 국감을 준비해 놓고서야 가방안에 있는 알사탕봉지를 풀어 놓았다. 한봉지밖에 안되는 우유가루를 조심스럽게 풀어 놓았다.

《여기서 다 풀어 놓으면 어머니 어찌겠어요. 렬차안에서 하실 도중식사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별소리, 난 일 없어. 이것들은 네가 먹으며 몸조리를 해라.》

선애는 그것들을 다시 가방안에 넣었다.

《아니 넣지 말라는데 왜 그러니?》

《출장길에 먹을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난 일 없다는데.》

《어머니, 어서 떠나세요. 그러다 차시간 놓치겠어요.》

넣거나 내놓거나 하는 신경이질에 승부가 나지 않았다. 처음엔 웃음으로 시작한 일이 울음으로까지 이어 졌다.

시간에 쫓기다 나니 아이포대기와 옷을 마련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렬차시간이 박두하자 옥심은 딸이 떠미는대로 거뻐해 진 가방을 들고 역으로 나갔다.

옥심은 역으로 나가면서도 마음은 가마안의 땀물처럼 줄아 들며 바질바질 탔다. 세상에 나 같은 어머니도 있을가.

옥심은 선애의 어머니구실만이 아니라 먼저 간 남편의 안해구실도 제대로 못했었다. 함께 미생물과학을 연구하던 남편의 림종도 지켜 주지 못했다. 과학원에 올라 가 있는 사이에 병원에서 돌아간것이였다.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내 몫까지 해주오.》라는 유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흘린, 그러면서 맹세를 다지고 다진 옥심이였다.

연구사업이 하루 늦어 지면 그만큼 《고난의 행군》이 하루 지체될것 같았다. 그래서 옥심의 과학의 길은 늘 바쁘지 않았던가. 옥심이 힘껏 달려 렬차에 몸을 실었을 때, 가쁘던 숨결이 고르로와 젖은 때 선애의 부석부석한 얼굴이 다시 눈앞에 보이며 가마속의 그 땀물이 가슴속에서 다시 끓었다.

옥심은 딸에게도 새로 태어난 손자에게도 미처 주지 못한 사랑을 어느 때인가는 뜨겁게 안겨 주리라 고 속마음 다졌다.

...영실의 나직하나 격정에 젖은 목소리를 잠시 끊기였다가 다시 이어졌다.

《관리위원장동지, 사실 그날밤 전 연구사어머니 몰래 눈물로 베개를 적시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과학자들을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사실 내가 그 비료를 허수이 알고 시험포에 화학비료를 치러던것을 연구사어머니의 딸이 알면 얼마나 분해 하겠어요.》

사실 우리 농장 일부 일꾼들은 화학비료만 알았지 미생물비료는 개천의 버들치 대하듯 소홀히 여겼어요. 현실속에 들어 온 과학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에도 무관심했어요. 그러니 농장에 어떻게 과학중시기풍이 서겠어요.》

편안한 흙타기에서 잔잔히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돌등을 넘어 내려 쪼기도 하며 흐르는 영실의 벽계수같이 맑고 담담한 어조는 의사등받이에 잔등을 실어 놓고 앉아 듣기만 하는 택훈의 가슴속에 물결을 지어 놓았다. 택훈은 줄음에 취한것처럼 눈덕을 내리깔고 부처같이 앉아 있지만 마음속은 바람을 만난 수면이였다.

영실이 비판하는 《일부 일군》의 첫 자리에 택훈이 자기가 있는것이다. 영실이 정말 보통내기가 아니다. 요즘 옥심연구사와 함께 있으며 그렇듯 키가 많이 자랐는가.

영실의 말이 옳다. 이 택훈이 정말 과학자를

어떻게 대하고 새 미생물비료를 어떻게 대했던가.

우에서 내려 오는 간부들한테는 숙식조건에도 남다른 관심을 돌렸다. 그들한테는 불편이 있을세라 사업조건을 보장했다. 그렇지만 연구사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었다. 죄책감에 목이 잠긴다.

택훈은 책상에 바투 나앉으며 입을 열었다.

《분조장동무가 날 대신해서 연구사어머니를 돌봐드리니 정말 고맙소. 이제 작업반마다에서 다 관심을 돌리게 하겠소. 매일 닭이나 토끼 한마리씩 메치자구.》

《정말입니까?》

영실의 뺨같이 맑은 눈이 반짝 빛난다.

《정말이요. 그러구 동무네집에 연구사선생님이 아주 있게 하자구.》

《어머니를 계속 남아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구. 그러니 사업조건, 후방조건을 최상으로 보장하자구. 농장적으로 관심하겠습니까.》

택훈이 확정적으로 강조하니 영실은 갑자기 시무룩해 지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안됩니다. 사실... 연구사어머니 가야 합니다. 우리 옥심만 채울수도 없지 않아요.》

《하 이 <사실>동무 이자껏 생각했던바하고는 섭섭한 말을 하는구만. 농장적인 비료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잘 돌봐 드리자구.》

택훈은 조용조용 흘러 가던 시내물에 돌을 던지듯 돌연 큰 소리로 영실의 립장을 꼭 눌렀다.

그러자 영실은 공처럼 튀어 나더니 책상우의 공책갈피에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놓는다.

《연구사선생에게 보내온 딸의 편지입니다. 어제 책상밑에 떨어 졌기에 올려 놓다가 읽어 봤어요. 남의 편지를 보는게 실례되긴 하지만 좀 읽어 보십시오.》

《선애편지란 말이지.》

택훈은 네절로 접은 속지를 폈다. 소리없이 눈으로 읽어 나갔다. 어머니의 시력에 부담이 되지 않게 신문의 제목글처럼 크고 푹푹하게 쓴 편지글이였다.

《어머니, 안녕하신가요. 가물과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 건강은 나빠 지지 않았는지요.》

여기의 세식구는 잘 있어요. 철이는 외할머니 언제 오는가고 시간마다 찾고 있어요.

어머니 이젠 년로보장을 받았으면 해요. 아침저녁만이라도 끼때일을 봐주고 철이를 시중해 주면 직장일에 좀 더 혁신할것 같아요.

이젠 새 물비료연구가 다 되지 않았나요. 과학심의도 받았고 그것으로 하여 학사학위도 받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토양미생물분야에 학술상의 기여를 크게 했다고 그 부문 일꾼들이 많이 말한대요.

이제 한달 있으면 어머니나이도 예순이예요.

그리고 열흘 있으면 철이가 다섯번째로 맞는 생일이에요. 첫돌부터 네살까지는 한번도 그 애 생일날 어머니가 없었어요. 이젠 철이도 생일날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안으로 꼭 들어 오세요. 천번만번 당부합니다. 인차 오리라 믿으면서도 철이를 옆에 세우고 찍은 봄날의 사진을 보내요. 그럼 부디 건강하세요.》

택훈은 편지를 접고 나서 봉투안에 있던 수첩장만한 천연색사진을 꺼내들었다.

발기우리한 홍조가 피는 선애와 철이의 얼굴형은 비슷했다. 얇은 눈까풀아래서 웃고 있는 가늘고 작을사한 눈매도 서로 닮았다. 옥심연구사의 사랑덩이들이었다. 연구사의 새 미생물비료엔 이들의 뒹도 있는것이다. 오죽 그리움에 타면 편지에 어머니 어서 들어 오기를 천번만번 당부했으랴.

택훈은 편지와 사진을 밤색의 책상에 끼우다 말고 책갈피들을 번지며 몇몇 페이지를 읽어 보았다.

새 비료의 원료산지들과 여러 시, 군 농장들을 찾으며 분석한 포전들의 토질분석표들이 있는가 하면 그 토질에 알맞는 미생물비료의 성분조성표들이 작성되어 있었다.

이 책만 봐도 옥심연구사가 딸의 편지에 흔들릴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 그도 녀성이다. 어머니이다. 다른 녀성, 다른 어머니와 달리 딸과 외손자한테 《빚》을 지고 있는 어머니이다. 딸의 편지에 응할수도 있다. 그러니 옥심이와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여튼 있는 기간 생활을 잘 돌봐 주자. 그리고 딸의 살림에도 관심을 돌리자. 과학자를 잘 도우면 그만큼 과학사업이 잘되지 않겠는가.

《한데 본조장동무, 낮참이 되었는데 왜 아직 안들어 오우? 벌써 1시가 되여 오는구만. 가만, 내 마중 가보겠소.》

택훈은 성급히 일어나 나오다 토방밑에 썸평 좋게 누워 자는 누런 강아지를 밟을번 했다.

×

택훈은 팔을 휘휘 저으며 장항골안의 비탈밭에 들어섰다. 발가운데 웅달샘이 있어 썸밭이라고 이름한 자드락은 몇해째 유기질거름을 못내고 화학비료 한가지로 편식한탓에 산도가 높아 지고 지력이 낮아 질대로 낮아 졌다. 이런 밭이 작업반마다 한두패기씩은 되었다. 이런 땅엔 미생물비료도 잘 먹지 않았다. 영양조건이 보장되어야 미생물이 효능을 내기때문이었다.

평지밭들과는 달리 강냉이대들은 키가 한뼘만 하고 대가 갈대처럼 가늘었다. 노리끼레한 이파리들은 피약벌을 받아 가생이가 돌돌 말려 들어갔다.

이 밭에 강냉이작과를 하는 날 택훈은 옥심연구사와 함께 올라 왔었다. 2작업반에서부터 차례

로 씨불임하는 포전들을 돌아보았는데 밀거름이 전혀 없이 씨를 심는 포전은 이 썸밭뿐이었다. 흰머리수건을 똑같이 쓴 녀성농장원 셋이서 한이랑씩 타고 씨앗을 묻어 갔다. 그들은 한이랑이 끝나고 돌아 설 때에야 허리를 펴곤 했다.

《관리위원장동무, 이 밭엔 왜 거름이 없이 백과를 하는가요?》

옥심은 밭의 비옥도를 가늠해 보는데 밭이랑의 곁흙을 한줌 쥐여 눈여겨 보며 물었다.

《올해엔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운반해 놓은 거름도 없고 이제 날라올 로력도 없습니다.》

《하루이를 늦더라도 물비료처리를 한 배합거름을 밀거름으로 주고 심으면 화학비료를 못 주더라도 소출이 올라갑니다.》

《그 일이 그렇게 말처럼 험하지 않습니다. 당장 씨뿌리기로력도 모자라는 판이니 올해는 또 이렇게 심구 노소비료간식을 두어번 먹일 작정입니다.》

해마다 잘 실어오던 비료여서 그때 택훈은 자신만만하여 백과를 묵인했었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못실어 왔으니 이런 밭들을 이제 어떻게 살구어야 하는가. 씨불임때 옥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택훈은 썸터에 이르자 큰 절을 하듯 웅달샘에 엎드렸다. 차거운 샘물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몸은 식는데도 땀방울은 온몸에 이슬처럼 돋았다. 불별을 받아 달아 오른 밭이랑들이 확확 단김을 내뿜었다.

(연구사가 어데 갔을가. ... 썸밭에 왔다고 했는데...)

이때 골안의 고요를 깨치며 밭 웃머리에서 《관리위원장동무-》 하고 찾는 낮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라다 보니 썸밭의 제일 높은 지점에 옥심이 서 있었다.

택훈은 밭이랑의 키낮은 강냉이포기들을 격석격석 타고 넘으며 단숨에 옥심이곁으로 치달아 올라왔다.

《연구사선생, 여기서 무얼합니까?》

《호호... 관리위원장동문 언제 왔어요?》

옥심은 택훈의 물음엔 대답할념 않고 마주 다가서며 되물었다. 그러는 옥심의 몸주체는 말이 아니었다. 택훈은 《오전에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옥심의 얼굴과 차림새를 눈여겨 살폈다. 불살이 빠져 관지뺨가 도드라져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잔주름마다에 땀기가 번들거리고 검스레한 흙물얼룩이 졌다. 반팔샤츠의 잔등과 앞자락에도 작업복으로 입군 하는 진회색바지가랭이에도 흙물이 여러군데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가늠이 갔다. 아닌게 아니라 옥심이 서 있는 몇발자국 뒤 밭과 숲사이의 평퍼짐한 공간에 진한 갈색의 거름더미가 구름처럼 덩그렇게 솟아 있었다. 절반으로 접힌 흙 묻은 마대가 그옆의 애솔

나무가지에 얹혀 있었다.

《아니 저걸 선생님이 해놓았습니까?》

《이 밭을 걸구는데 보탬이 될가 해서… 호, 이젠 마음뿐이군요.》

택훈은 덩그런 거름더미둘레를 한바퀴 빙 돌았다.

옥심은 잎이 무성한 풀덤불뒤에 소꿉하고 서서 동그란 손거울을 꺼내보며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택훈은 그 순간 옥심이결에 다가서기가 두려웠다.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쇠몽치에 한대 얻어맞는것 같았다. 천만마디의 말로 가슴을 찢러 비판하는것보다 더 큰 강타였다.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죄책의 감정에 젖은 마음을 수습하며 풀덤불뒤에서 나오는 옥심이와 마주섰다.

《연구사어머니, 너무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제가 교양될것 같습니까. 학사선생님이 어쩌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절 난감하게 만듭니까.》

《호호… 관리위원장동무가 대단히 노하셨군요. 아직 적지 않은 농장원들이 새 비료에 대한 신심을 못가지기에 거름장만을 해놓고 실물로 배워주고 싶었어요. 하여튼 내려 가면서 토론하자요.》

택훈이와 옥심은 밭머리길을 에돌아내려 샴터에서 또 한참 지체했다.

옥심은 샴꼬리에 앉아 세수를 하고 손발을 하얗게 씻으며 몸을 식혔다.

택훈은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다. 전과 달리 옥심은 감히 키를 건줄수 없는 큰 사람처럼 보였다.

《허. 선생이 이제 선보려 가겠습니까. 대강 씻고 빨리 내려갑시다.》

옥심은 소리없이 웃음으로 대답했다. 손을 다 닦달하고 일어 서면서는 사업이야기를 꺼냈다.

《점심시간에 5작업반장과 마주 앉으려 해요. 시기를 더 늦잡지 말고 이 샴밭토질에 맞는 배합거름을 만들려 해요.》

《미리 연락이 있었습니까?》

《사전 연계는 없었어요. 이제 가 만나겠어요.》

《그럼 함께 갑시다. 아까 5반장을 열췌 만났는데 질안, 뇨소에 절귀졌던 사람이 새 비료원료에 대해 말하더라 말입니다.》

《그사이 몇번 찾아 갔었어요.》

옥심은 웃웃 앞자락과 바지가랭이에 묻었던 누런 흙물도 지우고 신발을 깨끗이 빨아 물을 털어 신고서야 물가에서 옮겨 섰다.

옥심은 택훈의 눈길이 안미치는 등뒤로 가더니 동그란 손거울에 머리모양도 비추어 보고 웃기도 단정히 여민다. 그리고 나서니 금방 부식토질을 지던 늙은 녀인갈지 않게 한결 젊어지는것은 물론 연구사의 지성과 깨끗함이 몸매에 비끼는듯 싶었다.

《자동차를 끌고 먼데 또 갈 길은 없어요?》

옥심은 택훈의 뒤를 바투 따르며 물었다.

《있습니다. 닳새후에 떠나려 합니다.》

택훈은 오리목장의 새끼오리 1,000마리를 《사업》하러 간다는데 대해 사실대로 대답했다.

《호, 난 관리위원장동무한테 말하고싶은게 있었어요. 아마 땅을 떠난 농장이란 없을거예요. 대외사업보다도 밭에 정을 붙였으면 하는… 호호, 그렇다고 위원장동무를 신칙하는건 아니예요.》

《선생이 해주는 말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난 부식토더미한테 머리가 뺨하도록 한방맹이 얻어 맞았습니다.》

둘의 웃음이 함께 어울렸다.

5작업반으로 가는 트랙포르길에 허연 농립모를 이마가 가리우도록 눌러 쓴 정태가 서 있었다.

《이거… 연구사어머니 기다리다가 목빠지겠습니다. <사실>분조장네집에 앉아 기다리다 못해 마중오는 길입니다.》

《나도 찾아 가던 길이에요.》

택훈은 자기가 농장을 떠나 있는 사이에 연구사와 초급일꾼들의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감득했다. 그 순간 그들속에서 자기가 빠져져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한달이 못되는 사이에도 시대는 택훈을 떨켜놓고 지나간듯 싶었다.

《연구사어머니, 이젠 여기에 아주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문제들을 다 도와주십시오.》

《호호, 관리위원장동무가 요구하는 일은 다 하겠어요.》

택훈은 자기가 과학자와 합심되는것이 기뻐다. 이쯤되면 올해 농사는 물론 앞으로 해마다 장훈을 부를수 있다. 이제부터 땅이 년년이 좋아 질 것이다.

훈풍이 불어오며 길옆포전의 과란 강냉이이파리들이 일시에 나불나불 춤을 추었다.

X

닳새후, 새끼오리를 실으려 떠날 푸른색자동차는 정비를 끝내고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서 있었다.

택훈은 자기방에서 오리목장에 전화를 걸었다.

《…지배인동무, …예, 오늘 우리 차가 가오. 난 못 가오. 우리 업무부위원장동무가 가는데 전번에 말한대로 1,000마리를 보내줘야겠소. 여보시오. 이런 때 신세지자구 동창생이지. 예… 수고하십시오.》

택훈은 송수화기를 놓으며 누구보다도 관리위원장이 밭에 정을 붙여야 한다던 옥심의 조언을 다시금 상기했다. 택훈은 옥심연구사와 함께 4반포전들을 돌아 불 일정계획을 세우며 일어 섰다.

이때 사무실의 과란 출입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농립모를 눌러 쓴 정태가 불쑥 들어섰다.

《관리위원장동무, 연구사어머니가 오늘 떠나겠다고 나왔습니다.》

《연구사가 떠나다니?…》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창턱에 다가서서 앞뜰을 내다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진회색잡바를 단정하게 입은 큰 키의 연구사가 오리목장으로 갈 07호차 앞머리에 붙어서서 운전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모진 까만 트렁크와 밤색려행가방이 연구사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택훈은 옥심이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로년기의 일군 같지 않게 넘치는 정열로 작업반과 작업반, 포전과 포전을 돌며 《큰》 비료라고 이름 지은 새 미생물비료의 도입을 넓혀 나가던 연구사였다.

하긴 집에서 딸과 손자가 얼마나 기다리랴. 옥심이 또한 순간순간 선애와 철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랴. 새끼오리를 실으러 가는 날을 두번씩 꼬집어 묻던 그날의 태도를 진작 눈치채지 못한것이 못내 민망스러웠다. 차편이 좋으니 이제라도 서둘러 무엇을 좀 보내줄 조직사업을 해야 했다.

《5반장동무, 연구사어머니가 가는데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집에서 올감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했소. 빨리 나가 실소. 그런데 영실분조장은 왜 안보이나?...》

택훈은 한참 사무탁앞에서 서성거려었다. 옷감이며 이불장이며를 준비하여 생일날에 보내려 했다. 오늘 당장은 마련된것이 없었다.

택훈은 현관앞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옥심과 마주 섰다. 이마와 눈귀에 주름이 깊지만 혈기가 흐르고 정열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차편이 있을 때 떠나려고 나왔어요.》

《너무 뜻밖입니다. 가긴 가야 되겠지만...》

《여기 농장은 이제 내가 없어도 됩니다. 작업반들에서 새 비료를 다 받아들였어요.》

《미리 알았어야 집에 뭘 좀 보내는건데...》

그러자 옥심은 택훈의 귀가까이에 입술을 거의 붙이고 속삭이듯 말한다. 《실은 집으로 가는데 아니예요. 시중군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는 발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택훈은 눈이 덩둘해 저 옥심의 정기를 발산하는 맑은 눈동자와 이마의 주름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실이에요. 호 정말이에요. 이거 <사실>분조장네 집에 함께 있었더니 나도 그동무처럼 말머리에 <사실>자가 붙는군요. 호호...》

옥심은 ऐसा하게 말하고 웃긴 해도 택훈은 그럴수 없었다. 가슴속엔 감탄사만 찍혀 지는 것이었다.

《5반장동무는 연구사어머니가 집으로 가느라 앞던데요.》

《큰 일을 하는것처럼 광고하고 싶지 않아서 그

렇게 말해 버렸어요.》

자동차가 부르릉거리자 정태는 농작만한 감자포대를 동그란 어깨에 둘러 댔다. 그러자 옥심은 달려가 정태의 굵은 팔뚝에 매달렸다.

《실지 마십시오. 반장동무, 괜히 수고스레...》

마대는 다시 땅에 놓여 졌다.

이때 적재함뒤에 나부죽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한손엔 두발을 뽕뽕 모아 묶은 하얀 닭 2마리를 들었고 다른 한손엔 옥심이 끼고 다니던 밤색의 책을 들었다. 발깃한 이마에 이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았다.

《연구사어머니,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분조장이 나왔구나. 우린 잊지 못한 인연이 있지. 내 딸과 같애.》

옥심은 영실을 마중 나가며 반겼다.

《이 책이 어떻게 분조장손에 있었나. 가방에 있거니 했는데. 제일 중요한걸 잊을뻔 했구나.》

옥심은 책을 받아 책갈피를 번저 본다.

《우리 철이사진이란 있겠지?》

《예, 있습니다. 사실 토양미생물에 대해 좀 베껴 쓰느라고 꺼냈었습니다.》

《그 지향이 좋구나. 그런데 닭은 못가져간다.》

《이 닭은 알을 잘 낳는 닭이에요. 매일 알을 받아 잡수세요.》

《분조장, 그 마음이 고맙구나.》 옥심은 영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는다. 《어쩌면 그러도 내 딸과 같으니. 한데 난 집으로 가는데 아니야.》

옥심은 택훈이앞으로 몸을 돌리며 정색하여 양해를 구한다.

《실은 이제까지도 결단을 못 내렸던것인데 이제 여기 농장은 마음을 놔도 되겠더라 말이에요. 관리위원장동무나 반장, 분조장동무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농장에 비료공장이 선것이나 다름 없어요.》

옥심의 향방을 알게 된 영실은 두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어깨를 쫓다. 영실이 그러는 것을 보니 택훈의 가슴은 더 뭉클해 진다.

농장에 와서 이처럼 많은 일을 해놓고 빈몸으로 떠나가는 과학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택훈은 옥심이곁에 또 다가섰다.

《우리 농장에선 떠나간다치고 그래도 집에 가 딸이랑 만나보며 하루이틀이라도 지내고 가면 안됩니다. 다른 군에 가면 언제야 들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택훈의 진정이었다.

《호... 내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집에 편지를 했어요. 요즘은 미생물배합거름으로 땅을 비옥하게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땅의 진짜 거름이 되는데 내 인생의 목표였

어요.》

옥심은 운전사의 옆자리에 들어가 앉으며 손을 저었다. 자동차는 떠나갔다. 넓은 이마에 세쌍의 주름이 인상적인 옥심연구사의 다정한 얼굴은

너무도 빨리 서운하게 사라졌다.

택훈은 물기가 어린 눈을 습뻑이며 자동차적재함 뒤면의 …07번호가 사라질 때까지 한자리에 서 있었다.

작가일화

《개아들》 훈장

방랑시인 김삿갓이 북으로 북으로 방랑의 길을 옮기던 어느날이었다. 혼자서 흥얼흥얼하며 길을 가던 그는 해가 뉘엿해 지자 어느 마을의 서당을 찾아 갔다.

김삿갓이 점잖게 주인을 찾고 채워 주기를 청하니 강마른 얼굴에 빨간 관까지 쓴 한 50쯤 된 훈장은 들은척도 안하고 노만 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날도 이미 어두워진 뒤라 판곳에 더 갈 수가 없어 그대로 퇴마루에 눌러 앉아서 《제발 하루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삿갓의 말에 훈장은 여전히 모르쇠를 하고 제 할 일만 계속했다.

한참 노를 꼬고 있다가 머리를 쳐든 훈장은 삿갓이 계속 앉아 버티자 별안간 와락 성을 내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짜증조로 말하였다.

《아니 남의 글방에 와서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거야?》 하며 담배대로 채털이를 탁탁 치니 담배재가 마구 흩날리었다.

《아니 이거 훈장님, 하루밤만 좀…》

《자고로 나는 서당훈장일뿐이지 주막집주인은 아니야. 그러니 그리 알고 판데나 가보게나.》

《아 이거 훈장님, 날도 어두워 졌는데 이제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수양 높으신 훈장님께서 그 판만큼 높은 덕을 베푸시지요.》

《아따 이놈이 누굴 야료하러나. 이놈아, 네가 뭐길래 관이 어찌구 덕이 어찌구 수작질이나.》

훈장이 펄펄 뛰며 맞대거리를 하자 삿갓은 또 좀 누그러진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 그럼 제 글이나 한수 지을테니 그걸 보시구 재우든지 말든지 훈장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뭐뭐, 글, 흥. 여기가 무슨 거지 백일장 하는 데로 여기는 모양인가? 그 주제에 글은, 쫓쫓…》

《아니, 훈장님은 거지 백일장에서 시관이라도 하셨는가요. 난 아직 거지 백일장은 보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훈장은 이제는 아예 얼굴이 파랗다 못해 거무스름하게까지 되었고 온몸은 와들와들 경풍을 만나 아이처럼 떠는 것이었다.

《아니 이놈이 어디서 빌어 먹던 놈이 점잖은

서당방에 와서 해피한 망발을 해대며 지랄이야 지랄이. 이 이놈…》 이러며 담배대를 마구 휘두르는 꼴이 꼭 지랄 만난 개새끼 같았다.

《아 원, 명색이 서당훈장이라는 어른이 글 한수 짓겠다는 과객을 이렇게 팔시를 하다니, 내 참.》

김삿갓이 천하방랑의 길에 나서서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허다한 땀대를 받아 보았지만 이렇게 팔시 받기는 처음이었다.

훈장이 옆에서 부촉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들어 가자 마루에 혼자 앉은 김삿갓은 (이놈의 케케묵은 훈장놈을 욕이나 실컷 해주고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백지를 꺼내서 이런 글을 써놓았다.

《하늘 천》자가 관을 벗고 한점을 얻었고

《이어 내》자가 빠친 칼을 잃고

《한일 자》의 띠를 띠었도다

그것을 마루우에 그냥 놓고 나간 다음 한 아이가 바라보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훈장에게 가져다 바치면서 《선생님, 아까 그 과객이 적어 놓고 간것 같어요.》라고 일렀다.

훈장이 무심히 받아 보다가 《이게 뭐냐? 아니 뭐 개새끼.》 하고 화를 내며 북북 찢는데 《선생님, 거기 뭐라고 써 있었나요?》 하며 아이들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까짓 미친 놈이 쓴 글 무슨 애긴지 알아선 뭘하느냐!》

깡뽀한 얼굴엔 피줄이 곤두서고 광대뼈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김삿갓이 쓴 그 글은 훈장을 《개아들》이라고 욕한 것이었다.

《하늘 천》자가 우의 관(《한 일》자)을 벗으면 《큰 대》자가 되고 오른쪽 우에 한점을 찍으면 《개 견》자가 되는 것이요, 《이어 내》자가 빠친을 잃으면 《마칠 료》자가 되고 《한 일》자를 띠로 두르면 《아들 자》자가 되는 것이니 결국 《견자》 즉 《개아들》이 아닌가.

그러니 그놈의 린색한 서당훈장이 것처럼 기가 나서 뿔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리원희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장편실화소설 《결승선》을 읽고-

리창유

올해 초에 발행된 장편실화소설 《결승선》(김덕철, 한웅빈작)은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참으로 재미 있다.》, 《잘 썼다.》, 《단숨에 읽었다.》...

나역시 하루밤을 꼬박 새워 가며 단숨에 읽었다.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정성옥과 그의 애인 김중열, 인민학교, 체육학원의 선생들, 압록강체육선수단과 국가종합팀 감독들에 대한 인물자료와 생활소재들은 대체로 신문들에 실린 기사나 소문을 들어 일정한 파악이 있는것들이었다. 그런데도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작품의 모든 내용들이 처음으로 대하는 인물들의 생활소재들 같이 여겨 졌으며 문장 하나하나가 뜻이 깊어 주의 깊게 읽어 내려 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진 인물들의 생활소재를 가지고 실화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 자칫하면 독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을 들려 주게 된다. 더우기나 주체88(1999)년 8월 말 에스빠나의 남부도시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서 세계 《마라손녀왕》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정성옥선수에 대한 100만 수도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모습을 대서특필한 신문의 기사들과 실화, 수기, 그를 키워 낸 어린 시절 교원들, 체육선수단의 감독들에 대한 소개기사들로 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적지 않은 생활자료들을 알고 있는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소재를 가지고 사상에 예술적풍격이 높은 장편실화소설을 쓴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이 실화소설이 그토록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으로 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사소설, 실화소설은 다 실재한 인물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원형과 역사적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사실자료를 라렬한 기록식문학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작품의 핵인 종자를 똑바로 잡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 있게 그려 내고 있다.

작품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떠나는 정성옥을 배려하며 그를 육상선수로 선발하고 키워 주었던 신금단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길은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그 하나의 길뿐이야. 다른 길은 없이.》

주인공 정성옥에게 국제경기에서 패권을 쥐는 길만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것을 거듭 일깨워 주는 중요인물 신금단, 태병학, 애인 김중열선수의 높은 요구는 곧 작품의 사상적핵으로 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힘차게 구보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담은 시대의 부름이기도 하다.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서 1등하는것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작품의 사상적핵은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투쟁할 때 승리는 확정적이며 국제경기에서 패권을 쥘수 있다는 소설의 주제사상을 규정지으며 주인공 정성옥을 비롯한 긍정인물집단의 생활신조로, 성격적핵으로 되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정성옥에게 세계 《마라손녀왕》이 되게끔 마라손선수로서의 기술적자질을 지니게 하여 주는 신금단, 김창근감독들의 일관한 투쟁목표만이라도 상기해 보라.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명예도 안락도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인공 정성옥을 국제경기나 지역경기에서가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패권을 쥐게끔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시대 참된 주체형의 인간들임을 잘 알수 있다.

신금단감독은 정성옥선수를 압록강체육선수단에 선발하여 받아 들인 스승이다. 그는 정성옥선수를 유망한 육상선수로 키우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쓴다.

달리기할 때의 몸자세가 부자연스럽다고 하여 한가지 동작을 매일 1만번이나 반복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그것이 잘 수행되지 않자 동작이 원만해 질 때까지 그와 함께 땀을 흘리며 직접 동작해보이는 신금단감독, 훈련의 보람으로 3,000m 중거리국내경기에서 패권을 쥘수 있는 높은 수준에 뛰어 오른 정성옥선수를 마라손선수로 지목하고 김창근감독에게 넘겨 주는 신금단감독.

사실 한 선수를 국내선수권보유자로 키웠다는 오직 그 한가지 《공적》만으로써도 사업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것은 그 길이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는 길이 아니였기때문이었다.

이렇듯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는 국가종합팀에서 정성옥선수에게 마라손훈련을 주던 김창근감독에게서도 찾아 볼수 있다.

그는 정성옥선수를 맡아 국내경기와 지역경기에서 맹활약을 하는 우수한 마라손선수로 키워 놓고도 이 선수에게 부족한 속도인내력을 배양시키자면 자기보다 태병학감독에게 맡기는것이 더 좋겠다는것을 간파하고 서슴없이 그 길을 택한다.

그 길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평가나 명예보다 《다만 한가지 훌륭한 선수를 키워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외의 모든것을 단념하는 참된 양심이 가리키는 길이였다.

이와 같이 국제경기에서 패권을 쥐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은 작품에서 주인공 정성옥을 비롯한 긍정인물집단에 속한 중요인물들의 주도적인 성격특질로서 이들의 생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다.

작품에서는 경기성파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신념의 소유자들을 긍정인물집단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조선사람의 체질로써는 육상경기에서 세계패권을 쥘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마라손선수로 국내에서나 이름을 날리고 국제경기에 나가 세상구경이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일찌기 시집을 가버린 오복실선수와 나이가 되자 감독자리도 내놓고 집에 들어 와 한가하게 여생을 보내는 김영민과 같은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인물집단으로 대치시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의의 있는 종자를 명확히 잡고 그에 기초하여 주인공과 중요인물들의 성격, 인물들사이의 관계, 사건, 갈등, 이야기줄거리와 같은 형상의 기본요소들이 다 종자해명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는 훌륭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쳐게 됨으로써 소설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었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중요한 원인은 또한 마라손주도로 달리는 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영역에 주인공 정성옥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중요인물들의 생활자료를 시공간상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인입》시켜 이야기를 한곳으로 퍼나가고 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이 한 시대를 구획짓는 이러저러한 인간들의 성격발전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하여 시간

상 장구한 기간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순서 있게 펼쳐 보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야기의 결면에 흐르는 시간은 짧게 하면서도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인물들의 과거와 현재의 이러저러한 생활자료들을자유롭게 끌어다 형상해 내는 구성형식은 현대장편소설분야에서 개척된 새로운 구성형식이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이야기의 전개방식에서 적지 않은 장편소설들처럼 인간생활을 순서 있게 《친질하게》 서술한것이 아니라 중요인물들의 생활자료와 사건들을 현재의 짧은 시간에 펼쳐 지는 이야기에 포함시켜 속도감 있게 중점적으로 그려 낼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영화문학 《혁명가》를 비롯한 최근 우리 나라 영화문학창작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소설창작에도 적지 않게 시도되고 있다. 문제는 장편실화소설 《결승선》이 이 새로운 구성형식을 받아 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새로운 구성형식 개척에 이바지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과거를 현재속에 동시에 파악하고 융합시켜 표면에 나타난 시간을 마라손달리기시간으로 한정시키고 그대신 내면의 시간을 확대하여 특별한 사건줄거리가 없이 인물의 회상장면을 펼쳐 이야기의 흐름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 소설의 구성상 특성이며 혁신적성파라고 말할수 있다.

실제상 작품에는 현재의 기본이야기에 과거생활에 대한 회상이 한데 엉켜 있는것으로 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며 펼쳐 지고 사건이 아니라 인물들의 회상장면이 위주로 되는 형상기법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엮고 있다. 때문에 작품에는 현재의 이야기에 과거의 회상이 한데 엉켜 있으나 현재의 이야기는 과거의 회상을 엮기 위한 계기성을 조건지어 주면서도 작품의 기본문제성을 해명하는 중심에 놓이고 있다.

만약 이 작품에서 시간순차성에 따라 이야기를 엮었다라면 매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각각 한정되어 일관한 인간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였을것이고 이야기가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따라 토막토막으로 구분되어 이어 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라면 작품의 중심사건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마라손녀왕》으로 되는 이야기는 구성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빈약한 지위》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작품의 종자를 심고 가꾸어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성형식을 탐구도입함으로써 일관한 인간관계로 이야기를 엮으면서도 주인공 정성옥의 형상을 여러 모로(지어 애정류리문제까지 포함하여) 그려 보

일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이 작품의 예술적기교의 높이가 있다.

소설에는 주인공 정성옥이 에스빠냐의 남부도시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 참가하여 그곳 시간으로 아침 9시(평양시간으로 오후 6시)에 소문없이 조용히 경기장을 출발한것과 때를 같이 하여 그의 애인인 김중열선수가 지방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는 매부를 돕기 위해 마라손주로만 한 평양 시내 거리를 달리는 이야기를 대조시켜 구성을 흥미있게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주인공 정성옥의 성격형상을 애정윤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자료로 기쁨지게 그려 낼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술적흥미를 더 돌굴수 있게 한 측면에서 평가할수 있으나 그것이 큰 혁신적 성과로 논의될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구성형식의 개척에서 거둔 혁신적성공을 보충할뿐 그와 대등한 높이에서 그 성과를 언급할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줄거리에 대조시켜 하나의 복선적위치에 놓인 작은 이야기를 흥미있게 끌고 나간것은 이채를 땀다. 아름다운 화원에서는 눈에 띄이지 않던 수수한 꽃도 그 조화미로 하여 곱게 보이는 법이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작가와 인물의 심리와 내면독백을 위주로 펼쳐 나가면서 생활을 특색 있게 묘사한 데 있다.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수법은 인물의 심리적체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와 작가와 인물의 내면독백을 많이 펼쳐 주는 수법이다.

이 형상수법은 생활의 논리에 따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고 풍부하게 개방하고 생활의 본질과 작가의 사색을 보다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펼쳐 보일수 있으며 외형적인것보다 내심적인것, 현상적인것보다 본질적인것을 깊이 파고 들수 있다.

작품에서 정성옥이 일본의 이찌하시선수를 뒤에 떨구고 맨 선두에서 마지막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 단장으로 간 리철룡의 심리를 그린 한 장면을 인용해 보자.

《...리철룡은 자신만만하게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였다. 성옥이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는 지금 단순한 경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주체조선의 명예를 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결사의 싸움에 나선 전사는 승리의 만세를 부를 때에 비로소 웃는 법이다.

사람들이 앞에서 달리는 성옥이가 아니라 뒤에서 달리는 이찌하시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터찌클을 보고 불만스레 떠들 때 리철룡은 극도로 격

분하였다.

제7차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모터찌클들이 2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인도하였다는 대회력사에 없는 일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성옥은 혼자서 달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모터찌클도 무개차도 없었다. 그것들은 뒤에서 혼란에 빠진듯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저 혼란과 우왕좌왕은 조선의 돌진앞에 경악한 일본과 유럽의 혼란이었다. 그것이 리철룡에게는 성옥의 폭발적인 돌진에 놀래여 주로에서 황급히 비켜 선것처럼 느껴 지기도 하였다.

그래, 차라리 비켜 서라. 리철룡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에게는 인도도 보호도 필요 없다. 우리가 달리는 길에서 비켜 서라. 성옥아, 마음 놓고 달려라. 저런따위들은 돌아 보지도 말고! 너는 지금은 772번도 정성옥이도 아니다. 너는 조선이다. 구보로 달리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다. 너의 앞에서 길을 내주지 않을 자가, 비켜 서지 않을 자가 누가 있다더냐...》

보다싶이 중요인물인 리철룡의 심리를 통한 이 내면독백은 곧 작가의 주정토로이며 독자자들의 사상적지향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토막의 서사시적화폭이며 주인공 정성옥에 대한 우리 인민의 레찬이기도 하다.

정성옥이 경기 전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달리는 장면장면들, 중요인물인 단장 리철룡의 친구인 총련육상협회 부회장 배광명이 텔레비존화면에서 정성옥이 달리는 장면을 늦게야 발견하고 느끼는 내면독백의 장면 등은 작중인물의 심리와 내면독백이 정면에서 뜨겁게 그려 지고 작가의 사상적주장으로 높이 승화되어 펼쳐 진 기쁨진 생활화폭들이다.

이러한 형상기법은 혹은 주인공 정성옥의 심리를 명확하게 파고 들어 그리게 하기도 하고 혹은 지난 기간 그에게 있는 생활의 토막들을 회상과 회상의 연속, 지어는 두세번 반복《인입》시켜 뚜렷한 표상을 갖게끔 강조하여 그려 주게 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작품에는 공부정인물집단의 갈등이 첨예한 극성을 띠게끔 그려 지고 있지 않으나 국제경기에서 패권을 쥐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굳센 신념을 지니고 성장하기까지의 주인공 정성옥의 성격발전과정을 기대와 의혹, 좌절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 생동하고도 진실하게 느낄수 있도록 부정인물 오복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대조시켜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정성옥이 체육학원의 동창생이며 한때 자기보다 기록이 앞서 지역경기에 나갔던 오복실이 신념의 약자로 되어 자신의 운명을 제나름으로 평가하고 선수생활을 그만두고서도 그것을 합

리화할뿐아니라 성육이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자 《난 갈래.》 하며 말없이 자리를 뜨는 장면.

이에 대한 묘사가 사실상 이들의 사상적결렬로 독자들의 뇌리에 생동하게 자리 잡게 되고 이렇다할 외적인 갈등이 없이도 그것이 심각한 인간운명의 문제로 느껴 지고 있는것은 작품에서 이 장면을 오복실의 심리를 통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심리추구와 내면독백을 위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서도 필요한 장면에서는 지나간 일들을 거듭 연장시키는 반복의 수법, 대조의 수법을 능란히 활용하여 소설의 주제사상을 부각시키고 각이한 인물의 운명문제를 해명해 나가고 있다.

소설에서는 특히 주인공 정성육의 내면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가 애송하는 서정시 《나의 조국》과 《어머니》의 구절구절들을 합리적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세계록상선수권대회의 발전력사와 일화들도 작중인물들의 시점에서 인입하여 펼쳐 줌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작품내용의 뿔수 없는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장편실화소설 《결승선》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요인은 끝으로 체육인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경기의 승패를 단순한 육체적준비에 의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황판단과 결심채택의 정확성 그리고 담력과 의지의 강약에 의해 좌우되는것으로 깊이 있게 그려 낸데 있다.

이것은 작가의 깊은 탐구와 체험의 산물임을 잘 확증해 주고 있다.

주인공 정성육이 일본선수 이찌하시를 앞세우고 바짝 뒤따르며 《나는 너를 따라 가는것이 아니다. 물고 가는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부단히 심리적압박감을 주는 장면 그리고 그의 우월함을 제때에 간파하고 결정적순간에 앞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장면만이라도 상기해 보라.

참으로 작품에서는 정성육선수가 경기 전 과정에서 속도인내력의 특기를 잘 살리고 사상전, 투지전을 벌려 세계강자들을 누르고 세계 《마라손녀왕》으로 되는 과정을 체육인들만이 감수할수 있는 경기심리의 움직임속에서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이밖에도 소설이 거둔 성과는 지성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문장구사와 언어형상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야기할수 있을것이다.

소설은 구성능력이 비교적 높고 체육인의 생활체험이 오래며 장편소설 《월계관》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생활을 그린 여러편의 장중편소설창작으로 문단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는 작가 김덕철과 생활묘사를 박력 있게, 모가나게, 속도감 있게 하는데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작가 한웅빈의 집체적탐구와 사색의 산물로서 작가들이 창작에서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합치면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가를 실물로 보여 준 모범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창작의 성과를 두고 서로 상대방의 우점을 내세우는 이들의 성실하고도 겸손한 창작윤리와 고상한 도덕적품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 작품의 창작을 통하여 희망찬 새 세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작가들이 성심성의로 서로 창작에서 지혜를 합치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창작에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와 요구를 제기하고 앞으로 내달리라. 보다 대담하게 착상하고 현실적안목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이것은 창작실천상의 요구이기전에 명작창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애 쓰고 있는 우리 작가들에 대한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대동강

(총련)김두권

대동강에 안개 흐른다
안개사이로 해빛이 스며 든다

언제 봐도 내 마음 즐겁고
어느 때 걸어도 발목이 시도록 걷고파라

화강석계단에는
낙시질하는 늙은이로 메워 지고

희게 뻗어간 유보도엔
청춘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늘어 진 버들가지에
피꼬리 운다

양산도가락에
유유한 흐름은 춤을 추는듯

꺼질줄 모르는 주체사상탑의 해불은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여라

용용히 굽이치는 흐름
이국의 시름 말끔히 싣고 흘러 가네

버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장원준

나의 동요

내가 건너 갈
시내물의 징검돌은
어머니예요

내가 넘어 갈
산언덕의 오솔길은
아버지예요
...

하나, 둘...
내 밤별을 세어 보면
파아란 꿈 하늘아래 아버지 불러 주던
어린 날의 그 동요!

지금도
입속으로 가만히 부르며
파도 사나운 날바다우에도 그 징검돌은 놓이고
가파론 벼랑우에도
길이 열리는...

아! 나의 동요
부르고 부르다 목이 쉬이면
가슴을 헤치고 심장으로 부르며 살
한생의 노래-
정녕, 그날의 그 동요로부터
조국의 노래는 시작되는것 아십니까!

어머니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여
바늘귀를 꿰기도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하얀 실끝을
자꾸만 부비면서도
나에게 도와 달라는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웃들은 어머니 일손을 도와 드리라고
안타까이 타이르는 모양입니다

내 어린 날의 동무들도
학교시절의 선생님들도
자식된 도리를 깨우쳐 주는 모양입니다

아!
얼마나 많은이들이
나에게 사람구실하는 법을 배워 주었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충의에 대해서도
조국과 혁명을 위한 대바른 인생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치마폭에 손주녀석이 감겨 도는 오늘까지
말없이 실을 꿰고...

아버지의 군복설을 여며 주던 그 고운 손으로
지금도 이 아들의 작업복을 집고 계실 때
바늘끝을 문다지는 그 백발이 이 가슴을 칩니다

아, 정녕 나는
한생을 깡그리 다 기울여 주고
그 사랑의 값을 말하지 않는 어머니앞에-

그 사랑의 한생을 채여 볼 눈금이 없고
그 사랑의 무게를 달아 볼 저울이
이 세상에 없음을 뜨거이 깨닫습니다

버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질은 록음빛속에
나는 지금 강녘의 버들 하나를 쓰다듬는다
살 짓는 여울물을 바래우며
땅속에 뿌릴 묻고 썼는
너, 버들아!

무슨 이야기 그리도 하 많이 속삭이느뇨

좌좌-
째도 없이 소용치던 장마철 큰 물에
이 강반, 이 흙이

아프게 씻기우며
너를 품고
애오라지 너를 키운
그 나날 읊조리는거냐, 내 맘에도 기쁜...

낮이면
먼 곳의 해별이 수고로이 내려 앉아
네 몸을 어루만졌고
밤별은 고요히 자장가 불러 주었네
부드러운 바람 네 머리를 빗겨 주며
꼭게도 키운 딸 같은 나무여!

어머니 땅이 푸른 젖을 물려 주고
차디찬 눈비속에
너를 꼭 껴안아 살찌워 줄 때
그 품을 더 파고 들며
너는 해빛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지...

그 사연 속삭이느냐

목 겨운듯 좌좌- 만겹잎새 흔드는 버들아!
이제는 무성한 네우에
물녘의 새들도 보금자리 트느라 바쁜데
오늘은 더 힘껏 이 땅을 그러 안았구나
그 억센 뿌리로
이 강반
이 흙
다시는 그 어떤 물결에도 씻기우지 않게...

아 내 진정
너의 그 정다운 설레임속에서
키워준 땅에 바치는 순정의 노래를 마냥 듣는다
한생을 푸르름 펼쳐 들고
어머니대지에 아름다움 보람하며
꺾여도 꺾혀도
이 기슭에 뿌리를 묻고 섰는
너, 버들아!
나의 인생아!

세계의 신천이다

박천걸

말로만 들어 온 조선의 신천땅
나치스의 오슈벤쥬도 전룰할
피의 참상 피의 참극앞에
피부색 이 서로 다른 얼굴들에게도
경악과 분노는 감출수 없구나

벗들이여
그대들 비록 평화론 땅에서 왔다지만
새겨두라 그 푸른 눈동자에 영원히
그리고 안고 가라
제 혈육들의 아픔처럼 아픔처럼

우리는 자그마한 복수도
남에게 부탁하지 않는 강의한 사람들
하물며 하늘에 서리서리 사무쳐
천추만대에도 아물지 않을 이 상처
천추만대를 갚아도 다 못 갚을 복수인데야

신천의 이 피값 하나만으로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채로 박살내야 할
우리는 한많은 복수자들
하건만 벗들이여
미체가 이 땅에서만 야만이었던가
무심한 바람조차 심장을 달구는
여기 신천의 참상앞에
인류의 량심은 똑똑히 각성하라

그레네이더와 빠나마를 깔아 몽겐

무한계도의 사나운 발톱은 무엇을 보여 주었던가
페르샤만기슭에 일어 번진 검은 해일과
아름다운 발칸반도를 폐허로 만든
무서운 폭음과 죽음의 불기둥은 무엇을 말해
주었던가

력사는 자기가 번지는 갈피갈피로
현세와 후세에 남기는 값비싼 교훈이 있나니
미체는 어제와 오늘도
피를 즐기는 가장 포악한 흡혈귀
조선인민만이 아닌
온 인류의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

그 야만의 무리 마지막 한놈의 그림자라도
이 행성우에 얼른거리는 한
벗들이여
그대 어디서건 부디 안식을 찾지 말라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들
오늘도 래일도 신천의 또 다른 참극을 꿈 꾸고
있나니

그대 귀여운 아기의 눈동자가 보물 같거든
미체를 증오하라
민족의 평화가 귀중하고
조국의 래일을 사랑하거든
미체를 증오하고 또 증오하라
신천은 조선의 신천만이 아닌
오 세계의 신천, 신천이다

미래

엄성영

내가 출장지에서 돌아 와보니 덩지 큰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 선 통일거리 초입구에서 강남군으로 나가는 도로교차점에 대형구호가 새로 세워 졌다.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자!》

글자 하나하나가 대문짝 같은, 길이가 10m 도 넘는 이 대형구호에 대형화판이 결달려 있다. 두 손은 비록 철쇄에 묶이웠어도 《조선혁명 만세!》를 높이 부르는 항일혁명투사와 채탄기를 억세게 틀어 잡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을 지켜 선 탄부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는 구호의 의미를 더한층 부각시켜 준다.

해가 바뀌고 세기가 교체되면서 세워 진 이 대형구호는 래왕이 잦은 사람들의 눈길을 유난히 끌고 있었다. 휘날리는 붉은기폭우에 새겨 긴 청봉체의 힘찬 글발때문인지? 아직 잉크냄새가 채 가서 지지 않은, 색이 바래지 않은 새 구호여신지?

아니다. 보다는 이 구호에 우리 삶의 목적과 지향, 포부가 그대로 담겨 저 있기때문인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문득 출장지에서 만났던 김충식 연구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통키에 보통체구, 회색회색한 귀밑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 어디에서나 흔히 만나볼수 있는 그런 류형의 사람이었다.

과수부문에서 울되고 수확성이 높은 새 품종의 사과나무모를 얻어 냈다는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을 듣고 내가 부랴부랴 김충식연구사를 찾아 갔을 때 그는 시험포전에서 사과나무의 가지를 다듬어주고 있었다.

《정말 큰 일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찾아 온 용건을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물었다.

《육종이란 일생동안 성공하지 못할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무슨 힘이냐구요? 당에서 그걸 요구했으니까요.》

나는 범상한 그 대답에 가슴이 몽클했다. 1년생작물도 아닌 다년생 과수육종사업이 얼마나 어렵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터였다.

나는 그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고심어린 탐구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취

재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학술상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어서인지 다른 사정때문인지 딱히 알수 없으나 나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너무 섬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한 나무모를 얻어 낸건 사실이지만 서둘러 소문이나 내고 자량을 펴서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려면 아직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을 넘겨다 본 연구사의 말에 나는 다시한번 가슴이 몽클했다. 땀방울에 비낀 그의 소박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것인가!

내가 돌아 오는 길에 기차칸에서 만난 김정수 산림감독원도 그런 사람이였다. 양덕고개를 넘어선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 50고개를 바라보는 중년의 사나이가 큼직한 배낭을 메고 오르며 이마에 흥건히 내배인 땀을 수건으로 닦았다. 배낭속에 든것은 창성이깎나무씨앗이라고 했다. 내가 그 씨앗의 덕을 언제 보겠는가고 롱말로

문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에 흘린 땀으로 오늘에 덕을 볼것만을 바라지 않는게 산림감독원들이지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후대들이 무성하게 자란 산림을 보면서 우리를 고맙게 생각할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싶지요.》

그는 한두해 산림을 조성해 보니 걸리는것이 나무모였다는것, 먼 곳에 있는 나무모밭에서 가져다 심은 나무모의 사름률이 높지 못했다는것, 자체의 힘으로 나무모를 키워 낼 결심밑에 돌격담을 들어 내어 수천평의 나무모밭을 일구었다는것, 여기에 빨리 자라고 쓸모 있는 창성이깎나무씨앗을 묻으려 한다는것이다.

래일을 위하여 오늘에 값 높은 삶을 바친 사람들중에는 수리동력대학 교원이였던 임봉린박사도 있다. 그는 나이도 많고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것을 알면서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위하여 한초한초 시간을 아껴 가며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집필하였으며 과학기술자료들을 발표하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할 미래를 위해

자기의 성실한 땀과 지혜를 바쳐 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라!

래일은 오늘보다 더 휘황찬란하며 광명한 래일을
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미래관이다.

시련은 일시적이고 승리는 영원하며 고난의 천
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에 류례 없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고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고
계신다.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 몇해동안
우리 인민이 얼마나 큰 일을 해놓았는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허리띠
를 졸라 매고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현대
적인 공장들, 가금기지들, 간고분투하여 제 힘으
로 건설한 수많은 발전소들과 양어장들, 소금밭
들, 천지개벽한 논밭들...

미래, 광명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
는것, 여기에 바로 우리 인민의 참된 삶이 있고
진정한 보람이 있는것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빛나게 살기를 원한
다. 호의호식하며 향락을 누리는 인생이 결코 값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 조국은 어떻게 되
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의 기생충, 숨을 쉬어도
산다고 할수 없는 가련한 목숨이다. 이런 사람
에게는 삶의 리상과 포부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것이 아름답고 빛나는 삶인
가?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
신의 안락과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보다 광복된 조국을, 그 땅에서 이
세상의 반복을 다 누리며 살아 갈 부모형제들,
후대들을 먼저 생각하며 손에 무장을 들고 혈전
의 길에 스스로없이 떨쳐 나섰던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사랑하라!》라는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광복된 조국의 미래와 후대들의 행복을 앞당기
기 위하여 불사신같이 싸웠다. 원수들에게 두눈
을 빼앗기고도 단두대우에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
다고 웨치며 놈들을 전률케 한 항일혁명투사 최
희숙동지,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단두대의 이슬로
바치면서도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참된 인간이
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떨친 유명, 무
명의 영웅전사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리수복영웅,

그는 광복된 조선의 청년이었다. 그에게는 생명
도 귀중했다. 자기의 희망도 미래도...

하지만 리수복영웅은 돌도 없는 생명과 청춘,
자신의 희망과 행복 그 모든것을 무궁번영할 조
국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하여 기꺼이 아름답게
바치였다.

조국이 잊지 않고 사랑하는 김창걸, 강호영, 조
군실, 리태훈, 신기철, 박원진영웅들도...

이들의 삶은 오직 조국의 미래와만 잇닿아 있
었다. 미래를 떠난 삶, 자기자신만을 위한 삶이었
다면 이들이 어찌 오늘처럼 영생의 언덕에 높이
올라 설수 있으며 값 있고 참된 삶으로 자랑 떨
칠수 있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워 주신 우리 시
대의 영웅들을 보라! 그들의 심장은 오직 무엇을
위해 고동쳤는가?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반드
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그 하나의
열망으로 가슴 불 태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고 펼치
여도 조국의 미래를, 자신보다 후대들을 먼저 생
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빛나
는 삶이 아니겠는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이 위대한 현실에 살면서
시대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면 그런 삶
을 무슨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며 그런 인생을 어
찌 빛나게 살았다고 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정녕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은
생활은 보람찬 법이다. 나라의 현존경제토대를
정비하고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진하기
위한 사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현대적인
축산기지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 실로 그 어느
하나도 조국의 튼튼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
한 성스럽고 보람찬 사업이 아닌것이 없다.

더 많은 일을 하자! 더 많은 땀을 흘리자!

진정 새 구호에는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과
조국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에 대한 뜨거운 자각
이 있고 삶의 확고한 목표와 아름다운 리상이 있
으며 자신의 존엄에 대한 당당한 자부가 있는것
이다.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 낸 사람들, 사리와
공명, 변심을 모르고 래일을, 미래를 위해 묵묵히
땀을 바쳐 가는 사람들, 이런 뜨거운 심장들의
맥박이 하나로 이어 졌기에 내 조국의 아름다운
하루가, 빛나는 한해가 마련되는것 아니랴! 어제
와 다른 오늘이, 오늘보다 더 높이 솟아 빛날 강
성부흥의 래일이!...

나는 승엄한 생각에 젖어 든채 마음속으로 다
시한번 구호를 읽어 보았다.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자!》

토양

라광철

1

달빛이 엷은 창가림사이로 안개발처럼 고요히 흘러 들었다. 깊어 가는 밤의 정적, 삼라만상이 숨을 죽인듯 하다. 고즈넉한 방안은 진공상태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정태영은 잠들수가 없었다. 그는 모포를 훌 밀어 제끼고 일어나 앉아 탁상등을 켰다. 그리고는 모든 상념을 쫓아 버리려는듯 책을 펼쳐 들었다. 그러나 글자들이 도글도글 굴러다니며 숨박꼭질했다. 생각은 여전히 낮에 있었던 일들로 착잡하기만 했다.

태영은 광산의 생산정상화에서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마광기의 고무안불임을 대담하게 기술혁신하려고 하였다. 쇠돌과 무쇠뿔들이 서로 부딪쳐 들부서 지며 돌아 가는 집채 같은 원통식마광기안벽에 끄떡없이 붙어 있어야 하는 고무안불임은 그 지구, 장비들만 하여도 수십톤에 달하였다. 지금껏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곤 하던 이 고무안불임을 자체로 만들어 보자고 태영이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극 지지해 나섰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자 여기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머리를 기웃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다른 대책안을 내놓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쓰고 있는 고무안불임의 수명이 이제 석달밖에 남지 않은 조건에서 당면한 생산을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졸라 매더라도 또 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오늘 책임일꾼들이 참가한 협의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태영은 이제 남은 석달동안에 꼭 새로운 고무안불임을 만들어 내겠으니 마지막까지 밀어 달라고 호소했으나 그들을 크게 공감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아직 안 자느냐?》

이미 잠든줄 알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래방에서 들려 왔다.

《예, 좀 있다 자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리며 아버지가 옷방으로 올라 왔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 설 때 벌써 태영의 얼굴에 비친 그늘을 보고 무엇인가 묻고 싶어 하던 아버지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

피곤하여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이 부르터 있는 태영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아버지가 물었다.

태영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년로한 아버지에게

불유쾌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에 할수없이 오늘 협의회에서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한듯 길게 심호흡을 했다.

태영은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고 곧 후회했다.

《아버지, 더 아프세요?》

《아니 일 없다. 요새는 새로 온 그 담당의사처너가 가져다 주는 약을 먹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아버지는 근심스럽게 쳐다보는 태영을 안심시키려는듯 자신의 병세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태영의 눈앞에 집에 왕진을 오곤 하는 처녀의 사의 가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처녀를 이미전부터 알고 있었다. 태영이 제대되어 광산금속대학에 다닐 때 그 처녀는 의학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이들이 서로 알게 된것은 도 대학생체육경기때였다. 탁구경기에 출전한 태영은 혼성복식경기를 의학대학선수들과 맞다들게 되었다. 경기는 시작부터 광산금속대학 선수들이 우세를 보이였다. 승리는 확정적이였다. 주심은 농업대학 학생이였다. 통투무례한 얼굴에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주심석에 앉아 있는 그도 승패는 뻔하다는듯 흥심없이 썸세기를 했다. 그러다가 그만 썸세기를 한점 잘못하였다. 17대 11을 18대 11로 잘못 불렀던것이다. 그러자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 졌던 의학대학선수들이 경기가 편심이기때문에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마음이 어진 주심은 얼굴이 벌개서 어쩔바를 몰라 하며 이마만 슬슬 쓸어 만졌다. 그러자 태영은 여유작작한 태도로 웃으며 한마디 했다.

《그럼 우리가 좀 수고를 해주는셈 치고 다시 해봅시다.》

그 말에 곱살하게 생긴 의학대학처녀선수가 태영을 쏘아 보았다.

《우린 공정성을 바라는것이지 선심을 바라는것은 아니 예요!》

태영은 그의 열 띤 눈빛에 부딪치자 그만 순간에 주눅이 들어 버렸다. 그 눈빛은 격분해 하는것 같기도 하고 억울해 하는것 같기도 하고 야속스러워 하는것 같기도 했다.

태영이 뭐라고 한마디만 더하면 그 처녀는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것만 같아 그는 감히 아무말도 못했다. 그는 왜서인지 점점 온몸이 굳어져 탁구도 제대로 칠수가 없었다. 결국 혼성복식

경기는 예상외로 광산금속대학이 패하고 말았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처구니 없었다. 상념에서 깨어 난 태영은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일종의 피로움이 비껴 있었다.

《음, 끝내 그것때문에 광산이 진통을 겪는구나.》

년로보장을 받기전까지 광산에서 기술일군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마광기의 고무안불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전에 아버지는 영구자석에 의한 고무안불임을 연구했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것을 수입품인 생고무를 주원료로 하다 보니 실리가 잘 맞지 않아 그저 시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적성파만 보여 주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태영은 그 실패를 참작하여 실리가 나게 광산에 혼한 재생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있었다. 골조형울림대에 의한 이 고무안불임은 그 착상과 방법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데는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사실 일부 일군들이 지금까지 적지 않은 기술자들이 성공하지 못한것을 기술경험도 어리고 나이도 젊은 그가 해낼수 있겠는가고 도리머리를 젓는것도 일리가 없지 않았다.

태영이도 그럴 때면 손땀이 풀려 말겨 진 일이나 수직수직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자신을 대학으로 떠나보내던 전우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곤 했다.

《군사복무를 더 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구. 군사와 함께 과학을 중시하는것은 장군님의 사상이 아닌가. 그러니 태영동문 전선에서 전선으로 가는셈이지. 어디 가나 군인정신으로 한몫 든든히 하라구.》

태영은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 와 순간이나마 나약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자신을 다잡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어쨌든 끝까지 해볼 결심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윽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네 생각이 옳다. 새것을 창조하는것은 험치 않은 법이지.》

근심이 어려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그는 외아들로 행복하게만 자라온 태영이 이처럼 대바르고 강의한 인간으로 성장한것을 못내 기쁘게 생각하는듯 했다.

2

아침일찍 출근한 태영은 우선 여기저기 널려져 있던 공구들부터 거두었다. 휴계실의 구석구석에 묵은 먼지들도 물걸레로 말끔히 닦아내고 재털이도 털어냈다. 안팎을 깨끗이 거두어 놓으니 마음도 한결 더 정돈되는듯 싶었다. 그는 창문을 활 열어 제꼈다. 신선한 아침공기가 흘러

들었다. 창턱에 붙어 있던 빨간 고추잠자리 한마리가 깜짝 놀라 포르릉 아침해살이 눈 부신 햇빛속으로 날아올랐다. 불꽃처럼 날아 오르는 잠자리를 보는 순간 태영은 느닷없이 마음이 즐거워졌다.

《일찍 나왔구만!》

웅글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 보니 뜻밖에도 강민당비서가 들어 섰다. 밤새 생산현장에 있었는지 그의 몸에서는 발과연기가 습배인 쇠돌가구냄새가 물씬 풍겼다.

태영은 당비서가 이렇게 찾아 온것이 어제일때문이라는것을 직감하고 마음이 긴장해 졌다.

강민비서는 휴계실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으며 직관 물었다.

《태영동문 어제 왜 고무안불임을 사오는데 대해 반대했소? 확고한 담보도 없이 말이요?》

강민당비서는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힘으로도 해낼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증명해야지. 욕망만으로 과학기술적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지 않소?》

강민비서는 태영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한듯 미간에 주름을 세웠다.

《우린 지금까지 실패를 했지만 이 과정에 성공할수 있다는 확신은 더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점착제와 재생고무의 강도만 높이면 됩니다. 석달동안에 꼭 실패로 증명하겠습니다.》

강민비서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 지배인동무도 말했지만 석달동안에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소?》

《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강민비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 창가로 다가가 뒤집을 진채 동음소리가 은은히 울려 오는 선광장쪽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방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태영의 이마엔 땀방울까지 송골송골 내뿜었다.

《해낼수 있단 말이지?》

당비서는 태영을 돌아 보며 다시 물었다.

《비서동지, 어떻게든 꼭 해내겠습니다.》

태영은 절절하게 말했다.

《쫄소, 그럼 우린 동무들을 믿겠소!... 사실 지금 우리한테는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지요!》

강민비서는 태영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 말했다.

태영은 자기를 바라보는 당비서의 눈빛에 어려있는 크나큰 믿음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비 내리는 밤길에 불을 만난것처럼 온몸이 후더워졌다.

그는 그날부터 현장으로 침식을 옮기고 배심 있게 달라 붙었다. 강민비서는 현장에서 고급기능공들까지 동원시켜 주었다. 온 광산적인 관심

이 다시 고무안불임기술혁신조에 쏠렸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시험장을 찾아 왔다. 아버지가 몸이 더 불편해 한다는것을 알고도 집에 한번 들어 가보지 못하고 있던 태영은 현장에 나타난 아버지를 보자 놀랐다.

《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몸은 일 없다. 난 요새 생각되는것이 많구나. 지금 같이 온 광산이 들끓고 있는 때 나도 늙었지만 뭔가 해야 하지 않겠니.》

태영은 아버지가 앓는 몸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 있는 기술혁신조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온것을 알아 기쁘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저려 나기도 했다.

《제가 구실을 못해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할 아버지한테까지 걱정을 끼쳐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송구스러워 하는 태영의 어깨를 쓸어 만졌다.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내 수십년동안 기술일군으로 살아 온 지난날을 돌이켜 보느라니 자책되는바가 크다. 일찌기 우리가 당에서 바라는데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완성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진통을 겪지 않을게 아니냐.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해 오늘날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이 실리는 것만 같아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오늘 아침 보도를 들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 인민군부대를 찾으셨더군요.》

아버지의 갈린듯 한 목소리에 태영은 가슴이 뭉클해 졌다.

한동안 뜨거운 격정에 잠겨 있던 아버지는 시험장을 둘러 보며 물었다.

《그래 이것이 골조형 올림대틀이냐?》

《예!》

아버지는 기술자다운 안목으로 유심히 살펴 보았다.

《음, 그런데 이 볼트구멍은 왜 이렇게 째놓았나?》

《진동으로 틀이 움직일 때 볼트가 마모되지 않도록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음!》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면 여기 어간마다엔 골조를 해주는것이 어떠냐. 틀이 큰 힘을 받아도 휘여 들지 않게 말이다.》

손세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앓는 사람 같지 않았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철관을 가져 오너라.》

아버지는 웃웃을 베풀어 제끼고 망치를 집어 들었다.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지는 앉아서 지시만 해

도 됩니다. 담당의사선생도 안정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태영은 아버지의 망치를 빼앗으려고 했다.

《아니다. 나도 정신이 좀 맑아 지게 땀을 좀 흘려 보자꾸나.》

아버지는 망치를 힘껏 내리쳤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강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쨍, 쨍 울렸다. 아버지의 이마에서 인차 땀방울이 맺히더니 얼굴과 몸에서도 땀이 철철 흘러 내렸다. 불속에 들어 선 사람마냥 숨까지 헉헉 몰아 쉬면서도 망치를 손에서 놓으려 안했다. 쉬임없이 망치를 내리치던 아버지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아니, 아버지!》

태영은 가슴이 섬찟했다. 아버지의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흘러 내렸다. 태영은 급히 휴게실로 뛰어들어 가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다 상처 입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싸맸다.

아버지는 자기를 둘러 싸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젊은 기술혁신조원들을 둘러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일 없네. 어서 하던 일들이나 하라구. 이거 내 몸에서 죽은 피가 흘러 내리는 모양이요. 허허.》

태영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상처 입은 손을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손을 쓸어 만지던 태영은 어째선지 불현듯 까마득한 어릴적 일이 생각났다.

어느때였는지 그는 밤중에 들어 선 아버지에게 매달려 당장 땀을 깎아 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현현히 팔을 걷어 붙이고 톱과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들었다.

태영은 매일부터 땀이치기를 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아버지턱밑에 딱 달라 붙어 즐겁게 지켜보았다. 사룩사룩 귀맛 좋게 울리는 톱질소리, 거기서 보드랑게 흘러 내리는 향긋한 톱밥냄새가 코구멍을 간지럽혔다. 그때 태영은 그 냄새를 아버지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느꼈었다. 그후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어쩐지 때때로 그 냄새가 풍겨 오곤 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친근감이 가슴 가득히 차오르곤 했다.

원래 손재간이 무딘 아버지는 그날 땀을 뿔뿔 흘리며 땀을 깎다가 그만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피를 보자 태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듯 태영을 마주 보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분대를 감고 다시 땀을 깎기 시작했다.

태영은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알알하여 이제라도 그만 두자고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주머니에 있던 알사탕이 생각나 여전히 땀이깎기에 열중하고 있는 아버지의 입에 살며시 밀어 넣어 주었다. 아버지는 사랑을 입에 문채 태영을 정겹게 바라보며 흐뭇이 웃었다. 태영이도 한결 마

음이 홀가분해 저 함께 웃었다.

태영은 지금 어쩐지 파스한 집안에서 향긋하게 풍기던 그 톱밥냄새, 사룩사룩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던 톱질소리, 손가락에서 흐르던 피, 아무 일도 아닌듯이 싱긋이 웃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눈에 삼삼하게 안겨 왔다.

《아버님!》

태영은 난데 없는 처녀의 목소리에 짜릿한 행복의 추억속에서 깨어 났다. 뒤를 돌아 보니 담당의사처녀 옥주가 위생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아버님은 지금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쩐지 아십니까?》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터쳐 놓을지 몰라 가슴을 할딱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버지는 자기때문에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 온 것이 못내 미안스러워 어쩔바를 몰라 했다.

《의사선생두 참! 이거 정말 안됐소. 내 병이야 늙으면 그저 다 그런건데 여기까지 찾아 오다니, 난 이렇게 현장에 나와 바람을 쏘이니 다시 젊어지는것 같은게 더 좋구만, 의사선생! 내 심정을 좀 리해하라구.》

처녀의사는 아버지앞에 말없이 약봉투만 내놓았다. 그리고는 다친 손을 다시 처치하고 채 풀리지 않은 마음으로 현장을 나서며 태영에게 오금을 박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태영은 그를 바래우느라 구내밖까지 따라 나갔다.

《옥주동무, 정말 고맙소.》

그는 진정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지금껏 묵묵히 견기만 하던 옥주가 태영이 앞으로 돌아 서며 야속한 심정을 터쳐 놓았다.

《동문 병환에 계시는 년로한 아버지까지 현장에 불러 내야 하겠나요? 정말 너무하군요!》

태영은 그 무엇이라고 구태여 변명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 했다.

《그렇게 아니요.》

태영의 그러한 태도에 옥주는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듯 했다.

《나도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실패하면 동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리라는것도 말이에요. 그러니 동무 아버지가 가만 있을수 있어요?》

옥주가 쏘아 대는 그 말엔 태영이도 가슴속밀골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려 잠자코 있을수가 없었다.

《우리 아버진 기술자의 량심으로 도와 나선것이지 그 누구의 처지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요. 동무도 알겠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갔으면 국가의 귀중한 돈으로 또 사와야 하지 않소?》

《그거야 생산정상화를 위하여 사오는것인데 어찌겠어요?》

태영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한테 지금 그 한푼한푼이 얼마나 귀중한 돈이요? <고난의 행군>으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소중한 땀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피와 살 같은 돈이 아니요. 좀 더 고심분투하면 자체로 할수 있는것까지 험하게 사다 쓰려 한다면 기술자로서 무슨 체면과 량심이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불영어리처럼 달아 올랐다.

옥주는 갑자기 입이 열어 붙은듯 말이 없었다.

태영이에 대한 고까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던 옥주는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웅심 깊은 마음을 비로소 느끼며 자신이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한 그는 곧 량해를 바라듯 웃으며 허심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구 그 돈에 대해서도 그저 쓰면 되는것으로 단순히 생각했어요.》

옥주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태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의 돈에는 우리의 생활이 깃들어 있고 우리의 땀이 깃들어 있소. 정말 우리의 한푼한푼은 다른 나라의 억만재부보다 더 고귀한것이요.》

길센에 무리 지어 피어 난 코스모스꽃잎을 만지작거리며 태영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듣고 있던 옥주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를 보며 상긋이 웃었다. 대학생체육경기때 자신이 한마디 내쫓는데 주눅이 들어 어쩔바를 몰라 하던 그 모습이 인에 박혀 어질고 내성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태영에게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는것이 새삼스러웠다. 그때는 참 왜 그랬을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마음이 야릇해 지기도 했다. 그는 문득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모양을 보고 싶은 알망קות은 생각이 움터 났다. 그는 잠시 갑자르다가 새물새물 웃는 눈으로 태영의 얼굴을 뵈히 쳐다 보며 말했다.

《태영동무, 앞으로 동무한테 시집 가는 녀자는 1전 한푼도 마음대로 못 쓰겠군요.》

태영은 한순간 두눈을 깜벅거리며 얼머름해 있다가 허허 웃었다. 그리고는 시침을 뺀 따고 옥주의 익살에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렇수도 있지. 그런데 난 동무도 어쩐지 꼭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갈것 같구만.》

그러자 옥주는 불구경하러다 불에 덴 사람처럼 와들 놀라 태영을 겨누어 보더니 길센에서 한잎 두잎 따들고 있던 코스모스꽃잎을 활 그의 얼굴에 쥐여 뿌리고는 까르르 웃으며 달아났다.

《작쟁이!》

저만치 달아난 옥주가 뒤를 돌아 보며 소리쳤다. 불시에 꽃보라를 얻어 맞고 어정쩡해 있던 태영은 천진한 소녀처럼 들까불며 뛰어 가는 처녀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태영이 시험장에 돌아 오자 아버지는 지금까지 진행한 시험기록들을 들여다 보다가 눈길을 들었다.

《담당의사선생은 갔느냐?》

《예. 갔어요.》

《정말 괜찮은 처녀다.》

아버지는 감동 깊은 어조로 말했다.

《글쎄요. 처녀들 마음이야 어디 알겠어요?》

그는 괜히 이것저것 군손질을 하며 애매몽롱한 말을 중얼거렸다.

《허허. 그래? 그런데 네 목덜미엔 그게 뭐냐?》

태영은 목덜미를 쓸어 만졌다. 빨간 코스모스 꽃잎이 손바닥에 묻어 났다.

《하, 이거 바람에 날아 와 붙었냐?》

태영은 당황하여 동에 달지 않는 소리를 했다.

아버지는 실바람 한점 없는 창밖을 내다보며 히죽이 웃었다. 태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 지자 아버지는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태영아, 이젠 너도 장가 들 때가 되지 않았냐? 어디 친한 처녀라도 있으면 이 아버지도 한번 보자꾸나.》

《아버지두 참 지금 같은 때 무슨 장가소리에 요.》

《왜 말이냐? 어려운 때라구 사랑도 못하는줄 아느냐? 난 어쩐지 우리 담당의사처녀를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는구나.》

아버지의 엉큼한 생각에 태영은 자신의 가슴속에 도 은연중 즐거운 감정이 샘 솟아 오름을 느꼈다.

《난 그 처녀가 훌륭한 처녀라는것을 잘 안다. 언젠가 내가 뿔나무를 하려 산에 갔을 때 그 처녀는 휴식일인데도 담당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험한 산판에 약초를 캐러 다니질 않겠니. 의사로서 병원에 있는 약만으로 치료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말이다. 오늘 나한테 가져온 저 고려약도 자체로 만든 약이란단.》

태영은 옥주가 그런 처녀라는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 손에 그대로 쥐고 있던 코스모스꽃잎을 슬며시 입술에 가져다 댔다. 보드라운 촉감에 입술이 짜릿해 나는것 같았다.

《아버지, 이젠 그만 집에 들어 가 보세요. 아버지가 계속 현장에 남아 있는걸 알면 그 처녀가 아마 가만 있지 않을거예요.》

《그 처녀가 무섭냐?》

아버지는 태영을 마주 보며 웃었다.

《무섭기야 뭘, 아버지때문에 그러는것이지요 뭘.》

태영은 코스모스가 묻어 있던 목덜미를 슬슬 쓸어 만지며 따라 웃었다.

《허허. 일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낫는 법이란단. 그런데 이제 재생고무의 강도를 어떻게 높이려 하느냐?》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여러 차례의 시험자료들을 보고 걸린 문제들의 해결방도들을 물었다.

《고무안불임속에 강심줄을 넣고 열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럴듯 해. 그렇게 해서 열처리만 잘하면 될것 같구나.》

아버지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 섰다.

《지금 있는 저 증기로의 압력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5기압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7기압까지 올릴수는 없느냐?》

《안전수치가 5기압까지입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무슨 생각에 잠겨 화학분석표들을 들여다 보았다.

《다음번 시험은 언제 할 예정이냐?》

《다음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너는 점착제를 하루빨리 완성해라. 난 재생고무의 강도를 높일수 있는 방도를 좀 더 연구해 보겠다. 그 문제에선 내가 너보다 더 파악이 깊을게다.》

태영은 아버지께 대한 고마움에 병색이 짙은 얼굴을 뜨거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3

태영은 실험대앞에서 잠박 졸았다. 밤이 깊은 모양이다. 밤교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 왔다. 공무직장에 갔던 아버지는 아직 돌아 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벽돌자루처럼 무거워 진 몸을 의자에서 일으켜 창문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켰다. 밤이면 벌써 선기가 돌았다. 그는 정신이 버쩍 들게 찬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검푸른 하늘에는 애기눈 같은 초롱초롱한 별들이 무수히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별무리를 보자 태영은 졸음이 싹 가서 졌다. 언제 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유혹과 희망을 속삭여 주는 별들이다. 그는 옛 사람들이 자기의 행운을 저 별무리속에서 찾아 보았다는 옛이야기가 생각났다. 과연 내 운명의 별도 저 별무리속에 있을까? 태영은 미신적인 허망한 생각에서보다 수억년 빛을 잃지 않고 태양계를 돌고 있는 저 별들처럼 자신의 운명도 빛내이고 싶은 열망에 자기의 별을 정하고 싶었다. 그는 별무리속에서 유난히도 밝은 별을 보았다. 그 별은 움직이고 있었다. 저건 무슨 별일까?!... 그는 문득 저 별이 우리의 위성 《광명성》이 아닌가 싶었다. 가슴이 느닷없이 높뛰었다. 태영은 분명 그 《별》이라고 믿었다. 그는 심신을 사로잡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한밤의 교요를 깨뜨리며 만세를 부르고 싶었다. 우리의 주체과학으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우주에 새기며 이 행성을 돌고 도는 《광명성》! 태영은 금시 자신도 거인이 되어 우주로 날아 오르는듯 했다.

《똑! 똑! 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태영은 상념에서 깨어 났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뜻밖에도 옥주의사가 들어 섰다.

《안녕하세요?》

《아니, 옥주동무가 밤중에 웬 일이요?》

태영은 위생가방을 메고 웃으며 들어 서는 그를 보자 한순간 꿈이 아닌가 했다. 옥주가 들어 서자 고무냄새와 시약냄새만 풍기던 시험장에 싱그러운 숲향기가 흘러 넘치는듯 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내가 못 올데를 왔는가요?》

그는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이 밤중에 동무 혼자 무섭지도 않소?》

태영은 처녀의 별빛 같은 눈동자를 마주 보며 물었다. 그제야 옥주는 이마에 돋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호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태영은 얼른 휴게실에서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호곡굽이를 지나올 땐 막 호랑이울음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지 않겠어요?》

《저런 큰 일 날번 했구만!》

태영은 겁에 질려 종종걸음쳤을 옥주의 모습을 그려 보며 웃었다.

《호호. 난 정말 겁쟁이지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공무직장에 갔는데 이제 오실게요. 그런데 이 밤중에 어떻게 현장에 다 나왔소?》

옥주는 의문이 가득 실려 바라보는 태영의 눈빛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사실 동무 아버지가 현장에 계속 나와 있는것이 안심치 않아 <신소>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아세요? <동문 전신라면 어떻게 하겠소? 환자들까지 용약 전선으로 달려 나갈 때도 후방에서 혼자 안타깝게 눈물만 흘리고 있겠소? > 하지 않겠어요. 호호.》

옥주는 뒤집까지 척 지고 방안을 거닐며 그 누구의 흉내까지 냈다.

《누가 말이요?》

태영이 눈이 동그래서 따져 물었다.

《누군 누구겠어요. 당비서동지지요! 그러면서 비서동지는 동무 아버님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질데 대한 명령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로병인 동무 아버님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는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값진 약들을 꺼내 놓았다.

태영은 가슴이 찌르르해 졌다. 그는 목이 짝 메여 아무 말도 못하고 옥주가 가져 온 고가약품만 바라보고 있었다. 옥주는 자기앞에서 끓어 오르는 걱정을 간신히 다잡고 있는 태영의 기분을

전환시키려는데 웃으며 말했다.

《동문 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젠 그만하고 이걸 좀 맛 보세요.》

옥주는 위생가방에서 노랗게 삶은 풋강냉이를 꺼내놓았다. 그러던 옥주는 무슨 생각에 제 이마를 가볍게 탁 쳤다.

《아이참, 내 정신 좀 봐. 태영동무에게 책을 전해 주라고 하던것을 깜박 잊었됐군요. 자요. 인민대학습당에 부탁해서 가져 온 책이래요.》

책을 받아 든 태영의 눈이 번쩍 빛났다. 현대 고무공업기술을 집대성한 책이었다. 태영은 너무 기뻐 옥주의 두손을 꼭 잡아 흔들었다. 손목을 잡히운 옥주의 얼굴이 발갛해 졌다.

《정말 고맙소!》

《아니, 저야 심부름을 했을뿐인데.》

옥주는 흥분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태영의 열띤 눈빛에 갑자기 잦아 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마주 보기만 했다. 야릇한 침묵속에 선광장의 동음소리만이 기운차게 우렁 우렁 울려 왔다.

4

큰 기대를 걸었던 시험이 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전처럼 틀에 붙인 고무접착이 떨어 저 나간 것이 아니라 고무안붙임이 강도시험에서 찢어 저 나갔던것이다. 결국 접착은 성공이었다. 문제는 재생고무의 강도를 높이는것이였다.

《역시 열처리가 문제구나!》

찢어 저 나간 고무안붙임을 지그시 쏘아 보던 아버지의 눈빛에 열기가 번득이였다. 그는 그 어떤 생각에 미쳤는지 뒤집을 꼭 쥐고 시험장을 오락가락했다. 무엇인가 묻는듯 한 태영의 시선에 마주 친 아버지는 남 모를 일을 하려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 하더니 느슨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래일은 일요일인데 하루 좀 쉬자꾸나. 휴식을 해본지도 꽤 오래지?》

태영은 한순간 의아해 졌으나 병색 깊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지금껏 너무했구나 하는 송구스러운 생각에 머리가 숙여졌다.

《예. 아버지 이젠 좀 쉬세요. 우리야 일 있나요? 우린 성공할 때까지 견디어 낼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쉬지 않겠다. 아까 비서동지도 휴식을 좀 하라고 말하지 않더니. 래일 시원히 강변에 나가 심신의 피로도 좀 가시고 나면 아마 좋은 방법도 나질게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일만 일이라고 하면 안되느니라.》

태영은 지금 형편에 휴식을 한다는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하도 타이르는데 못이겨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아버지도 래일 우리와 함께 갑시다.》

《아니, 난 집에서 쉬겠다. 젊은 사람들이 노는데 늙은이가 끼우면 재미가 없어.》

아버지는 미소를 띄우고 태영의 얼굴에 묻은 고무검댕이를 목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이튿날 태영은 기술혁신조동무들과 함께 풍치수려한 강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버드나무도 흥겨워 흐느적이고 새들도 그들을 반겨 지저귀었다. 그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자연의 향수를 한껏 느끼었다. 우거진 나무그늘아래서 맛보는 어죽 또한 비길데 없는 진미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내가 여기 태여났고 자라나는 곳

그 누군가 벌써 건드려진 소리로 가슴가득 차오르는 환희의 감정을 터쳐 놓았다.

태영은 나무밑동에 기대어 앉아 무성한 나무잎새사이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햇빛을 황홀하게 쳐다 보았다. 자연의 향취가 가슴가득 흘러 들수록 그는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간절해 졌다.

(아버지도 함께 왔으면 정말 좋았을걸!)

태영은 지금껏 나이 30이 되도록 언제 한번 아들구실을 제대로 해본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부러라도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겠다고 속다짐했다.

말끝마다 이제는 손주를 안아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외우시는 아버지...

(이번 일까지나 끝내고는 어떻게 해서는 아버지의 그 소원을 풀어 드려야지.)

태영은 문득 눈앞에 떠오르는 옥주의 모습에 가슴이 확 달아 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을 비웃고 말았다. 그 처녀는 자신의 손으로는 도저히 잡을수 없는 하늘의 무지개처럼 생각했던것이

다. 태영이 달고 쓴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승용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 왔다. 당비서차였다. 흥겨운 기분에 들떠 있던 동무들이 마주 달려 갔다. 차안에서는 뜻밖에도 위생복차림의 옥주의사가 내려섰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길과 마주친 태영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태영동무, 사고예요!》

《무슨 사고요?》

옥주는 대답도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태영을 다짜고짜 차안으로 밀어 넣고는 최대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한 태영은 너무도 아연하여 심장이 툭 멎는것 같았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과 온몸은 화상과 상처투성이였다.

의사들은 구급처치를 하느라고 사람이 들어서는것도 몰랐다.

태영은 아버지한테 오늘 이런 일이 벌어 지리

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번시험에서 재생고무에 들어간 화학성분들이 5기압상태에서는 고무안불임에 대응한 질적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증기로의 열압력을 7기압까지 올리게 되면 재생고무의 강도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발이 일어 날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태영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더는 현장에 있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일이 이렇게 번져 질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태영은 지금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들의 휴식을 왜 그처럼 고집했는지 알게 되자 그만 억이 막혔다.

《아버지!》

태영은 목 메여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더니 흐릿한 노동자가 주위를 둘러 보았다. 태영을 알아 본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밝아 지더니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태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쥐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숨을 몰아 쉬며 말했다.

《태영아!... 누구든 희생을 각오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아버지가 꼭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야속한 심정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애뜻한 시선으로 태영을 마주 보았다.

《태영아! 나도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기술자다. 내 비록 은퇴한 몸이지만 지금 같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한몸의 위험을 생각하고 물려 섰다면 그건 기술자로 살아 온 내 한생의 수치로 되지 않겠느냐. 너도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않겠지?... 난 인생말년에 이렇게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바칠수 있게 된것을 더 없는 긍지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진정 인생의 희열이 넘쳐 흘렀다.

아버지는 무엇인가 꼭 감싸 쥐고 있던 손바닥을 폈다.

《태영아, 이걸 좀 보라. 7기압에서 처리한것인데 어떨는지...》

태영은 그것을 받아 들었다. 고무를 만져 보니 확실히 이전에 5기압에서 처리해 낸것과는 다르다는것이 알렸다. 튼성도 세지고 강도도 높아진것 같았다.

태영은 환희에 넘쳐 부르짖었다.

《아버지, 될것 같아요. 성공이에요. 성공!》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느슨한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그래 될것 같단 말이지. 그럼 됐구나.

그러니 이젠 로만 개조하면...》

태영의 가슴속에서는 불덩어리 같은것이 치밀어 올랐다. 로가 폭발하여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고무시편을 찾아 내어 성공의 돌파구를 열어준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은 진정 자신의 한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진격로를 열어 제낀 영웅의 모습 그대로였다.

《마지막까지 너를 돕자던 노릇이 그만 이렇게 됐으니... 이젠 안될것 같구나!》

아버지는 점점 숨 쉬기 가빠 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마세요.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아버지를 꼭 살려 낼거예요! 그렇지요 선생님들?!》

태영은 터져 나오는 오열을 꺾꺾 씹으니 의사선생들을 둘러 보았다. 의사들도 눈곱이 찌릿해져 머리를 끄덕였다.

《아니, 난 이젠 그만하면 한이 없구나. 그저 한가지 유한이 있다면... 고무안붙임을 성공한 다음엔 어떻게 하나 너를 꼭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네 색시감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흐릿해 진 눈빛에 애수가 어리었다.

태영은 흐흐흑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의 속을 태우는 자신의 민망함과 자꾸만 어딘가 미궁속으로 미끄러져 내리는듯 한 아버지를 자신의 힘으로는 더 붙잡아 세우지 못할것만 같은 위구심에 몸부림치며 울었다. 그옆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서 있던 옥주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정신이 번쩍든듯 태영을 쳐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용서와 리해를 바라는듯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쥐었다.

《아버님!》

아버지의 눈길에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 갔다.

옥주는 한순간 망설이는듯 하더니 머리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다.

《아버님 전... 태영동무와 이미 일생을...》

그는 끝내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그 소리에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밝게 빛났다.

《그래?! 그런걸 난 여직 몰랐구나...》

옥주는 용기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만일 저를 아버님이 허락하신다면...》

옥주의 눈곱엔 형언 못할 눈물이 고였다.

《처녀가 그렇다면 난 정말 기쁘네!》

《그럼 저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그는 웃기를 여미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앞에 큰절을 올렸다.

순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방안에 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환희의 물결이 흘러 넘쳤다.

창백하던 아버지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며 미소가 피어 났다.

태영은 그 무엇이라 딱히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하여 눈앞이 핑 돌았다. 운명의 등불이 가물거리는 이 순간에 저 처녀가 것처럼 아름다운 행복의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옥주의 눈곱에서 구슬알 같은 눈물방울이 흘러 내리며 아버지의 손등을 파스히 적셨다.

《아버님, 우린 아버님이 꼭 회복되리라고 믿어요!》

《오냐 내 꼭... 너희들이 축복 받는 그날을 보겠다.》

아버지는 초인간적인 삶의 의지로 흐리마리해지던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의사들은 즉시 아버지를 도병원으로 후송했다.

아버지를 바래온 태영은 가슴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걱정을 안고 그 길로 현장으로 향했다.

×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고무된 기술혁신조는 불굴의 투쟁으로 끝내 우리 식 고무안붙임을 훌륭히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고야 말았다.

사람들은 이 성공을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성공의 희열속에 태영의 눈앞에는 자신을 이처럼 성공으로 떠밀어 준 사람들의 모습이 밤하늘의 별처럼 떠올랐다. 목숨 같은 믿음을 안겨 주고 고무해 주던 당비서의 웅건한 마음이며 침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또한 인생의 붉은 좌표를 동요없이 걸어 가도록 강의한 의지와 신념을 키워 주던 옛 전우들도 생각났고 아름답고 고상한 사랑으로 힘겨운 나날에 웃음꽃 피워 주던 옥주의 그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 오기도 했다. 이처럼 훌륭한 토양속에서 이루어 진 열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웅대한 결실이였다.

태영은 우리에게 그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더깊이 깨닫는것 같았다.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비친 구내길을 태영은 옥주와 함께 걷고 있었다.

《태영동무, 아버지도 이젠 회복기에 들어 섰대요. 이 기쁜 소식을 아버님께 어서 알려 드려야지요.》

《그래야지, 당비서동지도 래일은 모든걸 제쳐놓고 면회를 갔다 오라구 하더구만. 우리가 성공한것을 알면 아버지의 회복도 더 빨라 질거라고 하면서 말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한줄 아요?》

태영이 옥주를 보며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옥주는 애가 말라 다그쳐 물었다.

《비서동지는 웃으며 <태영동무 혼자 가면 아버님은 좀 섭섭해 할거요. 래일 갈 때 내 차를 타

고 옥주동무와 함께 갔다 오오. 그러면 동무 아버님은 더 반가와 할거요!> 이리저 않겠소.》

《어마나! 거짓말?!》

숨까지 딱 멈추고 태영의 말을 듣고 있던 옥주는 발갛하게 달아 오르는 행복한 얼굴을 두손으로 감쌌다. 그 모양을 즐겁게 바라보는 태영의 눈앞엔 문득 아버지가 도병원으로 후송된지 며칠 후에 무슨 큰 죄를 지은듯이 하고 찾아 왔던 일이 떠올랐다.

《태영동무, 용서하세요. 전 아버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 소생시켜 보려고 태영동무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태영은 두손을 마주 잡고 오무작거리는 처녀의

손을 덥석 그러 잡으며 뜨거운 걱정애 넘쳐 말했다.

《아니, 그렇게 아니요!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소!》...

행복의 상념에 잠겼던 태영은 옥주의 손을 꼭 잡았다. 옥주의 얼굴은 붉은 노을빛에 물 들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길 가던 사람들도 무한한 행복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길옆에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코스모스도 그들의 사랑애 연고가 있다는 듯 꽃잎을 하느적이며 인사를 보냈다.

노을은 래일의 맑은 날을 예고하며 점점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식

21 세기 세계평균수명문제

21세기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늘어 날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여러가지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어느 한 나라 출판물에 발표된 견해에 의하면 21세기 세계 평균수명은 80살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늘어 난다.

청동기시대의 평균수명이 18살이였다면 B.C 50년대에는 20살로 늘어 났으며 중세기에는 33살로 늘어 났다.

그후 생산력의 발전과 보건조건의 개선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처음으로 도약하여 19세기 말에 이르러 45살로 늘어 났다.

20세기 중엽에 들어 와 과학기술과 보건사업이 발전하고 특히 항생소가 나옴으로써 인

류가 전염병을 극복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애기들의 사망률이 대폭 낮아 저 평균수명이 또다시 늘어 나게 되었다.

오늘 세계평균수명은 65살에 이르렀다. 나라별 평균수명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다. 그 가운데서 발전된 나라들의 평균수명은 72.4살, 발전도상나라들의 평균수명은 57살이다.

21세기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에서 또다시 도약을 가져 올것이다.

21세기에는 분자생물학이 의학에서 선두과학이 되고 생물기술과 생물공학이 의학에서 주도기술로 될것이며 기초의학, 예방의학, 립상의학이 고도로 발전할것이다. 또한 인류를 위협하는 급성 및 만성전염병, 특히 암과 심장 및 뇌혈관질병 등이 치료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또다시 도약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평균수명이 80살정도로 늘어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100살까지 늘어나지는 못할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평균수명이 질병과 내부 및 외부환경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없앤다는것은 매우 힘들다.

무엇보다도 낡은 질병이 없어지면 새로운 질병이 잇달아 생겨난다.

다음으로 현대화와 도시화가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가져오는 반면에 생활의 주기가 빨라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며 정신이 긴장해 지는 등 인류에게 부정적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80살정도에 도달한 후로는 매우 굹뜨게 늘어 나고 자연수명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다리는 땅

리영삼

기다리는 땅

지척이어도
늘 마음 겹계
천리 먼 분계선
세월속에 인가마저 묻혀 버린 곳

장장 50여년
어이 그림지 않았으랴
저물녘
집집의 화로에 피던 쑥연기
주고 받던 제 고장 사투리가

시내가 빨래터는 갈숲에 자취 없고
소나무 그루터기에 채빛다람이 등지를 틀었구나
황량한 들우에 모기떼 소란하고
짙 잃은 기러기 북녘을 향해 깃을 친다

해 저문 이 저녁
너를 두고 떠난이들
어디선들 그 어디선들 발편잠을 자라

누가 말하라

무슨 죄 들어
두세겹 철조망이
살을 파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늘자리는
한낮의 띄약벌에 벌거벗었다

사품치는 강물우에
부러진 교각이 신음하고
부산으로 이어 진 길목에
허리 꺾인 백양나무잎새 떨고 있구나

산천초목이 분노에 떠니
조국아
너 겪는 수난 말할것 없구나
분렬된 너를 후대앞에 남기고서야
그 누가 말하라

북으로 남으로
래왕이 자유롭던 날
농부와 길손들이

우리 시대에
심장을 가진 사내들이 살았다고

분계선

맞댄 총구를 밟고
억이 막혀 말이 없다
동강난 하루하루가 흘러
어언 반세기
살아 온 지난 날은 거짓이란 말인가

죽지 않고 살아
광복만세소리
하늘가에 사무쳐 있는데

을사5적이 나라 팔아
넋까지 빼앗겼더냐
예나 지금이나
항거의 정신은

애국에 살고 매국에 죽는
움켜 쥔 주먹이
펄펄 끓는 눈이
쏟아 진 창자가
선조의 유골우에
지뢰탄을 묻은 놈을 찾는다

구렁이의 몸뚱이를 딛고 섰어도
불이 겁을 알던가
칼을 들어
외세의 조임띠를 토막쳐
북남 화해의 굵을 더 크게 열란다

북에 살아도 남에 살아도
제 살불이 모두
타다 남은 나무등걸이 아니다
길가에 버려진 막돌이 아니다

장벽을 걷어 낸 이 땅에
풀잔디 곱게 곱게 밟혀야 한다

그때래야
소리쳐 웃고 울고
그때래야
네 살이 내 살이
한강토 한겨레 살이 된다
아, 햇빛 밝은 통일
통일만세 된다

되고프다

이 한몸 그대로
립진강 철교우에
침묵이 되고프다
쇠뭇이 되고프다

눈물의 상봉을 받들어
얼싸안은 하나됨을 받들어
묵묵히 푸른등 켜들고
지축을 울리는
힘찬 기적소리 되고프다

피맺힌 원한이
말끔히 걷힌 하늘에
노을이 타는 아침
형제끼리 어절씨구
춤마당이 되고프다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의 광장
통일단상아래 편
한송이 작은 꽃이 되고프다

금강내기, 한잎 단풍

일새 하나
금강내기 타고
굽을 따라 달음친다
어화둥둥 하늘길 간다

자유로운 날음
구름을 잡고
새보다 더 빠르게 더높이
파도우에 한들한들
울릉도앞 독도앞
외로운 섬 모두 지나
해붉은 기상 쟁쟁하다

열마디
백마디 말을 대신하는
한장 편지처럼
여백없이 씌여진 간절한 당부를 전하며
삼천리에 불 붙는 삶
통일을 부르는
아, 한잎 단풍아

※ 금강내기-금강산 골짜기를 불어 내리는
바람

현진건의 단편소설과 창작기교

한중모

1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3.1인민봉기이후의 변천된 사회력사적현실에 토대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출현하여 왕성하게 발전하는 한편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더욱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1920년대에 창작활동을 진행한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가들과 그 작품들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이 시기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며 광복전 조선문학사를 주체적으로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전의 진보적문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해방전에 창작된 작품들 가운데서 반일익식, 민족자주의식이 구현된 작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광복전의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 발생한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20년대에 들어 와서 하나의 문예사조를 형성하고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자기의 사상예술적특성을 확연히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 특히 1920년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한사람은 현진건이다.

주체9(1920)년에 작품창작을 시작한 현진건은 창작활동의 초기부터 우수한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을 집필발표하였으며 1920년대 중엽을 거쳐 말엽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개성적특성과 창작적재능을 보여 주는 단편소설들을 련이어 써내어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의 형성발전에 이바지였다.

1920년대에 창작발표된 현진건의 소설작품들 가운데는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사회적모순을 폭로비판한 사실주의적작품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신변잡사와 무의미한 애정생활을 기교본위주의적으로 그린 자연주의적소설도 있다. 일부 부르조아문예학자와 평론가들이 현진건의 문학을 몰밀어 자연주의적인것으로 특징지으려고 한것은 이러한 사정파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진건의 문학작품들에 사실주의작품과 함께 자연주의작품이 있는것은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 문예관과 미학관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약점, 그 제한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진건의 문학작품들에는 자연주의작품들이 일부 있지만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실주의소설들이

며 현진건의 작가적면모와 문학사적위치는 그의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에 의하여 특징 지어 지고 규정된다.

현진건의 처녀작은 단편소설 《희생화》[주체9(1920)년]이다. 이 작품은 락후한 봉건적결혼인습에 대한 비판적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주제사상이 뚜렷하지 못하고 형상수준도 미숙한것이였다.

현진건은 그후 단편소설 《빈처》[주체10(1921)년]와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주체11(1922)년]를 창작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그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적인 안목과 태도로 응시하고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 주인공 《나》가 갖 결혼한 안해와 함께 가난에 쪼들리면서 구차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과정에 생긴 생활의 곡절을 그린 단편소설 《빈처》에서는 벌써 사람들의 인정세태와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심리적 굴곡과 감정상태를 차분한 사실주의적필치로 치밀하고 섬세하게 그려 내는 현진건의 개성적특성과 창작기교가 뚜렷이 나타났다.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 그려 진 인물들의 생활과 인간관계도 단편소설 《빈처》와 유사하다. 그러나 《술 권하는 사회》는 《빈처》에 비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세계를 더욱 깊이 파고 들어 그려 냄으로써 당시 사회현실의 이지러진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량심적인 지식인청년의 정신적고통과 번민을 보여 주었다. 소설의 이야기인즉 일본류학을 하고 돌아 와서 일을 좀 해보겠다던 주인공이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하면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던 자들이 명예와 지위를 탐내어 파벌싸움으로 밤낮 물고 뜯는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실망과 환멸, 고통과 울분을 참을수 없어 마시지 않던 술에 만취되어 밤 늦게 집에 돌아 옴으로써 무식하고 순진한 안해를 근심걱정과 괴로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무렵에 나온 단편소설 《우편국에서》도 주인공의 구차스러운 처지와 심리적체험을 통해 가난한 지식인의 생활고를 보여 준 작품이다.

창작초기에 현진건은 가난한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구차스러운 생활처지와 정신적고통에 대한 진실한 사실주의적묘사를 통하여 당시 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들추어 낸 작품들과 함께 부정인물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고 사치와 허영에 들뜬 부유계층의 공허하고 무의미한 생활과 허위성을 풍자적으로 야유하고

조소한 단편소설 《피아노》[주제11(1922)년]와 같은 작품도 썼다.

창작활동의 초기에 주로 자신의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가난하고 량심적인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생활난과 정신적고통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식민지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던 현진건은 1920년대중엽에 들어 와서 작가적시야를 넓혀 지식인의 생활세계와 함께 인력거군, 류랑민 등 하층근로인민의 암담한 생활과 비참한 운명에 대한 형상화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주제13(1924)년]과 단편소설 《고향》[주제15(1926)년]은 현진건의 문학세계에서 일어 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당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참혹성을 생동하게 보여 준것으로 하여 현진건의 작품계열에서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1920년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래동안 돈구경을 못하다가 돈을 벌어 안해가 먹고 싶었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 온 인력거군 김첨지의 눈앞에 펼쳐 진 처참한 광경-나무등걸처럼 찢켜진 인력의 주검과 빈 젖을 빨다가 지쳐 쓰러진 어린애의 모습은 황금만능의 사회가 빚어 내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고발로 된다.

단편소설 《고향》은 류랑민의 참담한 생활과 운명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화하여 조선인민에게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비운을 안겨 준 일제식민지통치의 악착성을 보여 준 작품이다.

농촌태생인 주인공은 일본의 동양척식회사에 농토를 떼우고 서간도와 일본의 각지로 떠돌아 다니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묻히겠다는 생각으로 고국에 돌아 왔으나 모든것이 변하여 폐허하고 삭막해 진 풍경앞에 비감과 실망에 빠져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기차에 몸을 싣는다.

이 무렵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 《사립정신병원장》[주제15(1926)년]은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으나 주인공 W의 인생행로와 생활처지는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나 《고향》의 주인공만 못지 않게 험난하고 참혹하며 절망적이다. 소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어느 은행회사의 고원이 되었으나 낮은 임금으로 도저히 살아 갈수가 없어 몇푼

안되는 보수를 바라고 부자집 정신병자인 P를 말아서 돌봐주는 《정신병원》의 《원장》이 된 W가 칼을 들고 미쳐 날뛰는 P에게 죽을번하다가 본의아니게 정신병자를 찔러 죽이게 된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현실이 빈곤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험악한 세상이라는것을 보여 주었다.

1920년대 말에 이르러 현진건의 사실주의적묘사력과 사회비판정신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의 문학은 보다 원숙한 경지에 들어 섰다.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주제18(1929)년]은 이 시기 현진건의 문학의 사상에술적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작품이다. 신문지 한장때문에 살인강도로 몰려 철창속에 갇히게 된 가없는 로인의 참담한 신세를 심각하고 처절하게 묘사한 이 소설은 일제침략자들을 직접 등장시키고 그들의 포악성을 정면으로 폭로함으로써 사회악에 대한 비판적기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현진건은 단편소설 《빈처》, 《술 권하는 사회》로부터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과 《고향》등을 거쳐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에 이르는 10년간의 창작활동기간에 가난하고 천대 받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곤궁한 생활과 비참한 운명을 생동하게 묘사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악폐를 여러모로 폭로비판하였으며 그 과정에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면모와 문단적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와서 현진건은 주로 신문출판활동에 관계하면서 그전처럼 문학작품창작에 많은 힘을 넣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주제25(1936)년 세계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손경기에서 조선의 손기정선수가 1등을 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을 때 《동아일보》의 사회부장으로 있었던 현진건은 이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면서 손기정의 앞가슴에 표식되어 있던 일본기발을 지워 없앤 《일가말소사건》의 주동인물로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고 출옥한후부터 다시 문학창작에 달라붙었다.

1930년대 현진건의 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단편소설로부터 장편소설로,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역사주제작품창작으로 넘어 간것이다. 그의 창작활동에서 일어 난 이러한 변화는 진보적문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어 종전처럼 사회적모순과 불합리를 폭로비판한 소설작품들을 써낼수 없었던 현실적조건에서 과거생활에 대한 형상화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하는 주제》를 살리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의 역사장편소설 《무영탑》[주제27(1938)년]과 《흑치상지》(미완성)[주제28(1939)년]는 제재선택과 역사적사실에 대한 평가, 인물형상창조 등에서 일련의 부족점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날의 역사적생활을 통하여 악착한 식민지사회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민족의식과 반침략애국사상을 표현하려는 그의 창작의도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현진건의 문학에서 역사소설은 빼놓을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현진건의 문학

의 사상에술적특성과 그 사회적가치를 구명하고 규정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소설들이다.

현진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의식,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악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프로레타리아문학,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1920년대 전 기간 식민지반봉건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

민족의식과 반일사상을 표현한 재치 있고 특색 있는 단편소설들을 련이어 창작발표함으로써 우수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작가적면모와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2

현진건이 가난하고 천대 받는 사람들과 그 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명예를 폭로비판하고 반일사상과 민족의식을 표현한 특색 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할수 있는것은 그의 뛰어난 창작기교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다.

문학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 세계관이지만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형상으로 생동하고 뜻 깊게 그려 낼수 있는 기교가 없이는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제대로 실현할수 없다. 현진건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나라를 빼앗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 가난하고 천대 받는 하층민들에 대한 동정과 악착한 사회현실에 대한 반감과 함께 높은 창작적기량을 가진것으로 하여 우수한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을 써낼수 있었다.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현진건의 기량은 그의 단편소설들에서 집중적으로 발휘되었다.

현진건의 창작기교는 우선 인물과 그 성격에 대한 묘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소설은 묘사문학이며 소설가의 기교는 무엇보다도 대상을 얼마나 사실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하는가 하는데서 드러난다. 현진건은 나이와 성별, 지식정도와 생활처지가 서로 다른 인물들의 외형과 내면세계, 그들이 처한 환경과 행동을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것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 냄으로써 그 모습과 광경이 독자들의 눈앞에 방불히 떠오르게 하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에서 특히 두드러 지는것은 인물의 사색과정을 그의 외형과 행동, 환경과 유기적으로 련관시켜 그림으로써 성격의 본질적특징을 생동하게 살리고 내면심리세계를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 준것이다.

성격묘사의 이러한 솜씨는 초기작품들인 단편소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열흘동안이나 돈구경을 못하다가 찬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날 아침 인력거를 끌고 벌이를 나갔다가 대바람에 10전짜리 백동전으로 80전을 받아 쥔 김첨지는 모주 한잔으로 켄켄한 목을 적실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안해에게 설렁탕을 사다 주고 배 고파 보체는 세살나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먹일수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쁘고 마음이 푹푹하였다.

그런데 또 돈벌이를 할 일감이 생겼을 때 그는 이상하게 꼬리를 맞물고 덤벼 드는 행운앞에 겁이 나고 집을 나올 때 하던 안해의 애원이 생각되면서 마음이 켁기였다.

달포전에 좁쌀밥을 잘못 먹고 앓기 시작한 안해가 사흘전부터 설렁탕국물이 먹고 싶다고 조르더니 그날 아침에는 제발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달라고 모기소리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던것이다.

겨울방학에 고향으로 가는듯 한 학생을 인력거에 태우고 나는듯이 정거장으로 달리던 김첨지의 다리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다달으자 자연히 무거워졌다.

오늘은 나가지 말라던 안해의 말이 귀에 울리고 움푹 들어 간 그의 눈이 자기를 노려 보는듯 하며 개똥이의 울음소리와 딸꾹딸꾹 숨 모으는 소리까지 들리는듯 하면서 걱정이 가슴을 눌렀던것이다.

손님의 독촉에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달리기 시작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1원 50전을 받아 쥔 김첨지는 갑자기 부자가 된듯이 기뻐 하였다. 그리고도 손님 하나를 더 태워다 주고 또 60전을 받았다. 김첨지에게 있어서 2원 90전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결음 두결음 집이 가까와 질수록 초조하던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누그러졌다.

소설에서는 김첨지의 마음의 이러한 누그러짐이 결코 안심에서 생긴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를 덮칠 무서운 불행을 두려워 하는데서 오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한 기쁨을 될수록 오래 지니고 싶어 하는데서 온것이라는것을 치밀하게 그려 나가다가 선술집장면을 설정하여 그의 야릇한 심정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다.

선술집앞에서 친구 치삼이를 보고 은인이나 만 난것처럼 고마와하면서 끌고 들어 가서 빈속에 막걸리를 곱배기로 마시고 취기가 오른 김첨지는 오늘은 돈을 산더미같이 벌었다고 호통을 치면서 술을 왜 안 붓는가고 트집을 걸다가 술을 붓는 중대가리아이가 미심쩍어 하는 눈치를 보이자 《이 오라질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라고 부르짖으며 허리춤에서 1원짜리 지전을 꺼내 집어 던지고는 바닥에 떨어 진 은전을 찾다가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다. 다리뺀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같으니.»하고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 진 은전을 주어 들고 《이 원쑤의 돈! 이 룽시를 할 돈!》하면서 집어 던지자 그 돈은 벽에 맞았다가 다시 술양푼에 떨어 지며 짹하고 소리를 내며 울었다.

또다시 곱배기를 거둬한 김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전차정류장에서 만났던 젊은 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꺾릴 옷다가 갑자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하며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이가 그러면 집으로 가자고 하니 김침지는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어린애처럼 웃었다.

선술집에서의 김침지의 기분상태와 언행에 대한 이러한 형상화는 인물의 성격을 정황과 밀접히 연관시켜 그리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복잡한 심정과 미묘한 심리적변화를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선술집장면은 뜻밖에 많은 돈을 벌어서 기쁘면서도 돈이 없어 천대 받고 고통 받는것을 생각하면 원통하기도 하며 또 앓는 안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건잡지 못하는 김침지의 내면심리세계를 여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인물의 성격을 정황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형상화하면서 그의 심리상태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진건의 창작기교는 이야기줄거리의 절정을 이루는 마감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을 지배하는것은 무시무시한 정적이였다. 쿨쿨거리는 기침소리도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무덤 같은 침묵속에서 그윽하게 들리는것은 빈 젖을 빠는 어린애의 뽀뽀하는 소리뿐이였다. 김침지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술취한 김침지의 무딘 코를 찌른것은 샷리에서 올라 온 먼지내, 기저귀에서 나는 오줌통내, 때 묻은 옷내와 섞인 송장 썩은 냄새였다.

방안에 들어 서며 설령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군은 목청을 있는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 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이의 다리를 밟시 쳤다.

그러자 발길에 채이는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결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뽀뽀소리가 웅아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뿐이다. 웅아소리도 입에서 나는게 아니고 마치 배속에서 나는듯 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

진한것 같다.

발로 차도 보람이 없는걸 보자 남편은 안해의 머리맡으로 달려 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끄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던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보이.》

이러다가 누운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우로 치픈 눈을 알아 보자마자 《이 눈썹! 이 눈썹!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였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 진 땀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이의 뻗뻗한 얼굴을 어룡어룡 적시였다. 문득 김침지는 미친듯이 제 얼굴을 죽은이의 얼굴에 한대 부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피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드니만...》

어느 때 없이 돈을 많이 번 행운에 대한 기쁨과 안해의 죽음에서 올 불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여 웃고 우는 복잡한 심리적변화를 일으키던 김침지는 나무등결 같은 안해의 주검과 배 고파 울다가 기진한 어린애의 모습에서 자기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절망에 빠져 버린것이다. 각이한 정황과 환경에서 수시로 달라 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인상 깊게 안겨 오는 김침지의 형상에는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며 갖은 불행과 고통을 겪은 당시 하층민민의 비참한 운명이 반영되어있다.

인물의 외형상 특징과 언행에 대한 생동하고 인상 깊은 묘사를 통하여 인간의 사회계급적본질과 생활처지, 정신상태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현진건의 창작기교는 단편소설 《고향》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그》의 형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나》가 기차안에서 만난 《그》는 두루마기격으로 일본 《기모노》를 돌렸고 그안에 옥양목저고리를 입었으며 아래는 중국식바지차림을 한데다가 발에는 감발을 하고 짚신을 신었다. 그리고 상고머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고 주름 잡힌 거친 얼굴로 마주 앉은 일본사람에게 일본말로 어디까지 가는가고 첫 마디를 떼고 조선사람은 고추를 많이 먹는데 일본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속이 뉘었거린다느니 뉘니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다음에는 그옆에 앉은 중국인을 붙들고 중국말로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고 말을 걸었으

나 상대방이 별로 대꾸를 하지 않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이었다.

《그》의 이러한 외모와 언행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고향을 짓밟히고 시간도로 들어 가서 남의 땅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 고역과 빈궁과 병마에 부모까지 잃어 버리게 되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된 벌이로 외롭게 살다가 울화가 치밀어 9년만에 다시 고향을 찾은 풍파 사나운 인생행로와 비참한 운명을 인상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독자들은 《나》와 《그》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는 이야기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생활로정과 살아 갈 길이 막연한 난감한 처지, 비통과 울화가 치미는 착잡한 내면심리세계가 그의 옷차림과 몸가짐, 말과 행동에 비껴 있다는것을 확인하게 된다.

인간과 생활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 내는 현진건의 창작기교는 인물들의 외형에 대한 묘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실례의 하나로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에 그려진 이야기의 주인공의 형상을 들수 있다.

현진건의 많은 단편소설들이 그러한것처럼 《신문지와 철창》은 《나》가 경찰서류치장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만난 《불쌍하고 거룩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인칭소설이다. 소설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로인의 외형은 그야말로 인상깊게 묘사되어 있다.

도야지꼬리만 한 상투, 설마른 암치쫂처럼 누렇게 뜬 주름 많은 얼굴, 불에 타다가 만듯 한 경성자못한 흰 수염, 휘여 들고 꼬부라 든 좁은 어깨, 울음이 오는듯 한 눈곱 발린 광채 없는 눈, 갈기갈기 찢어 진 하피쪽밑에서 내다보이는 코물이 케케히 말라 불은 광목적삼 앞자락, 아래도 리엔 역시 때 묻은 광목고의, 발은 벗었고 대님으로는 상점에서 물건살 때에 쓰는 꼬나풀을 매었다. 왼손에는 노란 수건을 들었고 오른손에는 생나무껍질을 벗겨 만든듯 한 꼬부장한 지팡이를 쥐고 있다.

초라하고 불췌 없고 처량한 로인의 외형에 대한 이러한 치밀하고 생동한 묘사는 그가 걸어 온 고달픈 인생행로와 비참한 운명, 곤궁한 생활처지를 능히 가늠할수 있게 한다. 인물의 외형묘사를 통하여 겉모습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안겨 줄뿐아니라 그의 생활바탕과 성격적특징까지 파악하게 하는 여기에 현진건의 높은 예술적기량이 있다.

단편소설창작에서의 현진건의 기교는 구성조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소설은 묘사문학인 동시에 이야기문학이며 소설을 잘 만들기 위하여서는 묘사를 실감 있게 하

는것과 함께 이야기를 재치 있게 엮어 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소설을 구성하는 기교는 이야기의 흐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그 결말을 끝까지 지켜 보도록 끌고 나가는 솜씨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독자들이 잠시도 마음을 늦추지 않고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흐름을 따라 가도록 줄거리를구성하는것은 작품의 예술적견인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야기줄거리구성의 이러한 요구는 단편소설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현진건의 단편소설들은 이야기를 견인력 있게 엮어나가는 능란한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은 구성조직의 이러한 묘미를 잘 살린 작품의 하나이다.

어느 날 아침 벌치 않은 일로 《나》가 구류되어있는 T 경찰서 류치장입구쪽에서 구두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려 왔다. 하이칼라머리의 짧은이가 목책의 철봉우에 발을 올려 놓고 밖을 내다보더니 머리털이 하얀 로인을 순사 셋이 억지로 끌고 오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류치장밖에서 일본순사가 서투른 조선말로 웨치는 소리를 들은데 의하면 거세고 무딘 목소리로 항변하며 발버둥치는 그 로인은 백주에 복면을 하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 곤봉을 휘둘러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살인강도로서 그 범죄는 20년징역에 해당한다는것이였다.

류치장안에서 순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 로인이 아주 대담하고 무서운 인물로 생각되면서 동물원에서 주홍빛아가리를 벌리고 산이 무너질듯 한 어흥소리를 지르는 사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게다가 밖에서 순사들과 로인이 주고 받는 말을 통하여 그가 들어 간것이 경찰서장의 집이며 그의 나이가 일흔넷이라는것을 알고 류치장안의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이러한 이야기의 꾸밈새는 독자들의 마음을 틀어 잡고 작품의 형상세계에 이끌어 들이는데 효과적이다. 독자들은 그 로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그가 저지른 범행의 진상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의 진전을 지켜 보게 된다. 여기서 작가의 대변자라고 할수 있는 《나》와 독자들의 교감이 실현되는것이다.

그런데 《나》와 독자들이 눈앞에 나타난 로인의 모습은 《나》가 상상하고 독자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판판이였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초체하고 잔약한 로인, 도야지꼬리만 한 상투에 주름 많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곱이 피지지한 눈에 휘여 들고 꼬부라 진 좁은 어깨를 가졌고 람루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을 한 불췌 없는 모습은 《나》의 생각과 독자들의 추측을 완전히 뒤집

어 었고 그 늙은이에 대한 측은한 느낌과 함께 그가 저질렀다는 엄청난 《범죄》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작품세계에 더욱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량순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이 초라한 로인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인물》, 《놀라운 영웅》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 살인강도행위란 어떤것인가? 담당순사와 로인의 문답을 통하여 밝혀 진 《범죄》의 내막이란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늙고 힘 없는 몸으로 어미를 잃은 어린 손자를 키워 오던 그 로인은 배 고파 우는 어린애에게 밥을 얻어 먹이려고 비력질을 나섰다가 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 안타까와 하던중 경찰서장집 문간에 떨어진 신문지를 집어 들었었다. 이때 서장의 딸이나 누이동생쯤 되는 계집애가 신문지를 빼앗으려고 하자 로인은 밥을 싸가지고 갈 생각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손에 들었던 지팡이로 그의 이마를 약간 밀쳤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인이 《살인강도》로, 《중대범인》으로 취급되게 된 내막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안고 있는 수수께끼를 한꺼풀씩 풀어나가는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떨어 졌다.

량순하고 힘 없는 로인이 활극의 《영웅》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희극의 우습강스러운 배우로 바뀌며 또다시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동정과 편민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이야기줄거리의 전개과정은 독자들의 마음을 툭툭히 틀어 잡고 일관하게 긴장시키면서 무고한 조선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쳐온 일제식민지통치의 죄악을 폭로비판한 작품의 주제사상에 대한 파악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야기줄거리의 전개과정에 전환을 일으켜 독자들의 추측과 예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작품세계에 깊이 끌어들이는 현진건의 구성의 기교는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독자들의 상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야기를 굴곡 있고 긴장하게 엮어 나가는 현진건의 독특한 수법과 기교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쓰면서 줄거리를 견인력 있게 엮어 나간데서 뚜렷이 발휘되었다. 독자들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제목에 접할 때부터 주인공에게 어떤 행운이 차례질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과연 찬비가 내리는 그 날은 가난한 인력거군인 김첨지에게 있어서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 열흘동안이나 돈구경을 못하고 달포나 앓아 누워 있는

안해에게 약 한첩도 써주지 못하고 사흘전부터 먹고 싶다는 설렁탕 한그릇도 사서 먹이지 못한 김첨지가 연방 맞다드는 손님을 태워다 주고 그로서는 큰돈이라고 할수 있는 2원 90전을 벌였으니까말이다. 김첨지는 여느 때없이 차례 지는 행운을 기뻐 하면서도 한편으로 불행이 들이닥칠것 같은 예감으로 불안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아침에 움푹하게 들어 간 큰 눈에 빼만 남은 얼굴로 오늘은 제발 일하러 나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던 안해에 대한 걱정때문이었다.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가지고 세를 내어 사는 허술한 행랑방으로 들어 갔을 때 그를 맞이한것은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안해의 시신이였다. 이렇게 그날의 행운은 일시에 깨져 불행으로 변하였다.

독자들은 이야기의 진전을 따라 김첨지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데 마음을 조이면서 작품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마지막장면에서 그에게 닥쳐온 불행을 실감하게 된다. 《피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작품을 마감하는 김첨지의 이 말은 착취사회에서 돈 없는 가난한 하층민에게 있어서 좋은 운수, 행운이 차례지는것은 비정상적인 피상한 일이며 그들에게는 불행밖에 있을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흐름의 요긴한 고비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표현은 착취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에 대한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작품의 견인력을 강화하고 주제사상을 예술적으로 강조하는데서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야기흐름을 갑자기 전환시키고 언어표현을 반의적으로 쓰는것은 현진건이 즐겨 쓰는 수법의 하나로서 그의 소설작품의 예술적힘을 강화하는데 효과 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진건은 이밖에도 소설작품창작에서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눈으로 보는것처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데 적절한 어휘와 비유를 골라 쓰며 인물의 사고와 감정정서를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실감 있게 그림으로써 생동하고 진실한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주제사상을 밝혀 내는 높은 창작기교를 보여 주었다.

현진건의 단편소설들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 인간과 실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하며 감명 깊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 민족의식과 반일사상을 표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 문단의 새싹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장기성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고 선군시대의 위대한 생활과 성격을 창조해 나가는 선군혁명문학건설의 믿음직한 대오속에 문학신인들도 당당히 자기 위치를 정하고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 있다.

×

새해벽두는 누구에게나 바빴다. 소설분과의 경우는 더더욱 바빴다. 당의 의도가 담긴 새해공동사실에 비추어 연간창작계획을 재확증하고 소설가들의 현실체험조직을 해야 했다.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구성안토의를 려이어 진행하여야 했다. 지난해 말까지 끝낸 장중편소설원고들과 단편소설원고들이 련속 제출되어 드넓은 책상우에 가득히 쌓였다. 신문, 잡지편집부들에서 승벽내기로 원고들을 제기해 왔다.

겹겹이 쌓이는 이 많은 일거리를 언제 다 처리하랴 하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워 지고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신인지도부에서는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군중문학현상응모작품 초심당선작들을 재심의해 달라고 근 50편에 달하는 작품을 가져왔다. 몇편의 큰 형식의 작품들과 대다수의 단편소설 그리고 실화문학, 수필 등이었다. 원고부피가 두아름쫘 되는 간단치 않은 업무량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원고들을 접수하였다.

당의 문학의 대중화방침의 소중한 결실이고 작가후비를 찾아 내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었다.

즉시 역량 있는 작가, 창작지도일군들로 심의조를 조직했다. 모두가 긴장한 창작과제, 심의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 사업에는 군말없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군 했다. 한것은 군중문학작품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소득을 얻게 되기때문이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나라의 방방곡곡, 각이한 부문, 각이한 초소의 특징적인 생활들과 개성적인 인간성격들을 보게 되고 참신한 형상시도들을 감득할 수 있는것이였다.

신인작품이라 해서 심의평가기준이 다른것은 아니다. 종자와 성격에 선군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체현시켰는가, 강성대국건설의 적극적인 생활분야, 전형적인 생활을 그렸는가, 소설문법적요구가 어느 정도 갖춰 졌는가, 형상적특기가 있는가 등등이다.

《현상》이란 상을 다룬다는 말인것이다. 우의

기준에서 등위를 정해야 하는만큼 심의성원 8명의 의사가 모여 저 과반수 의사에 따라 등수를 결정하며 때로 작품의 우단점에 대하여 격렬히 논쟁하기도 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편소설 《푸른 언덕으로》(리주), 장편실화문학 《뿌리와 열매》(윤춘일)가 3등으로, 단편소설들인 《불 타는 노을》(강호진)이 1등, 《나의 로반》(박성진), 《유산의 고백》(고충웅)이 2등, 24편의 단편소설들이 3등으로 그리고 4편의 수필이 3등으로 당선되였다.

이번 현상응모작품심의과정에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것은 문학통신원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는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이며 현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이다.》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당의 의도를 모르고 창작한 작품은 실사형상기교가 느껴 지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것이다.

올해 당선작품들은 모두가 선군시대의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체현된 문제와 성격들을 제나름의 개성으로 형상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관점과 자세를 두고 이들은 작가들처럼 자주 모여 앉아 당의 의도, 시대정신의 요구와 창작실천적방도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드물겠는데 용케도 체현하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것이다. 물론 동맹기관지들과 작가들을 통해 보고 듣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인식정도, 그 준비정도를 기쁘게 평가하게 되는것이다.

청년영웅도료건설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인 《불 타는 노을》, 《나의 로반》, 《어머님의 목소리》,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영웅전사의 투쟁을 형상한 《한 기뢰부설조원의 수기》, 청년과학자의 생활을 그린 《네번째 논문》을 비롯한 모든 작품들이 현재생활이건 과거생활이건 관계없이 오늘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주의를 안겨 주려는 의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하였다.

당의 의도에 민감한 의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채지 있는 형상으로 구현해야만 작품은 응당한 품격과 가치를 가지는 법이다. 이번에 당선된 작품들중에는 선군시대인간들의 대혹적인 성격을 탐구하여 개성적으로 형상한 작품, 단편소설의 묘미와 특성을 독특하게 살림으로써 참신하여 읽을 맛이 있는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등당선작품인 단편소설 《불 타는 노을》, 2등당선작품인 《나의 로반》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불 타는 노을》의 필자 강호진은 20대청년으로서 평양조차장객화차대 로동자이다.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더러 꼭 작가가 되라고 가정일에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는 열렬한 독학가이다. 직장에 오고갈 때, 휴식참에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2~3일이면 장편소설 한편을 읽는다. 그저 읽는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정독하며 명문장, 명구들은 발췌한다. 잘된 단편소설은 전문을 옮겨 쓰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정열적으로 피 타게 재능을 련마해 나간다.

그는 자기 직장생활은 물론 나라에서 중시하는 건설장들에 대한 체험을 문학수업, 창작활동의 필수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가 일하고 있는 기업소는 나라의 경제건설의 중요단위-철도부문이여서 그는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믿음을 피 끊는 심장으로 높이 받들어 곁쌍이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이기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이 나라 청춘들의 활무대-청년영웅도로건설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자신의 성스러운 땀도 바치고 거기서 시대의 전형들의 성격도 탐구하기 위해 그는 하루일을 마치고 밤에 그리고 휴식일에 그곳으로 달려가군 했다.

강호진동무의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의 산물이 바로 이번 1등당선작품인 《불 타는 노을》인것이다.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 공장청년들과 함께 자원 진출해 나온 피복공장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처녀가 뜻밖에 불치의 병에 걸려 신고하면서자신의 신병을 숨기며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영웅적돌격전의 기수, 선동나팔수가 되는 불굴의 눈물겨운 형상을 통하여 아무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살고 웃으면서 생을 빛내이면 짧게 살아도 길게, 영생의 삶을 지닌다는 철학적인 종자를 심고 참신하고 비교적 원숙한 형상으로 꽃을 피운 이 소설을 우리는 깊은 감동속에 읽고 논의하였다.

작품이 성공하려면 현실생활속에서 의의 있는 종자를 골라 쫓출 아는 능력과 더불어 적중한 인물관계를 선정하고 그 호상관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릴줄 알고 그에 맞게 구성을 독특하게 하고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숨씨 있게 구사해야 한다.

집약과 집중의 문학인 단편소설에서는 인물관계가 되도록 적게 반드시 필요한만큼 설정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윤희와 그 목격자 나 그리고 시점인물인 나의 시야밖에서의 주인공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동생 윤옥이가 기본인물로 알맞추 설정되었다.

기자는 주인공에게서 받아 안은 나의 느낌을 절절히 토로하게 하는 계기인물로서 그도 필요한 설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을 나무기둥으로 세운 집에 비유할 때 이 인물들중 어느 한 인물을 빼내면 어느 한 기둥이나 주춧돌이 빠져 기울어 지거나 무너지고 말것이다.

작품은 우선 흥미 있게 읽히워야 끝까지 다 읽고 잘됐소, 못됐소 논할수 있다. 이 소설이 강한 견인력으로 독자들을 끌고 나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조직과 강렬한 감정조직, 그 감정을 타고 성격을 도출해 낼수 있는 방불한 세부의 련속으로 구성을 조직했기때문이다.

소설시작은 취재 온 기자에게 중대장 《나》가 실려당한 이야기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혹 독자들은 첫 머리가 시시하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때는 중대장청년의 숙연한 모습과 창력의 비취색 자기화분에 붉게 피여 있는 **김정일**화가 제시되면서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사연을 듣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공장기술혁신조에 망라되어 제판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으로 섰 고속도로건설장에 탄원해 나서지 않았던 《나》가 출근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처녀의 가룩한 소행과 미모에 끌려 그를 뒤따르게 되고 결국 뒤늦게나마 공사장에 나가 처녀와 함께 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와 청년들의 사명, 참다운 인생관에 대해 절절히 느끼게 되는 성격발전과정을 시종 작중인물과 함께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1인칭소설은 《나》의 체험심리를 그린다는 미명밑에 설명을 장황히 하는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소설은 1인칭소설이지만 의의 있는 세부와 세부의 련속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이 많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궤도전차에 오르는 미모의 처녀가 《나》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하여 무안을 느끼게 하는 세부, 그의 초상묘사, 매일아침 7시면 어김없이 단정한 하얀 옷차림으로

정류소에 나서는 처녀, 한동안 눈에 띄우지 않다가 급직한 배낭을 지고 병원특유의 소독수냄새를 풍기며 매번 내리던 정류소를 지나쳐 종점에 내려 고속도로건설장으로 가는 처녀와 뒤따르는 《나》, 불꽃 튀는 건설장전경묘사, 시대에 뒤떨어진 《나》의 자책과 드디어 건설장으로의 탄원, 공사장의 어려운 조건과 밤작업의 난관, 주인공의 동생 윤옥의 언니격정으로 비로소 그가 앓는 몸이라는것을 알게 되는 《나》의 느낌, 윤희가 허기진 《나》에게 주는 자기 몫 밥덩이, 난관앞에 주저 앉은 《나》에게 병약한 몸으로 웃음과 신심을 주는 주인공, 그의 힘해 진 손, 합마질을 하다가 쓰러지는 모습, 공로메달을 받은 윤희의 순결한 느낌, 《나》가 당원, 소대장이 되어 비로소 사랑을 고백할 때 받아 들이지 못하는 윤희의 가슴 저미는 심정(후에 알게 되지만) 등 원인과 결과의 연속으로 이어 지는 그 모든 세부들은 얼마나 표상적이고 설득력 있고 진실하며 견인력을 가지는것인가!

구성형식의 특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자와 《나》의 이야기형식으로 긴장과 완화와 속도를 준것, 주인공 윤희의 일기장을 통해 그의 감정과 성격, 그 성격의 기초를 살려 준것, 동생 윤옥의 이야기로 《나》가 목격하고 참여할수 없었던 주인공의 생활과 회생소식을 《나》를 통해 독자들에게 체험시키는것 등 모든 형상요소들이 작품의 생리에 맞게 조화롭게 통일되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심사에 참가한 8명 전원이 1등으로 합의하였다.

부족점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대 청년의 첫 작품이 이만하면 대단하다! 이것이 일치한 견해였다.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작품의 주인공을 죽는 사람으로 설정하는데서 오는 어두운 색갈인것이다. 물론 이러한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것 양상을 밝게 채색하느라 하였지만 작은 형식의 작품의 형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는 없었던것이다.

우리에게 제기되었던 본래의 이 작품제목은 《불 타는 저녁노을》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주제사상내용의 집약이거나 상징인것이다.

죽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소설인데 제목에서부터 《저녁》을 붙여 놓으니 그 어두운 색조를 예고하고 강조하는감이 들어 《저녁》은 빼고 《불 타는 노을》로 고치기로 하였다.

단편소설 《나의 로반》도 시대정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종자도 선명하며 감정조직도 비교적 잘되어 있어 단숨에 읽게 되는 작품이다.

수출수제품공장 수예공으로서 앞으로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옷설계기사, 학사, 당원이 되는것을 《희망의 로반, 운명의 로반으로 설계》하였던

한 처녀가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 어쩔수없이 나가게 되어 우회로에 들어 섰다고 고심하다가 공장청년동맹 비서였던 대대정치지도원언니의 영향속에 강성대국에로 뻗어 나가는 조국의 로반이 곧 가장 보람 있고 절실한 나의 로반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의 결속부에 재삼 쏘아 박았듯이 《청춘의 희망과 리상을 실현하는 직선주로-나의 로반은 당이 부르는 그 길에 있다》는것이 이 작품의 종자이다.

전혀 새롭다고는 볼수 없지만 이 종자는 시대적으로 의의가 있는것이며 형상으로 무리없이 밝혀내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소설은 2등으로밖에 평가되지 못했는가? 집체심의에서 3등밖에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었는가?

그것은 제기한 문제와 인간관계를 설득력 있는 풍만한 형상으로 밝혀 낼만 한 바탕-생활세부들이 부족하고 대신 심리에 대한 지루한 설명이 많아 지루한감을 주고 감흥이 덜한데 있는것이였다.

단편소설은 적은 생활세부로, 때로는 하나의 생활단면으로도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의 형상과제와 그에 따른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작품은 희망과 포부의 길을 리기본위로 정하였던 비교적 낮게 설정해 놓은 주인공의 기초성격을 시대적높이로 올려 놓아야 하는 형상과제를 안은것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실현하자면 그에 필요한 적중한 생활세부들이 탐구선택되어야 했다.

고속도로건설 청년돌격대 탄원명단에 선뜻 수표하지 않았던 처녀주인공, 건설장일의 고달픔과 배고픔, 잠부족에 못 이겨 대학입학시험때까지 한두달만 견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는 계획을 철하게 하기 위해 로반에 깔 돌을 청돌이 아니라 풍화되기 시작한 썩돌을 날라 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주인공이 자기를 누우치고 시대적자각을 하게 되는 생활적계기들은 대대정치지도원이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어 앓고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얼음물속에 들어 서서 선동방송을 하는것을 목격하는것과 제대군인으로서 서른살에 가까운 처녀인 그 대대정치지도원이 결혼식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려 하다가 현장 결혼식을 하는것, 그리고 자기의 대학입학준비 같은것은 안중에 없이 그저 공사과제를 빨리 다 그칠 생각만 하며 다몰아 대는것으로 여겨 왔던 대대정치지도원이 대학입학시험날자가 되어 오자 어서 떠나라고, 입학시험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것 같아 러단정치부의 명의로 대학에 부탁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세부가 전부인것이다.

이 정도의 생활만으로 희망과 포부의 로반, 운

명의 로반을 고쳐 설정하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 주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니 필자는 심리에 대한 설명을 생경하게 늘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깊이 있는 체험에 기초한 적중한 생활세부의 취사선택, 그리고 그것을 감정론리, 성격론리에 맞게 기름지게 형상하는것이 작품성공의 기본담보인것이다.

단편소설 《유산의 고백》은 우에서 분석한 소설들과는 다른 유형의 작품으로서 사상주제적의의가 있고 읽히우는 작품이라고 평가되었다.

작품은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무참히 파괴, 략탈한 일제의 범죄의 일단을 폭로규탄하는것을 사상주제적과제로 제기하고 그에 필요한 인물들을 설정하여 비교적 원숙한 필체로 무리없이 형상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유형의 소설은 사회정치적문제를 예술적으로 론증, 확인하는데 필요한 형식이고 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쓴 작품인만큼 보다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형상적분석을 가해야 했고 잃어진 민족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총련상공인 리경진의 애국적인 투쟁도 더 적극화하여 감동 깊게 그리고 연구사 리현과 교원 혜심을 통해 우리 당과 인민이 민족의 재보인 문화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략탈 당한 문화재를 기어이 반환 받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힘 있게 확인했어야 했다.

부족점은 또한 소설의 시점인물인 일본력사학자 하야시 기구로의 성격을 평양체류기간 일본과 자기 아버지인 하야시 히데오가 조선의 문화재를 그야말로 강도적인 흥심과 간악한 방법으로 략취했다는것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어정쩡하게 그려 놓고 만것이다.

그를 통해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 받은것뿐 아니라 일본전체가 략탈해 간 조선의 문화재를 당장 무조건 반환해야 하고 파괴해 버린 문화재에 대한 보상을 백배천배로 해야 마땅하다는것을 형상으로 강조했어야 했다.

또한 하야시 기구로를 통해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끝까지 되돌려 주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으려는 일제의 간악한 속심을 발가 놓았어야 했다.

×

현상응모에 제출되었던 작품들을 개괄하여 몇 가지 요구성을 제기한다면 우선 문학통신원들이 특색 있는 새것을 들고 나와 문단에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한편을 써도 개성이 뚜렷한 작품을 내놓자는것이다.

신인이라 할 때 문학초년병을 의미함보다 새것을 들고 나오는 새 사람이라는것으로 자각하고 피타는 탐구와 노력, 자기 작품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의의 있는 새로운 종자탐구, 개성적인 성격묘사, 독특한 구성조직, 숨씨 있는 형상수단과 수법구사, 묘사에서의 특기 등에서 어느 한 면이라도 두드러진것을 들고 나오자.

3등당선작들중에 대다수가 단편소설로서의 체모는 갖추어 저 있지만 개성이 덜 느껴 지는 작품들이였기때문에 우와 같은 의견을 제기하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자기가 몸을 담고고 있는 현실을 당정책적안목에서 높은 탐구정신으로 대하고 의도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 현실속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창작가의 현실체험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목적의식적으로 현실을 보고 대할 때에만 레사롭게 흘러 가는듯 한 생활속에서도 의의 있는 종자를 골라 칠수 있고 개성적인 성격과 감동적인 소재를 얻을수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속에서 아무것도 얻어 칠수 없고 아무런 감흥도 충동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번 현상응모에 제출된 일부 농촌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중에는 억지로 꾸며 썼다는것이 력연한, 아무런 감흥도 느낄수 없는, 지어 진실치도 않은 성격과 생활이야기를 담은것들이 있었다.

늘 하는 소리이지만 어휘, 문장구사에 능수가 되기 위한데 특별히 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 어휘의 빈곤과 정서적리듬이 없고 문맥도 통하지 않는 문장으로는 창작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없는것이다...

×

우리는 올해 현상응모에서 문학통신원들이 거둔 성과를 두고 매우 대견하게,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게 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좌절되지 않고 각이한 초소에서 말은 혁명과업수행에 헌신하는 한편 불굴의 의지로 문학수업, 창작활동을 계속해 온 이들! 그런 속에서도 새싹들이 움 터오르고 일정한 창작년조를 가지고 있는 동무들속에서는 성장의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 놓았다. 이런 동무들에 의해 군중문학의 화원은 더욱 풍만해 지고 작가대렬은 더욱 늘어 날 것이 아니겠는가.

새 세기 주체문학앞에는 우리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을 더많이 내놓아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것은 작가들에게만이 아니라 문학통신원들앞에도 지워진 영예로운 과제인것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이런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문단에 자기 모습이 뚜렷한 이채로운 작품들을 가지고 등장하자.

동무들의 창작적성과 성공의 앞날을 축복한다!

불 라는 노을

강호진

퍼그나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생각 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기자선생은 실련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연해 졌다.

《저는 당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가요?》

맹랑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취재하려는것이 지 결코 사사로운 연애이야기나 듣자는것이 아니었던것이 다.

평양시청년건설사단 정치부에서는 그가 동대원구역련대에서 제일 먼저 로반성토공사를 끝낸 우수한 중대장이라고 소개했었다. 그러나 그의 첫마디 말은 나를 저으기 실망케 했다.

그는 얼핏 보기에 특이한 점이 별로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크지 않은 키에 체격이 단단한데 꼭 다물린 두툼한 입술과 책상우에 올려 놓고 꼭 맞잡은 큼직한 두손은 20대의 한창나이지고는 펴 진중해 보였다. 실 없는 청년 같지는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다소 실망한 나에게서는 아랑곳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창문턱에는 수수한 가설건물에서 흔히 볼수 없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비취색 자기화분에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마냥 붉게 피어 있는 꽃송이들이 류달리 눈길을 끌었다. **김정일** 화이다.

싱싱한 꽃송이들을 이윽도록 지켜 보고 있는 그의 눈에는 어째서인지 서글픔이 어린듯 하였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은 서글픔이라기보다 그 어떤 숙연한 추억에 잠겨 있는듯 한 그런 눈빛이었다.

꽃과 청년··· 나는 저도모르게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사연을 듣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자 호기심이 불쑥 생기는것이였다.

X

저는 여기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처음부터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재작년 초겨울만 해도 선뜻 여기서 일할 생각을 못했었지요.

그때 저는 공장 기술혁신조에 망라되어 성능 높은 새로운 기계제작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갓 조수에 불과했지만 그 일에 만족해 있었지요. 그래서 건설장에 탄원할데 대한 공장청년동맹조직의 호소에 선뜻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제판에는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기계제작이 성공한 다음날 저는 류달리 신이 나서 여느 때없이 일찌감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케도전차정류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사선생도 아시겠지만 아침출근시간이면 2~3분이 멀다하게 케도전차들이 꼬리를 물고 다니는데도 정류소는 좀처럼 비는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정류소와 거리에서 출근을 서두르며 봄비는 사람들을 볼 때면 늘 이룰수 없는 환희의 감정이 거세찬 물줄기처럼 가슴속에 흘러 드는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수도 고유의 활력이랄가.···

이윽고 빈 케도전차 한대가 기분 좋게 정류소에 와닿었습니다. 서둘러 전차에 오른 저는 내리기 편리한 문결의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편안히 기대었습니다.

무심히 차창밖을 내다보니 그렇게도 사람들이 많던 정류소가 샅시에 텅 비었는데 한 처녀가 무척 나이 많아 보이는 할머니를 부축하고서 뒤늦게 전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그 처녀가 나에게 눈길을 보내며 《저, 미안하지만 할머니를 좀 앉혀드릴수 없을까요?》 하는것이였습니다. 처녀의 말에 나는 그만 얼굴이 벌개 졌습니다. 비록 그 처녀가 조용히 말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하는 눈길로 지켜 보는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그 처녀가 저으기 껄뻔하게 여겨 졌습니다. 저는 마뜩지 않은 눈길로 그 처녀를 흘겨 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이구, 내야 한 정류소 가면 내릴텐데. 고맙네, 체네!》

할머니는 내가 아니라 그 처녀에게 치사를 하며 자리에 앉는것이였습니다.

허허, 그뻔 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처녀가 다소 미안해 하며 《안됐습니다.》하고 상냥하게 말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무뚝뚝한 눈길로 그 처녀의 모습을 흘려 보았습니다.

그 처녀는 털목도리며 솜옷, 지어 양말까지도 흰색이여서 마치 하얀 눈으로 온몸을 감싼듯 산뜻하고 깨끗한감을 주었습니다. 가름한 얼굴의 살결이 류달리 해맑은데 화장을 해서 그런것은 아니였습니다. 촌촌한 긴 살눈섭아래 그윽한 웅달샘같은 크고 까만 눈동자가 몹시 매력적이었습니다.

니다. 못총각들의 눈길을 대뜸 그러잡을만 한 것이었지요. 저는 쓸쓸한 눈길로 그의 미모를 스쳐 보면서 어쩐지 그 처녀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마침 나와 같은 정류소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서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역시 나와 같은 방향이더군요. 저는 왜서인지 멧적은 생각이 들어서 그 처녀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보니 그 처녀는 보통키에 몸매가 날씬한데 규칙적인 보폭으로 탄력 있게 걷는 품이 펍 침착하고 도고해 보였습니다.

그 처녀는 우리 공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피복공장 정문으로 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복공장앞을 지나가면서 야릇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우뚝한 정문안을 힐끔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그 전날처럼 정류소에 일찍 나온 저는 그 처녀의 모습을 먼저 찾아 보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 처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하얀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인차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그 처녀의 곁에 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는 저를 알아 보지 못하더군요. 그러자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날부터 우리는 날마다 함께 (사실 그 처녀는 그런 줄을 알지도 못했지요.) 출근하곤 했습니다. 저의 출근시간이 당겨 졌으니까요.

그 처녀는 마치 시간을 맞춰 나오듯이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정류소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새하얀 차림새였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흰 눈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그 처녀의 아름다움으로 여겨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외모처럼 마음도 아름다운 처녀일 것이라고 굳이 믿고 싶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에게는 그 처녀와 《함께 출근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그 처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잃어 버린 듯 온종일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혹시 제 시간에 처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정 줄에 들어서지 않고 정류소 한옆에 서서 낮 익은 흰 습 옷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이렇게 그 처녀는 내 생활의 땔수 없는 한부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처녀의 모습이 정류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 다. 2~3일이 지나서부터 저는 은근히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이라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요즘 감기는 걸리면 되게 앓는 다던데... 혹시 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건 아닐가? 한겨울에 이사를 할 리는 없겠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아침마다 출근시간도 땀 뻘 추위도 잊고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정류소에 버티고 서서 오

가는 처녀들을 걷는질해 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피복공장 정문곁에 지키고 있다가 한공장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기도 했지요.

종시 그 처녀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는 쓸쓸한 공허감이 여름밤의 어둠처럼 서서히 깃들었습니다. 만사가 시들하게만 여겨 지더군요.

아, 진작 이름이라도 알아 두었을걸! 선뜻 잡을 념을 못하고 황홀하게 쳐다보기만 하던 그 고운 새!...

아쉽기 그지없는 속에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흥심 없는 걸음으로 정류소에 나오던 저는 그만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질서 있게 늘어 선 빠스줄의 중간쯤에서 바로 그 처녀의 모습이 안겨 왔던 것입니다. 온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장구름사이로 갑자기 눈 부신 해살이 쏟아져 내리듯 마음이 대번에 밝아지고 심장은 후두둑 뛴뛰었습니다.

그 처녀는 돌격대제복 비슷해 보이는 누빈 솜옷을 입었는데 등에는 미모에 어울리지 않는 큼직한 배낭을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맑던 얼굴이 눈에 뜨이게 수척해 졌는데 전보다 더 커진 듯 한 눈만은 여전히 그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처녀의 뒤로 성큼성큼 다가가섰습니다. 그 처녀는 내가 자기 뒤에 섰거나 말거나 이따금 배낭을 추스르며 궤도전차가 나타날 방향만 초조하게 바라볼뿐이었습니다.

가냘픈 어깨를 무겁게 내려 누르는 듯 한 배낭이 저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당장 벗기여져 주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두려웠습니다. 서투른 행동때문에 겨우 다시 만난 처녀를 또 잃어 버릴 것만 같았지요.

궤도전차에 오르자 저는 그림자처럼 그 처녀의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서는 싱그러우면서도 향긋한 냄새와 함께 연한 소독수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병원에 입원했던 모양이구나. 오늘은 꼭 말을 건네 보아야지!) 하고 속다짐했습니다. 하다 못해 그 처녀의 이름만이라도 알아 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한창 그 처녀한테 어떻게 말을 건넬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궤도전차가 멎었습니다. 나도 그 처녀도 내려야 했지요. 야릇한 희망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좁게 조여 섰던 사람들이 거의 내리고 공간이 생기자 배낭을 벗어 놓기까지 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정류소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둘러 전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리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처녀의 굳어진 듯한 모습을 멍하니 지켜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까지 가려는것인가. 그새 직장이라도 옮겼는가?

케도전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예라,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따라 가보자! 저는 아예 지각을 할셈치고 땡땡하게 조였던 마음의 탕개를 느슨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 처녀는 시종 차창밖만 바라볼뿐 한번도 결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새삼스럽게 상대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저는 혹시 그 처녀가 내 마음을 눈치 채지 않았을가 하고 공연한 걱정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런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 가는 활기에 찬 거리의 풍경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는 그 처녀의 그윽한 눈에는 서글픈듯 하면서도 무척 다감한 빛이 가을날의 해빛처럼 비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알수 없었으나 우수에 젖은듯 하면서도 아름다운 처녀의 눈빛은 저도모르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뒤를 따라서 내린 곳은 만경대갈림길에 있는 케도전차종점이었습니다. 시내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온셈이었지요.

그 처녀는 시위대렬마냥 고속도로건설장쪽으로 끝없이 밀려 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이여 제가 미처 말을 건넌 사이도 없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그의 뒤를 따라 갔지요.

그날에야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이전 모습을 전혀 찾아 볼수없이 야산들과 논밭, 도로가 온통 뒤번쳐 진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건설장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완공된 드넓은 도로장쪽에 꽃밭과 잔디밭이 규모 있게 펼쳐 지고 새로 지은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풍치 좋게 일떠섰지만 건설초기에는... 온 건설장이 마치 와와 뒤설레는 바다 같기도 하고 쇠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기도 했습니다. 격랑을 일으키는 바다마냥 여기저기에 우뚝 우뚝 솟아 있는 흙더미와 자갈더미들, 바다기슭을 광광 두들기는 파도소리인양 사방에서 간단없이 터져오르는 발파소리, 방송차에서 찌렁찌렁 울려 나오는 노래소리와 자동차소리, 혼합기소리, 사람들의 웨침소리, 웃음소리... 그런가 하면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어 번지며 뛰여 오르는 쇠물불꽃인듯 맛들이며 흙마대를 들고 지고서 기세 좋게 달려 다니는 청년건설자들, 곳곳에서 펄럭이며 나뭇기는 붉은 기폭들과 대형구호관, 속도관들, 강물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지원자대렬... 보고 듣는 모든것이 가슴 벅차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공장울타리안에서만 맴돌던 저는 마치 판 세상에 온것만 같았습니다. 좁은 방안으로부터 대통로 네거리에 불쑥 뛰쳐 나온듯 한 기분이었지요.

한편 위축감이 들기도 하고 벅찬 건설장을 남들처럼 뗏뗏이 났을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처녀는 길에서 돌격대원들인듯 싶은 두세명의 청년들과 만나더니 함께 가는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내가 섣뜻 벗겨 주지 못했던 그 처녀의 배낭을 서슴없이 받아메더군요. 저의 가슴속에는 질투 비슷한 감정이 슬그머니 생기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 처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 가서 그가 동대원구역련대에서 일하고 있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정윤희, 피복공장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인데 얼마전부터 자원해서 돌격대에 나왔더군요.

결국 더는 출근길에서 그 처녀를 만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건설장에 다녀 온 뒤 저는 며칠동안 몹시 고민했습니다.

시대와 나의 생활... 그 처녀는 세찬 격류속에 뛰여 들어 바다로 달려 가고 있었으나 저는 잔잔한 기슭에서 흐르듯마듯 하며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처지에 있었지요. 우리 시대의 청년이라면 웅당 그 처녀처럼 시대의 흐름속에 뛰여 들어야 했습니다. 시대와 나의 생활, 그것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뗏뗏하게 건설장을 밟고 싶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우리 시대의 뗏뗏한 창조자로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랑도 뗏뗏하게 하고 싶다, 그 처녀한테 짝지 않게... 저는 흥분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내렸지요.

우리 공장 청년동맹비서는 내가 스스로 탄원을 제기하자 잘 믿어 지지 않는다는듯 한 표정을 짓더니 인차 기술혁신조성원들에 대한 표창사업이 있을것이라는 말을 비치였습니다. 그 말에 미련이 없지도 않았으나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는 남들이 이룩한 성과의 그늘아래서 자신을 위안하며 살고 싶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저는 건설장으로 나왔고 그 처녀와 같은 중대, 같은 소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처녀-윤희와 함께 일하고 말하고 웃고 노래했습니다. 예리한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듯 한 맵잔 추위, 숨 쉬기조차 가쁜 지겨운 무더위, 뻘속까지 젖어 드는듯 싶은 차디찬 소나기, 창자를 허비는 배고픔, 마대에 쓸리어 벗겨진 어깨의 상처와 신발이 닳고 터갈라 저 피가 줄줄 흐르는 발가락의 아픔,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가까와 졌습니다. 시련이 인간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를 더없이 가깝게 만든 촉매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남 모르게 묻어 둔 그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흘러 갔습니다. 왜

냐구요? 저는 윤희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이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런 처녀의 사랑을 받기에는 저한테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반했다고 해서 쉽게 하는것이 아니더군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건설한 평양-남포고속도로에 《청년영웅도로》라는 값 높은 이름을 달아 주시였습니다.

《청년영웅도로》! 이전처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잘 먹고 잘 입으면서, 편안히 발편잠도 하면서 건설한것이라면 우리는 이 도로를 《청년영웅도로》라고 떳떳하게 부를수 없었을것입니다.

100여리 청춘로반이 완공되기까지는 600여일이라는 나날이 흘렀습니다. 600여일, 그것은 비장하고 간고한 시련과 함께 아름답고 눈물겨운 랑만과 피 타는 열정으로 이루어 진 나날이였습니다.

남자들은 더 말할것 없고 연약한 처녀들까지도 함마를 잡고서 암반을 뚫고 발파를 했습니다. 지휘관도 대원들도 모두가 흙배낭과 마대를 지고 하나같이 달렸습니다. 신발이 꺾이면 맨발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도 달렸지요. 식사하러 식당까지 가는 시간도 잠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주먹밥 한덩이로 달리면서 끼니를 예우고 차디찬 땅 위에 비웃으로 천막을 치고 돌을 베개 삼아 쪽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속에서 태어나 자라온 청년들이였지만 그 모든 시련과 난관을 웃으면서 이겨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였지요.

그러나 웃는다는것이 쉽지 않았습다. 지금은 이처럼 레사롭게 말하지만 건설장으로 나온 저한테 들이닥친 첫 시련은 추위나 배고픔, 피로보다도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때없이 나약해지고 후회하고 스스로 다진 결심을 저울질하게 되는 자기자신을 이겨 내는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한테 간고한 시련을 어떻게 웃으며 이겨 내야 하는가를 깨우쳐 준 사람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가냘프게 여겨 져서 제가 원심을 써오던 윤희,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모진 눈보라가 울부짖는 한겨울의 밤, 이전 같으면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을 밤입니다.

날카로운 칼끝으로 온몸을 쿵쿵 찌르는듯 한 추위가 사정없이 얼굴과 손발을 얼구어 버립니다.

랭혹한 겨울의 싸늘한 웃음발인듯 싶은 시허연 눈보라가 영악스러운 손길로 얼어서 콧꿨해 진 뺨을 후려 같기고 눈조차 제대로 뜯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어서 작업장을 떠나지 않으면 뽕뽕 얼구어 버리겠다는 말 없는 위협인듯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흙마대를 지고 달립니다. 사실은

온종일 달리여서 지치고 뻣뻣해 진 다리를 간신히 옮길뿐이지만...

만약 순간이라도 벗어 서게 되면, 자기가 지금 겨우 걷고 있다는것을 느끼기만 하게 되면 더는 걸을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려 물고 한사코 《달림》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합니다. 따뜻한 집, 눈앞에 유혹적으로 어른거리는 푸집한 식탁, 여름날 뽀트를 타고 떠다니던 대동강물결위에 아롱지며 부서지던 눈 부신 햇빛... 자신이 측은하게 여겨 지기도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약골이던가.

내가 서뽀리 건설장으로 나온것이 아닌가.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더니 내가 너무 쉽게 이 길을 택한것 같다. 순간의 흥분에 들떠서...

이런 생각에 두루 시달리다가 저도 모르게 윤희의 모습을 찾아 봅니다. 한가닥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으려는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윤희가 초저녁에 쓰러졌었지. 지금은 숙소에 누워 있겠구나. 다친 곳은 없다는데 왜 쓰러졌을가? 혹시 앓고 있는것은 아닌지... 이러다간 윤희도 나도 여기서 아주 쓰러지고 마는것이 아닐가? ... 걱정과 불안이 쇠집게처럼 심장을 조입니다.

문득 결으로 달려 지나는 흙배낭을 진 윤희의 모습이 눈결에 스쳤습니다. 한순간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다시 보니 윤희는 아닙니다. 그 처녀와 비슷하게 생긴 윤희의 동생 윤옥입니다. 그들 자매는 돌격대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윤옥이는 언니보다 키가 조금 크고 몸도 실하고 사과알처럼 량볼이 밍그레하고 통통합니다. 활달하고 귀여운 처녀인데 어째서인지 윤희한테는 자기가 언니이기라도 한듯이 몹시 원심을 쓰곤 했지요.

《윤옥이, 같이...가...자구!》

저는 얼어 든 입술을 겨우 놀리며 그 처녀를 불렀습니다. 윤옥이는 땀뻘 추위속에서도 얼지 않고 싱싱한 붉은 량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생긋 웃어보입니다.

《진혁동지, 힘을 내라요!》

《어- 난... 일 없어. 언니... 언니가 좀 어때?》 생기 있던 처녀의 얼굴에 금시 그늘이 집니다. 《너무 무리했어요. ...언니 그렇게 일하면 안되는데...》

《?...》

그때 누군가가 소리없이 내곁에 다가섭니다.

《무슨 이야기를 재미 있게 하나요?》

맑고 쾌활한 목소리에 나도 그렇지만 윤옥이가 펄쩍 놀랍니다.

《언니, 왜 나왔어요?!...》

《너 혼자만 진혁동무와 말하는것이 시샘나서!

호호…》

《언니 정말… 어서 들어 가!》

윤옥이가 안타까운 어조로 부르짖으며 저를 에둘러 윤희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윤희는 살짝 웃으며 동생이 섰던 곳으로 피합니다. 두 처녀는 무슨 기동인듯 나를 사이에 두고서 쫓고 달아나며 돌아 갑니다.

《아, 그만… 그만하오. 어지럽소, 이거. 윤옥이, 넘어지겠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 저서 그들의 손을 각각 붙잡습니다.…

《씨, 두고 보자! 정 그러면… 다 말할래요!…》

뿔로통해서 내뿜는 윤옥의 말에 윤희는 장난기를 가시고 정색해 진 얼굴로 동생에게 눈총을 박았습니다. 짧은 순간 오고 가는 그들의 눈길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을 몰라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의 손에 무엇인가 슬며시 쥐여졌습니다. 열결에 보니 주먹밥덩이더군요. 저녁끼니로 한덩이씩 나누어 주었던것이지요.

《?!…》

《전 아까 숙소에서 따로 치료식사를 했었어요. 어서 들어요.》

저는 불이 짝이고 살색이 창백해 진 윤희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여겨 보았습니다. 앵두처럼 도두룩하고 발기우리하던 입술이 마르고 터갈라 졌는데 볼과 이마에는 깨끗이 씻기는 했으나 돌에 긁힌 자리가 거칠게 남아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쓰러지면서 생긴 상처였지요. 이전과 다름 없는 것은 까만 눈, 해빛이 반짝이는 옹달샘처럼 따뜻한 미소가 찰랑거리고 있는 그윽한 눈동자였습니다.

따로 식사를 했다는것이 거짓말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밤 늦게까지 연장작업을 할 때면 그는 곧잘 속이 말쑥하면서 자기몫을 나어린 처녀들이나 힘들어 하는 남자들에게 넘겨 주곤 했었지요. 경험으로 보아 그것을 거절하는것은 부질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 지는것을 느끼며 말없이 주먹밥덩이를 숨웃주머니에 정히 건사했습니다. 두었다가 윤옥이한테나 주려는것이였지요.

방금전까지 위장을 아프게 굶어 내리던 배고픔이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윤희가 준것이 단순한 주먹밥 한덩이가 아니라 남 다른 살뜰한 관심인것만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출지요? 이 목도리를 두르세요. 일 없어요. 밤인데 누가 보면 뭐래요.》

《어, 뻬소. 그렇지 않아도 더… 더워서 죽겠는데.》

《언니 바람 맞으면 안돼요. 진혁동지, 제걸 두르라요!》

《아, 이런 그만두라니까.… 랑쪽에 딱 붙어서

못 살게 구는구만!》

《호호, 좀 웃으세요. 그렇게 땅속으로 잣아드는 인상을 하지 말고.》

《영? 허허… 하하하!》

어쩐지 기분이 즐거워 졌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생글거리던 윤희가 갑자기 장난 곳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혁동무, 힘들고 배 고프걸 이거 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흠집을 지고 나란히 달리면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곰살궂게 대꾸했습니다.

《모… 모르겠는데? 좀 대주요.》

《대주면 뭘 주겠어요? 이건 공짜가 아니예요.》

저도 모르게 《심장을 주겠소!》하는 말이 입밖으로 튀어 나올번 했으나 제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대신 이야기거리 하나를 생각해 냈지요.

《어떤 엉터리의사가 말이요.…》

《엉터리의사요?…》

《응, 아파서 피로워 하는 환자한테 새… 새로운 치료방법을 대주었다요.…》

저는 무겁게 어깨를 파고 드는 배낭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방법이랑게 다름 아니라 <훨씬 낫습니다>라고 두번을 외우는것이라고 했지. 그런데… 환자는 연거퍼 세번이나 반복했소. 아픔이 빨리 멎을가해서 말이요.…》

《그래서요?》

《그러자 의사가 한다는 말이 <훨씬 낫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500원만 내시오!> 했거든. 환자의 세번째 대답은 자기의 치료방법적용의 결과라고 말이요.…》

《어마! 호호… 진혁동무 꽤 능청스러운데요.》

《그러니 동무의 비결이란것도 들어 봐야 그 값을 안단 말이요.…》

《좋아요! 그 비결은…》

《뭘요?》

《웃는거예요!》

《뭘? 하하… 하하하!》

《호호호…》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깜박 속은것만 같아서 저는 웃고말았습니다.

《어때요? 웃으니까 힘이 생기지요?》

《엉터리요, 엉터리!…》

《뭘예요?》

윤희는 짐짓 성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 들었습니다. 저는 꺾꺾거리며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가 기를 쓰고 따라 올수록 더욱 신이 나서 달아 났지요. 그러자 뒤에서 두 자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명랑한 목소리가 날아 오는것이었습니다.

《보라요. 힘이 생겼으니 그렇게 냅다 달리지요!

이래도 엉터리예요?》

《응?!...》

그러고 보니 제가 정말 썩썩 달리고 있었습니
다. 문득 저한테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며 얼마나
지 달릴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웃으니 얼마나 좋아요! 전 진혁동무가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그래야만 전 동무를 사랑하
겠어요!》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윤희가 바라다
면 기꺼이 웃을수 있었습니다.

《좋소. 그럼 내 이렇게 웃지. 하하하...》

《호호호, 우리 달리자요!》

《달리자구!》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스스로도 놀라울만
큼 저는 씩씩하게 내달렸습니다. 곁에서는 윤희
가 허연 입김을 확확 내뿜면서 웨칩니다.

《강성대국-》

《다가온다!》

《어서 가자-》

《달려 가자!》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달리기 시작했
습니다. 작업장은 후더운 열풍이 불어 친듯 웃고
떠들고 땅을 구르는 소리로 벅적 들끓었습니다.
발밑으로 뒹뒹 흘러 가는 얼어 붙은 땅, 질겁한
듯 흘러 저 가는 어둠, 눈보라의 아우성을 짓누
르고 랑랑하게 터져 오르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웨침소리... 그중에서도 유난히 저의 귀전을 두들
기는것은 마치 관현악단의 트럼베트소리마냥 쟁
쟁하게 울려 퍼지는 윤희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
다. 그것은 누구든지 저도 모르게 빙글썩 따라
웃게 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이전에는 무척 조용
한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처녀가 어째서 남
들과 다름 없는 피곤과 배고픔, 지어 남 모르는
아름까지도 이겨 내며 것처럼 명랑하고 쾌활하게
웃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웃지 못했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윤희의 웃음이 사
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의무적인》 웃음이라고까
지 생각했더랬지요. 그는 중대선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순결하고 진실한 웃음이었지
요. 그런 웃음은 억지로써 지어 낼수 없습니다.

윤희는 남 먼저 자기자신을 이겨 낸 처녀였습
니다. 저는 그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소설
에 나오는 《어려운 생활을 이겨 나가는것도 훌륭
하지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것은 더 훌륭하
다》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음미해 보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생활이란 늘 웃음과 랑만으로 이어 지
는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 시대를 가리켜 한
마디로 《랑만의 시대》라고 하는데 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랑만속에 얼마나
비장하고 눈물 겨운 투쟁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지 세상이 다는 모르지요...

기자선생은 우리 건설장에서 흙과 자갈이 얼마
나 귀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함마로 굴을 뚫
고 산을 발파하여 흙을 얻어 내야 했습니다.

우리 중대앞에는 직경이 2m 이고 깊이가 17m
나 되는 수직굴 40개를 뚫어야 할 과업이 나섰했
습니다. 그것도 단 한주일동안에. 사람은 적고 과
업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해내야 했습
니다.

우리는 남녀 두명씩 조를 묶고 한조가 굴 하나
씩 뚫기로 했지요. 저는 윤희와 한조가 뚫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여 진것은 함마와 정대뿐이고
발밑에는 바위처럼 얼어 붙은 땅이었습니다. 바
로 그 땅속으로 우물 같은 수직굴을 뚫어야 했습
니다.

우리는 낮과 밤, 식당과 숙소를 잊어 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작업시간이고 굴속에서
이동식사를 했으며 굴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깐
씩 눈을 붙이곤 했지요. 시간, 시간이 무척 아까
웠습니다.

처음 며칠동안 저는 힘든줄을 별로 몰랐습니
다. 윤희가 곁에 있었기때문이였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랑만적으로 여겨 지기까지 했습니
다.

《윤희동무, 우리가 꼭 1등을 하지요. 함마질은
내가 맡겠소!》 하고 큰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이틀도 못 가서 함마자루가 연방 뚝뚝
꺼어 지고 정대가 암반에 부딪쳐 탕탕 튀어 나며
일자리가 나지 않게 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
니다. 한주일동안에 굴을 뚫는다는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 졌지요. 연 이틀 낮과 밤을 뚫었건만
겨우 3m 도 못 내려 갔던것입니다. 이제 닷새동
안에 남은 14m 를 뚫어야 했는데 도저히 해낼것
같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20번째로 함마자루가 꺼어 저
나갔습니다. 저는 약이 오르고 기가 막혀서 손에
남은 함마자루를 멍하니 들여다 보다가 굴벽에
힘껏 내동댕이쳤습니다.

《에잇, 제기랄!-》

저는 굴벽에 기대어 세워 놓은 함마자루단을
넘어 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함마를 잡을 힘도 없소!...》

저는 리성을 잃고 그냥 투덜거렸지요.

《지금처럼 일하다간 아예 쓰러져 버리고 말게
요. 아니, 더는 이렇게 못하겠소...》

자신의 무분별한 언행이 윤희의 눈과 마음속에
어떻게 비쳐 들것인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
를 쳐다보고 있는 윤희의 눈에는 놀랍고 안타까

와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길을 들어 머리위에 새파랗게 펼쳐진 찻잔하늘을 한동안 올려다 보더니 속삭이듯이 혼자소리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야 누가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제물에 열이 올라 떠들어 대던 저는 그의 조용한 말에 급소를 찔려운 것 같았습니다. 수굴전투를 위한 중대결기모임에서 결의토론까지 했던 저였으니까요.

《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안 되요!...》

저는 한결 맥 빠진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해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주진 못해요!》

윤희가 나직하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함마자루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외면하고서 어찌서인지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성급하게 몇모금을 연거퍼 들이 빨았지요. 좁은 굴안에는 담배연기가 무겁게 서리었습니다.

저는 차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윤희앞에서 못나게 굴진 뉘람, 바보같이!

《진혁동무, 또 해보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싶게 태연하고 조용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는 일어 서려다 말고 일부러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쉬고 하지요. 손바닥의 물집이 다 터졌소.》

남자들은 때로 녀자들한테 괜한 엇드레질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응석과도 같은 것이지요.

《몹시 아파요?》

저는 말없이 두손을 쭉 펼쳐 보이며 시뚱한 눈길로 그를 흘려 보았습니다. 속으로 이제 윤희가 《어마나, 이런 줄은 모르고 제가... 어서 봉대를 감지요!》 하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저의 상처를 쓸어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윤희의 두손이 눈앞에 펼쳐 지는 순간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처녀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만큼 험상궂게 찢기고 더갈라진 손... 손바닥가운데는 칼로 마구 긁어 낸 듯이 빨간 피가 내배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정대를 동여 맨 쇠바줄을 잡고서 일했는데 그 터슬터슬한 쇠바줄이 손바닥을 마구 찢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쇠방망이에 얻어 맞은 듯 머리가 뻥했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마주 볼 용기조차 나지 않더군요.

윤희는 말없이 돌아 서서 너털너털하고 피에 젖어 곳곳해진 자기 장갑으로 정대에 맨 쇠바줄을 감싸 놓고는 함마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대를 잡아 주세요!》

《?...》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엉거주춤 일어 났습니다.

《윤희동무...》

《어서 잡아 주세요!》

조용하고 짙막한 그의 말은 채찍처럼 맵싸게 저의 귀전을 후려 쳤습니다. 저는 이마살을 찡그리고 그가 잡은 함마에 손을 뻗치며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이리 내오!》

그러나 날쌔게 한걸음 물러선 윤희도 축축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안돼요! 어서 정대를 잡아요!》

우리 두사람의 눈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허공에서 맞부딪치며 한동안 불꽃을 튀겼습니다. 불타는 눈동자! 웨치는 눈동자!... 저는 그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말았습니다.

《에익, 종소!》

저는 정대를 집어 들어 윤희가 정성껏 감아 놓은 장갑을 와락와락 풀어 내치고 쇠바줄을 잡았습니다. 뽕죽하고 예리한 쇠바줄가시들이 손바닥을 마구 찢었습니다. 자, 때리오. 이 못난 놈의 머리통을 답새기란 말이요!

탕! 타-당! 탕!- 묵직한 함마가 서둘면서도 야무지게 정대를 내려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탕! 타-당! 탕!...

윤희, 제발... 제발 그만해 주오. 내가 하겠소. 내가! 저는 속으로 넋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가느다란 비명과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윤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함마를 빗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와락 달려 들어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거세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내가 다...》

저는 그의 손에서 함마를 뺏어 들고 일어 섰습니다. 그가 다시 빼앗지 못하도록 함마를 꼭 틀어쥐었지요. 윤희는 처절한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정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헤덤비며 바닥에 덩굴던 장갑을 쇠바줄에 감싸 주었습니다.

어쩐지 눈앞이 부딪해서 정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받치는 걱정을 누르며 함마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탕!-

윤희는 축축한 살눈섭아래 정겨운 빛이 어린 그윽한 눈으로 말없이 정대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아량과 이해와 간절한 기대가 어려 있는 그 눈길... 저는 힘찬 함마소리로 그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날 용서해 주오.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테요!...

그날 밤 윤희가 새 정대를 가지러 간 사이에 저는 굴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손바닥이 짜릿하게 아파 나서 잠결에 눈을 떠보니 언제 돌아 왔는지 윤희가 내앞에 마주 앉아 저의 손에 봉대를 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내 손보다 더 험한 상처를 입은 그가 날뜬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그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촌촌하고 휘우듬한 속눈썹에서 구슬 같은것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굴벽에 꽂아 놓은 해불빛에 반짝이던 그 구슬이 뿔랑 내 손바닥에 떨어 졌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세찬 걱정과 파도가 뒤설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눈길을 들어 굴밖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뽀얀 달빛이 은은히 차흐르는 유정한 하늘가에서 부드럽고 깨끗한 기운이 저의 심장속으로 흘러 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어 눈길을 떨구어 보니 봉대를 다 감은 윤희가 저의 손을 살들히 모아잡고서 말없이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해불빛이 어린 맑은 눈동자가 따뜻하게 타고 있었지요. 눈물이 반짝이는 그 눈가에 사려 깊은 미소가 노을처럼 어리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쭙은 표정으로 그 미소를, 눈물에 젖은 애뒀한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마를 잡았습니다. 윤희의 정과 믿음이 어린 봉대가 감긴 두손으로...

탕-탕-탕! 굴벽에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키는 함마소리, 그것은 저의 웨침이였습니다. 다시는 주저앉지 않겠다! 다시는 물러 서지 않겠다!...

우리는 옛세만에 제일 먼저 굴을 뚫어 냈습니다.

그때의 일로 하여 우리 두사람은 공로메달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희와 함께 단 둘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락회로 떠들썩한 숙소에도 명절날처럼 흥성거리는 무도회장에도 특식준비가 한창인 식당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안달이 나서 사방으로 찾아 다니던 저는 어둡고 조용한 작업장에서 홀로 움직이고 있는 해불 하나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여 달려 가보았지요.

윤희였습니다. 그런데 불빛에 비쳐 진 그의 얼굴에는 여직 한번도 본적 없는 피로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비껴 있는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심장이 짜늘하게 식어 드는것만 같았습니다. 어째서 저러는가? 어째서... 저는 그에게로 씨엥씨엥 다가갔습니다. 불쑥 나타난 저로 하여 퍼그나 놀라는 그의 어깨에서 무작정 배낭을 벗겨냈습니다. 윤희는 성난듯 한 저를 조용히 지켜 보다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묻는것이었습니다.

《진혁동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외면하고 배낭을 어깨에 메면서 툭명스럽게 대꾸했지요.

《동무 혼자 장한 일을 하는게 시샘나서 그러요. 열흘 갈 길을 하루에 다 가려다간... 쓰러지고 마오!...》

그리고는 받으려는 황소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술직히 말해 보오. 어디 앓는게 아니요?》

그는 경계하는듯 한 눈길로 저를 피끗 쳐다보

더니 가볍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오? 이 기쁜 날에...》

지곳은 물음에 윤희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자책에 젖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전 지금... 자신을 돌이켜 보는중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요?》

《저는 오늘... 훈장수여식때 공로메달을 타게되자 좀 서운했었어요. 남들은 <김일성청년영예상>이나 훈장을 타는데 전 겨우 메달밖에 못 탔다고... 아마 진혁동문 저를 나무라겠지요? 전 지금 <순결한 량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거침없이 외우던 말이었는데...》

그의 터갈라 진 입술새로 가는 한숨이 새여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얼굴에 비졌던 고통과 피로움속에 육체의 아픔보다도 량심의 모대김이 깃들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해불을 여러번 갈아 대며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밤저는 윤희야말로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아름다운 처녀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푸름푸름한 새벽빛은 청신한 기운에 실리어 소리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스물일곱해를 살아 오면서 생활이 그 새벽처럼 기쁘고 즐겁고 환희롭게 느껴 진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땅위에 잔잔하게 떠흐르는 안개속에서 홀린것처럼 새벽하늘을 바라보던 윤희가 문득 나에게로 머리를 돌렸을 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던것입니다.

하얀 이마위에 흘러 내린 땀에 젖은 머리칼, 피로에 젖어 있으면서도 하냥 그윽하게 빛나는 눈동자, 순결한 웃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처녀... 저는 그 처녀에게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간의 애정이 시작될 때 처처럼 처음에는 겉모습에 반하고 다음에는 인간됨에 끌리운다고 합니다. 먼저것이 현혹이라면 다음의것은 매혹이겠지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매혹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행복이기도 합니다.

기자선생, 저는 그 처녀를 사랑하고 있다는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윤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칠은 유리를 연마하여 맑은 거울로 만들듯이 자신을 꾸준히 성실하게 가꾸어 윤희처럼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땃땃이 고백할수 있다고 자부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대렬에 들어 서게 되고 또 소대장으로 임명된 날이었습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저는 윤희를 불러 내여 속

소위의 나지막한 언덕으로 올라 갔습니다. 약간 쌀쌀한 가을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언덕에는 크지 않은 단풍나무 한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의 가슴은 건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하여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툭툭툭툭 뛰는 소리가 몸밖으로 튀어 나올듯 했습니다. 윤희가 그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지요.

저는 우정 툭한 표정으로 적당한 말마디를 골라보았지요. 그러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통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화가 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윤희도 그 어떤 예감이 들었던지 저의 모습을 살며시 훑쳐 보다가 들릴락말락한 가는 한숨을 내쉬더니 평시와 같은 명랑한 표정을 짓는것이었습니다.

《소대장동무, 할 말이 뭔지 어서 하세요!》

짐짓 태연한 어조였으나 그도 나만 못지 않게 긴장되어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는 손가락끝에서 애꿎은 손수건이 노끈처럼 비틀려 꼬이고 있었던것입니다. 일부러 탄전을 피우는 처녀가 야속하게 여겨 졌습니다.

《걸어 치우오. 똥판지같이 소대장은 또 뭐요?》

윤희는 별처럼 눈을 반짝이며 새물거렸습니다.

《어마, 성은 왜 내요? 호...》

제길, 이게 무슨 꼴이람. 사내대장부라는게 잔뜩 쫓아서! 저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큰 숨을 들이 쉬고는 헛기침을 몇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난 오늘 동무에게... 참, 그전에 먼저 지난 날의 일부터 이야기해야겠소...》

저는 그를 외면하고 남의 말이라도 하는것처럼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궤도천안에서 그와 처음 만나던 일, 남 몰래 속을 썩이던 나날, 그의 뒤를 따라서 건설장까지 왔던 사연이며 그후에 다진 결심... 모든것을 죄다 털어 놓았지요.

《...일은 그렇게 된거요. 그래서 난... 나는 동무와... 일생을 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소!》

윤희는 저의 말에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 다. 마치 딴 생각에 잠겨 있는듯 한 눈길로 희미하게 자태를 드러낸 고속도로로반만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초조와 불안이 갈마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저르기 흥분된 목소리로 서둘러 덧붙였다.

《물론 난 자신이... 아직 멀었다는걸 알고 있소.

하지만 반드시... 동무가 바라다면... 난 영웅도 되겠소. 될수 있단 말이요!》

윤희의 표정이 침착해 질수록 저는 더욱 당황해졌습니다. 서늘하면서도 쌀쌀한 기운이 서린 초가을바람이 화끈 달아 오른 저의 얼굴을 슬며시 어루쓸고 지나가는것이었습니다. 소리없이 날아 내린 단풍나무잎 하나가 발밑에 떨어 저 내렸습니다.

이윽고 애 타게 기다리던 윤희의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입속에서 몇번이고 곱씹어 본듯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진혁동무, 꼭 영웅이 되어 주세요. 전 믿어요!...》

평곳- 불안과 초조로 졸아 드는듯 싶던 심장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일어 났습니다. 심장이 대뜸 고무풍선마냥 부푸는것만 같았지요. 행복과 기쁨과 환희... 가슴속에서 걱정의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그러니까... 그러니 동문!...》

저는 윤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의 매 손가락마다 봉대가 감겨 있고 살결이 거칠어 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긴 속눈썹을 살며시 내려 감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것이었습니다. 이름할수 없는 한순간이 지나자 그는 느리면서도 단호한 동작으로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열결에 따라 일어 섰지요.

《?!...》

불길한 예감이 전류처럼 찌르르- 머리속에 흘렀습니다. 윤희는 저를 외면하고 꼳꼳이 서서 칼로 자르는듯 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전 동무의 사랑을 받을만 한 처녀가 못돼요. 용서하세요. 진혁동무!...》

갑자기 심장이 툭 멎는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 지더군요. 한순간에 글썽 행복의 절정으로 부터 실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 진것입니다.

침묵, 이름할수 없는 피로운 침묵, 뼈를 깎는듯한 아픈 침묵... 윤희는 소스라치듯 온몸을 가볍게 떨더니 제가 어쩔새도 없이 허둥지둥 언덕을 달려 내려 가는것이었습니다. 금시 쓰러질것만 같이 비칠거려지면서...

저는 어둠속으로 잤아 드는 그의 모습을 아연 실색해서 떨거니 지켜 보기만 했지요. 목구멍이 꼭 막혀 버리고 손발이 굳어 저버린듯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한참후에야 비로소 꿈속에서 깨여 난듯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 뇌리를 치는것은 윤희가 분명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심장의 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의 사랑을 거절했을까?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저도모르게 으스스리도록 틀어 쥔 주먹이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단풍나무줄기에 함마처럼 들이 박혔습니다. 텅!- 간신히 가지에 남아 있던 크고 작은 단풍잎들이 머리와 어깨우에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에 오래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희망과 행복의 탑이 산산부서져 무너지며 튀어 난 감정의 조박들인듯 했습니다.

아, 윤희, 윤희. 도대체 무엇때문에... 저는 속

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저도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또다시 창문가의 **김정일**화를 지켜 보는 그의
노동자는 안개 낀 웅심 깊은 바다와도 같았다.
어쩐지 그들의 사랑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
졌다. 할수만 있다면 힘껏 도와 주고 싶었다.
그런데 윤희라는 처녀가 어째서 청년의 사랑을
거절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요?》
나는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말없이 움쭉
일어 나서 우리가 마주 앉은 긴 책상에 잇대인
편수책상앞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무엇인가 꺼내
들었다. 두터운 포장지로 정성 들여 싸 한권의
책이었다.

그는 책의 한 부분을 펼치며 내앞에 놓아 주었
다. 그리고 갈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처녀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 보
십시오...》

그의 눈곱에서 물기가 번쩍었다. 나는 저으기
놀랐다. 그는 의혹 어린 나의 눈길을 피하며 조
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웬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이다.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 처녀, 그는 과연 어떤
처녀인가?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조이며 일기
장에 눈길을 주었다.

주체88(1999)년 10월 ×일

자꾸만 눈물이 썸 솟아 두볼을 하염없이 적신
다. 울지 말자. 울기는 왜 우니? 하면서도 계속
울고만 싶어 진다. 이것이 행복의 걱정인지, 슬픔
의 하소연인지 알수 없다...

사랑하고 싶다. 뜨겁고 열렬하게, 모든것을 깡
그리 다 바쳐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는 나의 이
심정을 알기나 할까?...

어두운 언덕위에 바위처럼 굳어 저 서 있던 그
의 모습이 아프게 되살아 안겨 온다. 아, 단 한번
만이라도 그의 억세고 믿음직한 가슴에 안기어
행복의 미소를 짓고 싶다.

사랑! 마땅히 행복하고 아름다와야 할 인생의
불언덕이 나에게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가슴 아픈
슬픔의 고개로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더는 울
지 않겠다. 나는 웃으련다. 더 밝고 명랑하게!

아, 진혁동무, 저를 용서하세요!...

주체88(1999)년 11월 ×일

오늘 진혁동무는 언제인가 부탁했던 **김정일**화
를 구해다 주었다. 그는 늘 이전과 다름없이 나
를 대해 주지만 그 대범한 태도에서 나는 때없이
피로움과 의문, 심장을 통채로 녹여 버릴듯 한
애정의 열기를 느끼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도망
치듯 그의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있을수 없는것이다...

김정일화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으나 실한 줄

기며 심장형의 넓은 잎새마다에서 싱싱하고 역센
기상이 어려여 온다.

사람들은 흔히 꽃과 인생을 비교하곤 한다. 꽃
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몸과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것은 예로부터 일러 오는 말이다.

하지만 **김정일**화는 나에게 범속한 인생리치가
아니라 의미 깊고 힘이 되는 인생의 철리를 가르
쳐 주었다. 년초에 열흘나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통과 절망속에서 모태기던 나에게 새로운 희망
과 신심을 안겨 준것이 바로 우리 호실에 피여
있던 **김정일**화였다.

가장 강한 인간은 고난과 시련의 폭풍속에서도
신념의 웃음을 지을줄 아는 사람이다. 신념, 그
것은 곧 랑만을 낳고 희망을 낳는다.

김정일화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위인의 웃음을
나에게 안겨 주었다. 간고한 역경속에서도 당과
조국과 시대를 신념의 웃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살며 싸우라고 당
부하는듯 했다...

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아버지장군님을 모시는 그날 그이께 삼가 드리
고 싶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주체88(1999)년 12월 ×일

고요가 깃들었다. 초겨울의 때 아닌 소낙비에
뒤이어 차거운 진눈까비가 하염없이 내려 앉는
로반우에서 어둠을 태우며 솟구치는 우등불가에
나른한 고요가 깃들었다. 탁-탁! 활활 타오르는
불길속에서 젖었던 나무가 튀는 소리조차도 그
고요의 한 부분인듯 싶었다.

불가에 빙 둘러 앉은 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무거운 피로와 함께 시름 없는 안도감과 평온이
노을처럼 어려 있었다. 갑자기 역수로 쏟아 저
내리는 소나기가 새로 쌓은 로반을 위협하는 바
람에 저녁식사를 하다 말고 달려 나온 우리들이
였다. 간고한 전투끝에 로반은 지켜 냈으나 소낙
비에 젖고 피로에 지쳐서 누구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다.

나는 따뜻한 불앞에 마주 앉자 동통이 온몸을
들쭉시키고 피로해서 참을수가 없었으나 기진해 있
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휴대
용확성기를 찾아 들고 안간힘을 다하여 일어 섰
다.

《동- 무- 들!》

확성기로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가늘기만 했다. 다시금 힘을 모아 웨치다싶이 부
르짖었다.

《동무들!...》

수십쌍의 나른한 눈길들이 힘겹게 쳐들리었다.
《이게 무슨 꼴들이예요? 방금전까지 펄펄 뛰던
대장부들이! 꼭 런애하다 채운 사람들처럼 잔뜩
풀이 죽었군요!》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생기를 띄우며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려다 말고 생각을 고쳐 했다.

《제가 시를 하나 읊어 드리겠어요. 어때요?》

《중-소!》

《윤희동무, 그걸 읊소. 거 있지 않나. 백두산에 오르리! 하는걸》

나는 애 써 자세를 바로 잡고서 제일 사랑하는 시를 읊기 시작했다.

백두산!

내 토끼무늬가방 메던 시절
크레용으로 너를 그리던 그날엔
어린 마음의 나래 펴고
네우에 올랐다

붉은 넥타이시절
아버지가 가져 온 백두산의 돌을 안고
잠 못들던 그 밤엔
내 꿈속에서 네우에 올랐고

답사 갔던 작업반의 그 동무
백두산헌시비의 글발을 줄 땀
내 그 시를 읊으며
네우에 올랐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승엄해 지고 흥분되었다. 동통도 추위도 피로도 어디론가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듯 했다.

조용히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제 나름의 생각 깊은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부나비처럼 맴돌며 훑날리는 진눈까비속으로 희뿌옇게 안겨 오는 검푸른 밤하늘가 저 멀리 북쪽을 우러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

티없이 푸르른 너의 천지물은
바치는 삶에 진함 없을 나의 피!
치솟아 아아한 너의 일만산악은
죽어서도 변치 않을 나의 신념!

오, 백두산 백두산아
네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차거운 진눈까비가 화성기를 추켜 든 나의 손우에, 흥분으로 달아 오른 모두의 얼굴마다에, 살얼음진 대지를 녹이는 우등불속에 소리없이 날아 내리고 있었다. 어쩐지 우등불을 통채로 껴안은 듯 마음속이 훈훈해 지는 것이었다.

발밑으로 곧게 뻗어 간 희뿌연 로반우에 수십 수백개의 우등불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

에게는 그 모든 우등불이 사나운 겨울도 얼굴수 없는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신념과 량만의 웃음처럼 느껴 지었다.

기세 좋게 타번지는 우등불은 어둠을 불 사르며 하늘가로 우줄우줄 솟구쳤다. 그 불꼬리에서 튀겨 오르는 불꽃들이 밤하늘에 그대로 박힌듯 재빛구름장들사이로 은빛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들 못지 않게 빛나는 중대원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꿈이 비껴 있는 듯 싶었다. 강성부흥할 내 조국의 래일, 우리가 창조해 가는 희망찬 생활의 미래를 그려 보는 아름다운 꿈이!...

가벼운 기척에 이어 출입문 열리는 소리에 나는 마지 못해 일기장에서 눈길을 뺐다.

갓 스물을 넘겼음직한 량불이 붉고 귀엽게 생긴 처녀가 물주전자를 들고서 미안쩍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 서는 것이었다.

《안됐습니다. 꽃에 물을 줄 시간이어서...》

아직 정신이 일기장속에 잠겨 있던 나는 열결에 머리를 끄덕였다.

《예, 어서.》

조용히 창가로 다가간 처녀는 꽃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꽃화분을 지켜 보았다. 일기의 주인공 윤희라는 처녀가 남다른 사연을 안고 피웠다는 **김정일** 화.

꽃과 처녀... 나는 타는듯이 붉은 꽃송이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한가지 좀 물읍시다. 정운희동무가 지금 어디서 일하오?》

물을 주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던 처녀는 어째서인지 약간 놀라는 것이었다. 가을하늘처럼 맑던 처녀의 눈빛이 안개래도 낯것처럼 흐려 졌다. 이윽고 처녀는 **김정일** 화를 소꿉이 내려다 보며 축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저의 언니는 몇달전... 작업장에서 순직했어요!》

나는 저도모르게 눈을 흘렸다. 처녀의 말이 청천벽력처럼 여겨 졌다. 방안의 공기가 불시에 희박해 진듯 숨쉬기가 가뻤다. 그 아름다운 처녀가 죽다니!...

한동안 애절한 비감에 잠겨 있던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처녀에게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언니는 재작년 초겨울에 이미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안정치료를 받는 조건에서 생명을 몇년간 더 연장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가만히 누워서 10년을 살기보다는 단 1년이라도 값있고 보람 있게 살겠다면서 수술을 거절하고 퇴원했지요. 그리고는 여기 건설장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던 저도 그때 누구한테 절대로 언니의 병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는

것과 대신 언니는 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여기로 나왔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팔랭이로 불리웠지만 언니는 반대로 조용한 성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에 대하여 안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보다 더 쾌활하고 명랑해 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놀랍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작업때면 늘 웃고 떠들어 대곤 했으나 밤이 되면 남몰래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진 동통을 참느라고,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깨물곤해서 손가락마디에 굳은 살이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들과 다름없이 흙마대를 지고 함마질을 했으니… 언젠가 저는 남 몰래 언니한테 주사를 놓아주고 나서 막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운옥아, 사실 나도 힘들어. 나라고 왜 아프고 배 고프고 힘들지 않겠니. 나도 사람이야. 죽는다는것이 몸서리치도록 무섭기도 해. 하지만 못 견디게 피로운건 죽음이 아니라 나의 생이 이제 몇달밖에 남지 않았다는거다. 몇달! 곰곰히 생각해 보면 난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사랑을 받을줄만 알았지 보답은 하지 못했구나.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거든. 그런데 남은 생을 침상에서 눈물과 한숨속에서만 보낸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과연 뭐겠니? 그래서 난 이 건설향으로 나온거야. 일단 나왔으면 일을 해야지 제 한몸만 돌보고 있을수는 없지 않아? 걱정 말아. 난 우리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기전에는 쓰러지지 않아. 죽지 않아!…>

…진혁동지의 고백은 언니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처녀라면 누구나 가장 행복하게 받아 들여야 할 사랑의 고백을, 언니자신도 남 몰래 사랑하고있는 진혁동지의 불 같은 진정을 매정하게 거절해 버려야 하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해서 저도 막 피로웠습니다. 그래서 진혁동지를 따로 만나 사정하달라싶이 했습니다. 제발 언니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요. 언니한테는 이미 애인이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수는 없더군요. 진혁동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담배만 연거퍼 피우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난 너의 언니를 괴롭히는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이야! 윤희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걸 난 알고 있다. 믿고 있어! 그런데 어째서? …왜?… 아니, 난 물러 서지 않겠다. 운옥이, 가서 언니한테 전해라. 이 진혁이는 절대로 물러 서지 않겠단다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다시는 언니한테 사랑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으나 눈빛과 말마디, 행동에서 완강하고 열렬한 사랑이 열기처럼 풍겼습니다. 종당에는 우리 집으로 찾아 가서 부모들까지 만났어요. 할수없이 우리 부모들은

그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언니를 동정이나 하고 조용히 단념하고 말았을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면 더욱 물려설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뜨겁고 진실하게 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그의 사랑을 받아 들이지 않았어요. 진혁동지를 사랑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구간에 자갈을 펴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련대에서 제일 먼저 로반성토 공사를 끝내자고 옥옥 달라 붙었습니다. 며칠전에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 갔던 언니도 그날 의사들 몰래 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중대장인 진혁동지도 저와 동무들도 성을 내면서 등을 떠밀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무들, 제발 부탁이에요. 저도 일을…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눈물이 가랑가랑한 언니앞에 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물려 서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일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종내… 그리고는 일어 서지 못했어요. … 저와 진혁동지의 부추김을 받은 언니는 성벽처럼 에워 싸고 서서 눈굽이 젖어있는 중대원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정 깊은 눈길로 둘러보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했으나 가쁜 숨만 몰아 쉴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열을 짓씹어 삼키고 있는 진혁동지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언니의 눈에는 처절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아지랑이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피기가 가시기 시작한 언니의 입술새로 가느다란 말소리가 힘겹게 흘러 나왔습니다.

<용서… 하세요!>

진혁동지와 저밖에 누구도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숨조차 죽이고 있던 저는 그만에야 왈각 눈물을 쏟으며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니는 간신히 머리를 들어 곧고 아득하게 뻗어 간 로반을 한 없는 정이 어린 눈길로 오래도록 지켜 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이 맑고 깨끗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또다시 입술이 움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푹 그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을… 마저 어…서…>

저는 억이 막히고 가슴이 터져 와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진혁동지의 격한 목소리가 땅속에서 울려 나오듯 웅글게 들려 왔습니다.

<운-희! 알겠소. 알…겠소! 기다리오. 응! 기다려 주오…>

그는 눈물을 푹푹 떨구면서 하늘이라도 떠받드는듯이 무겁게 일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동무들, 마저… 마저 합시다!> 하고 부르짖으며 제 먼저 자갈배낭을 지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뿌리며 따라 섰어요. 병원의사와 간호원이 달려 오

자 언니는 저도 굳이 떠밀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달렸습니다. 누구의 얼굴에나 축축한것이 번쩍였고 땅을 구르는 발걸음소리는 하나처럼 힘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옆에서 의사와 간호원에게 부축 받아 앉아 있었는데 바람처럼 달려다니는 우리들을 지켜 보며 웃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을 내자요, 동무들,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리자요! 달리자요!> 하고 웨치는듯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작업을 끝내고서 허둥지둥 언니의 곁으로 모여 들었을 때 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조각처럼 굳어 저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을이 불 타는 하늘가아래로 넓고 곧게 뻗어 흘러 간 로반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크고 소담한 붉은 꽃송이가 뿌잇해 진 망막을 꿰고 우렁이 안겨 온다. 웃으면서 살고 웃으면서 생을 마친 한 이름 없는 처녀의 모습이 그우에 뚜렷하게 비쳐 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김정일**화에서 풍겨 나오는 밝고 열렬한 기운이 그 모습을 한껏 찬연하게 떠받들어준다...

문득 중대장청년의 말이 생각난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랑만의 시대》라고 하던 말이.

랑만! 랑만의 시대!... 그것이 어떤 랑만인가. 고결하고 아름다운 랑만의 인간 정운희! 시대와 랑만과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오, 백두산 백두산아
네 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만일 한점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폼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 자리 찾으리
...

오, **김정일**화여, 너의 열렬한 아름다움, 불 타는 열정, 굳세인 기상을 심장속에 받아 안았기에 평범한 그 처녀가 시대의 꽃으로 활짝 웃으며 핀 것이 아니더냐! 나는 붉디붉은 꽃송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멀리 하늘가에 묵묵히 떠 있는 흰 구름더미들을 태우며 진한 노을이 피여 오른다. 그 하늘아래 시원하게 뻗어간 청년영웅도로가 불그레하게 물들어있다.

고요히 불 타는 노을, 나에게서는 그것이 마치도 인간은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윤희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의 붉은 피도 스며배여 더더욱 찬연히 빛나는 우리 당의 기폭처럼 여겨 졌다.

나는 경건한 심정으로 오래도록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미래를 위해 승엄하게 불 타는 노을을...

꽃과 삶

김철혁

별나비를 불러
봄바람에 날리던 그 향기
그 밝던 웃음마저 다 걷어 안고
소리없이 지고 말았느냐
그 철늦은 봄서리바람 이겨 내지 못한
파원의 꽃들아

피워 준 해빛
뿌리 내려 준이 땅에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할바에야
너 피기는 왜 피었더냐

보아라, 한뿌리 한줄기 한가지우에서
변함없이 해빛 향해 웃고 있는 저 꽃들을...
싱그럽던 그 시절을 열매로 남기자고
아지끄에서 비바람 눈서리 다 이겨 냈거니
한번 피여 열매 맺어야 꽃인줄 내 아네

아무렴, 이 땅에 태줄 묻은 삶
나도 꽃다운 꽃으로 피어야 하리
위훈의 한순간으로라도 시다운 시 한편으로라도
우리 장군님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로
한번 태어나 흔적을 남겨야 삶인줄 내 아네!...

사랑합니다 외 1편

리명희

작업복은 어디까지나 작업복이어서
벗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으면 마음이 편하고
걸음마저 자연스러워
나는 사랑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때는
코노래도 저절로 나온답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아들이 탓할 직업 있겠습니까
난방사업소 수리공된 오늘도
병사시절 땀배이던 그 군복처럼
작업복은 조국앞에 성실한 나의 《군복》

오늘도 나는
서둘러 찾아 갑니다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그러면 사람들은 반겨 맞으며
이것저것 허물없이 부탁드립니다
일감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웃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밤새워 손질해 준
깨끗한 작업복 선뜻 갈아 입고

그러면 또다시 작업복은 어지러워 저도
나는 좋습니다

인민의 생활이 밝아 지고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치는
티 없는 내 마음도 밝기에

물이 잘 나온다고
관이 따뜻해 진다고
사람들 기뻐서 웃음 지을 때
나도 웃습니다
인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땀흘린
그 공지에 가슴 부풀어...

집집의 창가에 행복의 불빛이 흐르고
밝은 얼굴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나는 마음도 가벼이 돌아 갑니다
어머니 기다리는 정든 집으로

그리고 반겨 맞는 어머니앞에
땀배인 작업복 내여 드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릴적엔
장난으로 어지러워 진 내 옷을 벗기며
지청구도 많던 어머니
오늘에는 웃으며 행복히 웃으며
그 어떤 귀한 보물을 안으시듯 받아 안으며
말합니다
-수고했구나!

시간을 달라

입던 옷 방구석에 구겨 던지고
대낮에도 잠을 자는
게으른 너인이 있다면
내게 달라 그 시간을

새빨간 입술과 번쩍이는 뽀로찌로
허영의 만족을 느끼며
한가하게 장거리로 오가는 《멋쟁이》 너인이
있다면
내게 달라 그 시간을

리기의 구름우에 떠다니는
시간의 랑비자들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
그 시간을 모두 달라

달라 나에게
자그마한 시련앞에 주저앉은
용기 없는 사나이여
술도 마시고 시간도 마셔 버린 술주정꾼이
있다면
달라 나에게 그 시간을

아깝구나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기는
왜 해와 달은 오늘도

어제와 꼭 같은 시간에 뜨고 지는지
안타까운 이 마음

나는 바쁜 사람
시간이 모자라는 녀인
밥 짓고 빨래하고
남편시중 자식시중 세세히
직장에선 혁신자
안팎으로 일감은 언제나 많아

아, 세월이 끝없다 해도
창조의 열정 넘친 나에겐 모자라누나 시간이
그렇게도 많아 보이던 시간이
언제나 나에겐 부족하구나

어제도 오늘도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사랑에 불 타는 마음
열정에 끓이는 심장속엔
창조의 시간은 언제나 모자라누나

오늘같이 할 일 많은 조국앞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희망은 날마다 나래를 펼쳐
자꾸만 날으려 하니
참으로 모자라누나 시간이
스스로 일감을 찾고
창조로 불 타는 삶엔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누나

나에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전성호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들어 설 때면
탄부- 나에겐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집 뜰에 핀 해바라기처럼
행복이 활짝 웃는 집입니다
곱게 웃는 안해의 웃음이 있습니다
세살잡이 딸애를 버쩍 들어
빙 그네를 태우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푸짐한 식탁을 위해 부엌일에 바쁜
안해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을 때면
입에 슬쩍 넣어 주는 닭알부침이
왜 그렇게도 따갑겠습니까
가마목에 깨갓이 빨아 말리운
로동화는 왜 그리도 푸근한것입니까

밤교대를 마치고 들어 설 때면
아버지가 더 깊이 잠 들라고
의자에 기여 올라 창문보를 가리우며
아래목에 우는 고양이를 안고 달래는
어린 딸애가 왜 그리 귀엽겠습니까
작업복 주머니엔 월참에 보라고
칭찬 받은 딸애의 빨간별도 있습니다

네발파의 기적으로
탄광의 꽃보라를 안고 온 날은
강아지를 안고 노는 어린 딸애를
하늘이 높다 하게 추켜 올렸습니다
땀으로 성실한 노력으로 창조되는 이 행복이
이 딸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품안에서 재갈대는 딸애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아빠 오늘은 문을 안두드리나?》
한눈을 깜박이며 익살을 부려 봅니다
《오늘은 겨우 두발파를 했구나》
《아빠 미워》

문턱은 낮아도 한구석 빈 마음으로는
들어 설수 없는 문입니다
나라의 한가정 세대주의 이름으로
조국에 바치는 땀과 노력속에
빈 광차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정으로 사랑으로 가득찬 집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행복입니까
이 행복을 위해
정대도 뒤희겨 나는 청암도 허물어 내며
마를줄 모르는 행복의 자원을 찾아
땅속문을 두드리며 걷고 걷는 막장길입니다

이렇게 울린 발파소리가
우리 가정- 안해와 딸에겐
문 두드리는 소리로 이어 지고
탄광마을 안해들이 아이들이 외웁니다
-우리 세대준 오늘도 세발파를 했다우
-아빠가 문을 세번 두드렸어요

조국이 마련해 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천길 막장 한끝에서
나의 집 불 밝은 창가로 이어 지는
탄부- 나의 생활속에
이제는 굳어 진 습관입니다

산촌의 봄노래

김우림

바쁜 봄 (1)

기름진 앞벌을 다 갈아 엮고서
살구재언덕으로 가는 길
통통통... 트랙틀 세워 놓고
마당에 들어 서니
머칠새 달라 진것 많기도 하다

저 제비는 어느새 강남서 날아 왔는가
불어날 새끼들을 위해 집짓기에 바쁘구나
복슬강아지 봄구경 나서는 대문밖엔
햇병아리 오구구 제 먼저 앞서고...

-에그 목 멜라
달래김치 내놓는 어머니 목청에도
청청 봄기운이 어렸는데
양지쪽 등판에 착한 염소떼
햇풀향기에 목이 멘듯 매매- 운다

달래김치 한술 뜨기도전에
창밖엔 동생의
야무진 손나팔소리
-오빠

누렁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봄철엔 부지깽이도 편다더니

나도 것처럼 바쁘구나
불어 난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서도
더 부지런히 뛰어야겠구나

오, 계절이야 다를바 있으랴만
장군님 앞서 걸으신 들길에
어서 봄같이 하고파
어서 씨앗을 묻고파
한껏 일하고 싶은
세월의 광풍속에 더 활짝 피워야 하는
산촌의 바쁜 봄은 태동하거니

봄, 봄
나에겐 얼마나 바쁜 계절인가
자, 또 한바탕 달려 보자
나의 무쇠철마
《천리마》호 트랙트르야

잠 들었던 계곡을 드르륵 울리며
나의 트랙트르 살구재 비탈을 툴을제
이 등판에 물결 치는 이랑이랑마다에
감자씨앗과 함께 봄맞이 기쁨 묻어 반기는
산촌녀인들의 티 없는 웃음소리는
아 얼마나 아름다울것이나!

바쁜 봄 (2)

돌다리 사이 둔 은정마을
멀어서 글썽지만 보냈는가
약혼식 미루자는 소식만 달랑
운전실 창가로 날아 들었다

순금이는 손끝 여문 분조장
분조살림 얼마나 아름답찰텐가
아무렴, 하루하루 드바쁠거야

진달래며 철쭉꽃이 앞뒤산에 한창이라
그 한송이 꺾어 들고 찾아 갔대도
순금이는 기뻐 할 새도 없을거야

눈인사만 방긋 하고 말거야

겨울엔 생눈길 폭폭 빠지며
돌다리가 묻히면 풍덩 빠지며
강얼음 헤여 건너 만나던 열정
가슴속에 묻어 둔채 하루 또 이틀...

봄날은 사랑이 움트는 계절이라
누구나 이런 말 한다면
산촌의 젊음이 우리는 안다
앞뒤산의 활짝 핀 꽃송이보다
이 땅이 꺼지게 무르익은 금나락이 더 귀한줄

오, 봄날의 꽃은 앞뒤산에 피워 놓고
가을의 추억만 열매를 익혀 가는

우리네 산촌 젊은이들
마음속에 벌써 사랑의 열매가 익었다

봄같이 실 참

저 하늘의 둥근달도
별스레 정답구나
빨간 트랙톨에 기대여
땀 들이며 한대 붙여 무는 이런 때엔

들큰한 기름내와 어울려
구수한 두엄내와 어울려
촉촉히 젖은 머리카락 쓰다듬어 주는
싱그런 봄바람

숲속 어디선가
구성진 밤새의 울음소리
발기슭 어디선가

향긋한 냉이며 꽃다지 향기...

그러면 다가오는 가을의 향기에
한껏 목이 메여 가슴이 메여
내 취한 사람모양
이 땅의 훈향 한껏 들이키나니

오, 집안의 아래목을 차지한듯
온 별판을 잡자리로 정하고 싶은
이런 밤, 이런 순간엔
로동의 향취에 취해
내 고향의 산등성이를 베개 삼고
내 고향의 강줄기에 발을 잠그고
한껏 발편잠을 폭 자고 싶다!

발동소리

등 넘어 새땅으로 발같이 간다고
알리고파 과원 향해 요란스레 툽툽...
안달이 난 내 마음 하늘에 닿았는가
빨간 트랙톨 《굴뚝》에선
애꿎은 가락지연기만 풍풍...

저것 봐라!
들은등 마는등 아지만 다듬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오가던 순금이
툽툽... 트랙터 산굽이를 돌 때야
땀 씻는척 수집계 수건 마주 흔들고
누가 볼세라 나무새에 얼굴 살짝 감추누나

그래도 내 마음은 하냥 기뻐
이제 발같이 끝내고
툽툽... 자랑스레 돌아 올 때면
그날밤처럼 동구박 샘터에
틀림없이 달려 나올 너의 모습 어려와

툽툽... 속상한 발동소리
허공에 동그라미만 그려도
내물에 따라 서는 별빛 눈동자
고향을 가꿔 갈 우리네 사랑을
오, 누구보다 잘 아는 발동소리 발동소리

저녁풍경

걸음도 가볍다 마음도 가볍다
온 종일 발걸이에 빠근한 가슴
작업복 헤쳐 놓은채
마음에 들어 서는 이 저녁

구수한 나무연기 풍기는 동구길엔
휘휘- 회초리 휘두르는 우물집아바이
매매- 새끼염소 앞세우고
배부른 염소떼 들어 서누나
물씬 젖냄새 풍겨 오누나

줄당콩대 나란히 켜 지은 마을길엔

파종총화 끝내고 찌릉찌릉 돌아 오는
작업반장의 흥겨운 자전거종소리
아마도 1등평가 받았나보다

시내가엔 산나물 행구던 너인
놀음에 정신 팔린 아이를 세워 놓고
얼굴을 문대주며 옷주체를 나무란다
그 곁에는 복슬장아지
고개 숙인 어린 《주인》의 다리에 휘감긴다

김 오르는 가마를 행주로 닦으며

지금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
가마에는 예나 다름없이
구수한 토장국이
소리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으리

오, 아무리 드바쁜 계절이여도
생활은 속일수 없어
선전실 앞마당엔 손풍금소리
농장의 젊은이들 서로 쌍쌍이

춤가락에 흥겨운 내 고향의 저녁이여
이 땅을 위해 흘린 땀 없이야
어찌 고향의 저녁을 노래할수 있으랴
내 고향의 저녁은
서산에 해가 지는 자연의 한구간이 아니여라
한껏 흘린 땀 씻는 그 행복이어서
이런 저녁에 끌려
누구나 고향을 못 떠나는것이리

땅이 말하게 하자

그날엔 할 말도 많으리라
나의 프락또르야
너와 함께 넘어 온
험난한 고개들을 두고
고향산촌을 위해 미래를 위해
흘려 온 땀방울을 두고...

할 말도 많으리라
강성대국 령마루에 올라서는 그날엔
들끓는 협동벌과 함께
사회주의조국과 함께
고난속에 변함없이 운명을 함께 한
이 공지를 두고

나의 프락또르야
내 너로 하여
누구보다 이 봄과 가까워 졌다
내 너로 하여
누구보다 이 고향과 가까워 졌다
내 너로 하여
누구보다 이 조국과 가까워 졌다

농사군의 집에마저
쌀독 끓는 소리가 울리던 그 아침
어찌하여 배고픔보다 더 아픈 자책이
이 산촌 젊은이의 가슴 허비였던가
어찌하여 맞은것보다 더 아픈 피로움이
이 산촌 젊은이의 가슴 두드렸던가

정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우리 장군님

힘겨운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서 헤치실 때
나라쌀독 못 채운 그 죄스러움으로
타던 가슴이여
아프던 가슴이여
아, 시련속에 고난속에 더 정든 산촌아!

할 말도 많으리라
저 범골등판의 감자꽃은 어떻게 피여 났고
저 폭포팔발전소는 어떻게 돌아 가는지
그리고 저기 옥련풀어귀
무지개빛 칠색송어 반기는 양어장은
어떻게 이 산촌에 솟아 났는지

할 말도 많으리라 나의 프락또르야
때로 끼니를 번진 너의 주인이
땀들여 불 붙여 준 대용연료의 그 화염이
너의 무죄보습 얼마나 억세게 쳐들게 했는가를
너의 힘찬 동음 얼마나 우렁차게 용쓰게
했는가를

자 앞으로 나의 프락또르야
달리는 준마의 발굽소리인양
우렁찬 동음으로 이 산촌을 흔들자
남보다 더 많은 땀 흘리지 않고서야
승리의 그날에 자랑할 말 무엇이랴

가슴속에 끓는 하많은 말
땀으로 쏟고 이 땅에 묻어
알찬 열매를 주렁지우자
강성대국의 흥그러운 가을날에
그 열매가 설레이며 다 말할수 있게
후더운 땀으로 걸군 이 땅이 다 말할수 있게-

중세녀류작가 리씨와 서한체소설 《규방녀인의 원한》 (《규한록》)에 대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수많은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풍부한 우리 나라 고전문학유산 가운데는 19세기 대표적인 사실주의적소설인 《규방녀인의 원한》(《규한록》)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금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규방녀인의 원한》의 작가는 리씨(1804~?)라는 수성이다. 소설은 1834년에 씌여 진 일인칭 서한체소설로서 오래동안 알려 지지 않고 있다가 약 20년전에 발굴되였다.

작가 리씨는 대대로 권문세가로 알려 져 있던 집안의 후손으로 전라도 보성군 대곡에서 출생하여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

그의 할머니는 우리 글에 능하여 자기 손녀에게 일찍부터 우리 글을 배워 주었다.

기록에 의하면 리씨는 시집 갈 때까지 글공부를 많이 하였으며 여가에 한시도 적지 않게 지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멸되어 전해 지는것은 없다.

리씨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호방하여 동리사람들로부터 보기 드문 《너걸》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열일곱살나던 해에 리씨는 중세시단에서 《어부사시사》의 창작으로 이름 높은 고산 윤선도의 8대종손에게 시집을 갔다. 하지만 그보다 한살 아래였던 남편 윤광호가 결혼한지 몇달 안되어 병으로 갑자기 죽는 바람에 리씨는 자식도 없이 어이없는 청상과부로 되고 말았다.

당시 봉건사회에서 녀성들은 한번 출가하면 후손이 있던 없던 그 가문에 의탁하여 일생을 보내야 하였다.

남편을 잃은 리씨는 슬픔에 사로잡혀 독한 마음을 먹고 며칠동안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고 자

리에 누워 일어날념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그의 시아버지와 두 시삼촌들은 리씨의 머리말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위로해주었다. 그가 죽으면 유명한 윤씨종손집이 망한다는것이였다. 너무도 곡진히 타이르기에 그에 감동된 리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당시 해남윤씨 종손집은 대대로 이곳에 정착한 량반집으로서 가산이 많았다. 집도 마흔칸짜리 큰 기와집이였고 노비와 전답도 적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리씨의 시아버지는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느라 늘 바빠 돌아가야 했다. 그런속에서도 그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위해 원심을 많이 썼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혹 집안사람들의 말밥에 오를라치면 다시는 그런 말을 번지지도 못하게 막아 나서군 했다.

몇해후 리씨는 시아버지의 천거로 충청도 서천에서 남편의 11촌조카벌되는 먼 친척아이를 양자로 데려왔다. 이들이 가까운 친척집아이를 양자로 삼지 않은것은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큰 시삼촌네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 작은 시삼촌네가 시샘할것이고 혹은 이와 반대로 한다 해도 형제간의 의가 상할것은 뻔한 일이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양자삼는 일로 하여 리씨를 그리도 따뜻이 대해주던 두 시삼촌들은 자기네 자손을 양자로 삼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품고 모질게도 시비질해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차에 리씨의 시아버지가 그만 돌아 갔다. 리씨는 자기를 리해해 주고 위해 주던 유일한 사람인 시아버지가 돌아 가자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리씨는 양아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으며 그 애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강심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씨는 이제부터는 시아버지가 하던 바깥일과 집안일을 주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두 시삼촌들은 리씨를 도와줄 대신 리씨를 비방모해하는데 열을 올렸으며 저들의 형수인 리씨의 시어머니를 꼬드키며 별의별 루명을

다 씌우려 하였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 시어머니도 그를 박해하였다.

리씨가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것은 한달에도 너덧번씩 치르어야 하는 조상제였다.

당시 웬간한 량반집들에서는 10대조상제까지 지냈다. 조상제때에는 린근에서뿐아니라 타도에 이사간 친척들도 종손집으로 밀려들었다. 그 많은 조상제를 주관하고 친척들의 행차를 맞고 보내는 일을 종손집 며느리인 리씨가 해야 하였다.

두 시삼촌들은 대사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도 아무런 물질적방조도 주지 않고 가산을 축내면서 리씨를 헐뜯기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이름높던 윤씨 종손집은 얼마 못가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리씨는 집안을 추세워보려고 처음에는 노비들을 엄하게 다스려 보았다. 그러자 시삼촌들은 량반댁부녀가 너무도 모질다고 시비질하였다.

리씨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노비들을 잘 먹고 잘 입히며 그들을 덕으로 다스리려 하였다.

그렇게 되자 노비들은 일도 잘하고 리씨부인이 마음후하다고 칭찬하였지만 시삼촌들은 또 량반부녀가 노비들과 한 짝이 되어 돌아 간다는 험구를 퍼뜨렸다.

말이 말을 낳아 리씨에 대한 터무니없는 험담이 이 지방에 짝 퍼지게 되었다.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된 리씨는 더없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봉하고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러느라니 심화병이 생겨 그의 육체를 사정없이 좀먹기 시작하였다.

리씨는 신병으로 집안일과 바깥일을 돌볼수 없게 되자 그것을 노비들에게 적당히 떠맡겼다. 이렇게 되자 노비들이 또한 제 마음대로 가산을 훔쳐 내어 집안일은 더욱 말이 아니었으며 가장집물도 점점 줄어 들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윤씨 종손집은 거덜이 나 대사 때마다 꾀 빚으로 하여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하는수없이 술한 전답을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리씨가 더는 견디어 낼수 없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친정집에서 할머니가 앓는다는 기별이 왔다.

그 기별을 받고 리씨부인은 시집온지 14년만에 처음으로 친정으로 갔다.

한달이 지났을 때 시집에서 7대고조모 제사날이 박두하였으니 빨리 돌아 오라는 독촉이 왔다.

리씨부인은 자리에 누워 시어머니에게 지나간

14년간의 고통스런 시집살이에 대하여 하소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몸이 나올 때까지 친정에 있게 해달라는 청을 드렸다. 편지를 받아 본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의 하정을 알겠노라고, 그러니 병이 다 나올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는 회답을 보내고 그후부터는 두시삼촌들이 다시는 리씨부인에 대한 시비질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서한체소설 《규방머인의 원한》은 이렇듯 리씨부인이 친정집에 가서 그때까지 겪어온 가지가지의 원통한 사연을 편지로 써서 시어머니에게 보낸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이 작품은 당시 량반가정의 허례허식 그리고 재물을 둘러싼 무서운 시기질투, 량반가문의 와해몰락과정을 서한체형식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리씨부인과 시삼촌들과의 관계를 점차 심화시켜나가면서 량반가문의 허례허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설은 또한 중세소설의 도식적인 틀을 깨뜨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인사말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펼치고 있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시공간상 제약이 없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조직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계기점에 이러저러한 생활세부들을 집중시켜 천명하려는 사상적의도를 강조하고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보다 부각되게 하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량반계급의 생활일면을 가정생활을 통하여 파헤쳐 보이고 있을뿐 인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가 의도적으로 쓴 소설이 아니므로 예술적측면에서도 일련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는 자주 이야기를 반복하여 쓰면서 인간관계를 점차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반복수법은 일련의 형상적특성을 가지고있으나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감을 주는 등 부족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녀류작가에 의하여 씌여진 흔치 않은 소설로서 묘사의 섬세성과 언어형상의 생동성으로 하여 그리고 현실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또한 봉건부녀의 시점에서 당대 사회의 악폐를 신랄히 폭로 비판한것으로 하여 19세기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높이를 보여 주는 대표작의 하나로 된다.

리창유